급구 법구

고해를 건넌 배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어찌 잠자기를 좋아할까보냐.
용맹정진하여 마음을 거두어서 항상 선정에 두라.

-보살처태경-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무료분양하는 불교 전적사
041)734-2680
충남 논산시 연산면 수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7월 4일 수요일 (주간) 제 325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태백선원의 가행정진

육바라밀의 한 항목으로 정진바라밀이 있고 팔정도의 한 덕목으로 정정진(正精進)이 있는 것처럼, 정진이야말로 불교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법에는 염불정진, 참선정진, 기도정진 등의 정진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그러나 한국불교가 선불교적 입장에 서면서부터는 좌선을 어떤 모습으로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 일상적인 정진과 가행정진(加行精進), 그리고 잠을 자지 않고 참선하는 용맹정진(勇猛精進)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전국 유일 가행정진 도량 각화사 태백선원.

해인사 선방의 안거기간 중 산문출타로 수행기풍 문제가 교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유일의 '가행정진' 도량인 각화사 태백선원에 봄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납자들에게 반드시 한철이라도 나봐야 한다는 염원을 가지게 하는 유서깊은 수행도량인 태백선원은 석달반 동안의 안거기간에 하루 2~3시간만 자면서 18시간씩 무섭게 정진하는 이름난 수행처. 보통 용맹정진 기간이 7~15일인 것을 감안할 때, 그 정진력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 99년 동안거때부터 시작된 태백선원의 가행정진의 선풍은 수좌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엄격한 선원청규, 각화사 주지 정진스님의 지극한 대중공양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자리잡은 것. 현재 30명의 수좌들이 정진하고 있는 이 선원은 태백산 사고지(史庫地)가 위치할 만큼 산중오지인데다, 산을 연꽃처럼 둘러싸고 있는 지세의 도움으로 '공부를 할수록 힘이 붙는다'는 것이 수좌들의 정평. 각화사의 남암에 주석하는 초삼스님이 13년간 철조망을 치고 용맹정진하고 있는 것도 수좌들의 발심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태백선원에 조실이 없는 것도 이런 연유인듯).

이렇게 선원 중의 선원으로 입소문이 나다보니 요즘은 웬만한 구참 납자들도 입방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10~20년 이력의 수좌들은 이 곳에서 득력(得力)하기 위해 스스로 청규를 따르기로 서약한다. 결제 이후에는 산문 불출입과 5신채(辛菜, 부추 파 마늘 달래 생강) 불식, 등산 및 독서 금지, 정진시간 엄수 등을 서약하며 발병 등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1시간이라도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즉시 퇴방조치된다. 이런 철두철미한 원칙이 지켜졌기에 선원의 위상이 날로 높아진 것이리라.

김재경(취재 1부 기자)

장 군 죽 비

◇범어사 새 주지 선출 둘러싸고 갈등 심화. 세속에 모범이 돼야 할 절집에서도 원로들의 권위마저 벼랑 끝으로. (2면)

◇모 정치인 선친 묘 왕기(王氣)가 서린 곳으로 이장. 이 나라 정치 지도자(?)에게 '나라'는 없다. '정권욕' 만 있을 뿐. (8면)

◇고려시대 조성 3층 석탑 폭우를 틈탄 도난범들의 손아귀로. 도난범들의 범죄 의욕(?)을 부추기는 비지정 문화재 대책 미련 시급. (22면)

◇절로 가는 불제자들 가로막고 입장료 챙기는 청량산 도립공원. 산적에게 보따리 털려도 이보다는 덜 황당할 듯. (23면)

"논쟁 지양…21세기 불사정립 계기"

本紙, '해인사 대불' 지도자급 50인 전화설문

'세계 최대' 엔 반대의견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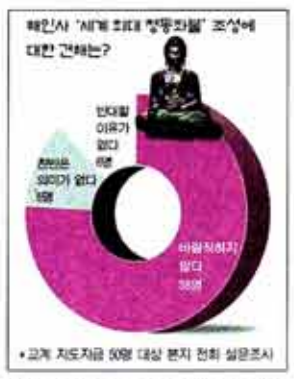
"수좌 집단행동 참회" 한목소리

"찬성 · 반대의 이분법적 판단을 지양하고 21세기 불사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 계기로 삼자."

해인사 대불 조성 논란과 관련, 본지가 종단과 각 단체장 등 불교계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부대중 50인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또 세계 최대 불상 건립에는 '반대' 견해가 우세했으며, 해인사 선방 수좌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참회와 화합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장스님(수덕사 주지) 등 스님 24명, 문명대 교수(동국대) 등 재가자 26명등 50명을 대상으로 4개 항목에 걸쳐 6월27~28일 이틀동안 이뤄졌다. ☞관련기사 3·9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최대 청동좌불' 조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38명(76%)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은 8명(16%), '찬반은 의미가 없다'는 중립적 입장은 8명(16%)이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법보사찰의 면모에 어울리지 않는다' '물량적 불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등의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대불 논란을 푸는 방법으로는 '대



* 고계 지도자급 50명 대상 본지 전화 설문조사

장경 국역사업 등 법보사찰 특성에 맞게 '교육 및 복지불사로 전환' '규모 축소' 등의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21세기 바람직한 불사 방향과 관련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인재 · 복지 불사를 꼽았는데, '시대에 맞는 불사'나 '대중에 맞는 불사' 등 소수 견해도 인재 · 복지불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불사가 이 두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인사 수좌들의 집단행동으로 야기된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수좌들이 먼저 참회해야 한다'(13명)가 가장 많았으며, '이해와 양보를 통한 화해'를 주문(12명)한 응답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종단의 큰 스님들이 나서야 한다'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좌들과 해인사 측에서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훨씬 우세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교육 · 포교원장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 유시

조계종 제17차 원로회의(의장 법전)가 6월 26일 원로의원 19명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원로회의는 의장 명의로 "현재 공석 중에 있는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조속히 선출하라"고 중앙종회에 유시를 내렸다. 또 5년 원로의원 임기가 만료된 원담스님(수덕사 방장)을 재선출했다.

원로회의에서는 법계제도 시행의 건과 관련, 차기회의에서 교육원장을 출석시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법계제도 시행에 대한 경과보고를 들기로 했으며,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스님에게 '조선시대 고승비문총람'을 발간한 공로로 종정스님 표창패를 수여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문화재 조사비 추경예산서 제외

비지정 불교문화재 보존과 관련해 기대를 모았던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비가 추경예산에서 제외됐다.

문화재청은 6월 25일 청이 추경예산으로 신청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비 5억 원이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재청과 함께 7개년 계획으로 전국 본 · 말사 성보문화재 정밀조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한편 문화재청은 내년 예산에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비 5억 원을 책정해 기획예산처에 올렸다. 문화재청은 지난해에도 같은 항목으로 5억 원을 상정했으나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삭제된 바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한국불교역사기념관 '원만성취' 기원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역사문화관' 건립불사가 시작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6월 26일 원로의장 법전스님 등 사부대중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대법회와 총무원 청사앞에서 현판식을 봉행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수습기자 찾습니다

7월 20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상을 보는 힘,
부처님과 중생을 이어주는 밝음의 가교구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대불교의 내일을 이끌 인재를 찾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3차
수습기자	약간명	①불교신자 ②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2001년 8월 졸업예정자 병역을 마친 사람은 1973년 1월 1일이후 병역면제 남자 또는 여자는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 접수기간 : 2001년 7월 20일(금)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본사 인터넷신문인 붓다뉴스(http://www.buddhanews.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불교정보센터인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에 접속, 안내에 따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직지'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

유네스코 자문회의 "사료적 가치" 높이 평가

1377년 청주 흥덕사지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회의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5차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신청한 〈직지〉와 〈승정원 일기〉를 비롯해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 등 21점을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으로 권고키로 결정했다.

당초 〈직지〉는 그 소유권을 프랑스가 갖고 있어 다소의 논란이 예상됐지만, 심의위원들이 〈직지〉의 사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 의외로 쉽게 세계기록유산으로 결정됐다.

이들 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확정은 올 연말께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공식 발표하는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여수)는 "현재까지 자문회의의 권고가 반려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록물들은 세계기록 유산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직지〉와 〈승정원 일기〉를 비롯, 지난 1997년 등재된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 등 총 4점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한편, '직지'는 고려말 경한스님이 역대조사들의 계송, 법어, 설법등에서 선의요체에 관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이다. 이번에 지정된 '직지'는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한 하권이다. 이 책은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80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로 인쇄돼 지난 72년 파리국제도서전에서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았다. ☞관련기사 16면

권형진 기자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社告) 22면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4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시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사 설

공원입장료 마찰 외면말라

국 · 도립공원의 입장료를 둘러싸고 관리사무소 측과 사찰, 신도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리사무소측은 입장료징수를 관련규정에 의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사찰이나 신도들은 제 집에 드나들거나 종교활동을 하는데 입장료를 내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 대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다.

최근 경북 청량산에서도 입장료 문제로 마찰이 벌어져 사찰과 신도 측에서 부당징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도 환경부와 문화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공원구역을 출입하는 스님이나 신도들에 대한 입장료 징수 철회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리사무소측이 내세우는 관련규정이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4항 입장료 면제기준에 '당해공원구역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에 한에서만 입장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 상주 스님이나 타 사찰 신도는 당연히 징수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돌이켜보면 국 · 도립공원 지역은 명산대찰이 자리잡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사찰소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부에서 공원지정을 해놓고 입장료를 받으며 주인행세를 하려하니 사찰이나 신도 측에서 보면 가당치않게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사찰소유임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느 쪽이 진짜 주인이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이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먼 산 구경하듯 해서는 안될 것이며, 조계종에서도 문화관광부나 환경부, 지자체에 협조공문만 띄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불교라는 종교의 신행 특징이 특정 사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에게는 전국의 모든 절이 수행처이자 생활의 장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5억원을 아끼는 추경예산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70~80%가 불교와 연관이 있다. 1,600여년 동안이나 불교는 한국 민족의 사상적 · 문화적 모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문화 유산의 고갱이를 이루는 불교문화재는 불교라는 종교를 넘어 모두가 알뜰히 보살피고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국가적 자산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가. 하루가 멀다고 문화재의 도난이나 도굴사건이 반복된다. 여기에다 도난 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이고, 그 중 94.8%가 비지정문화재임을 감안하면 문화재 일제조사는 시급한 사안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한 탓일까. 문화재청에서 작년부터 비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각 사찰에 산재해 있는 성보나 문화재를 올해부터 7개년 계획으로 정밀조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문화재청이 추경예산으로 신청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비 5억원이 최근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당초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없지 않았으나 올해의 경우 '불교문화재 도난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 등으로 교계 안팎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5억원의 문화재조사비가 올 추경예산에서 제외돼 버리니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불교계도 문화재 일제 조사에 국가 예산이 보조되면 더욱 좋을 일이지만 국가 예산 타령만 하고 미룰 일 또한 아니다. 종단과 사찰차원에서도 비지정 문화재 보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내년 예산에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비 5억원을 책정해 기획예산처에 올리겠다고 한다. 내년에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배정을 정부에 촉구한다.

외국인 사찰안내 조직 만든다

국제포교사 등 120여명 8~9월 결성

월드컵 · 부산 아시안게임때 불교홍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연합조직이 발족한다.

조계종 포교원과 국제포교사회 주최로 6월 23-24일 이틀간 해인사 홍제암에서 열린 '외국인 대상 사찰안내 자원봉사자 연합연수'에 참가한 국제포교사, 예비포교사, 사찰자원봉사자, 관광통역가이드 등 120여명의 외국인 사찰안내 자원봉사자들은 올 8~9월 중으로 외국인 사찰안내 연합조직을 발족시키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장에 선업스님(국제포교사회 부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부위원장은 조계사 봉은사 통도사 송광사 등 4개 사찰에서 맡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준비위원회는 7월 중순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합조직 결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조직은 2002년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에 한국과 한국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불교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교 홍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조직은 △외국인 대상 사찰안내 지침서 제작 △불교관련 용어 통일화 및 번역 작업 △사찰별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화 △정기적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되며, 언어영역별(영어, 일어, 중국어 등)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조직은 조계종 본사급 사찰을 포함한 지역별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중앙조직과 연계시키는 형태로, 중앙에서는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조직은 포교원 내에 위치하게 된다.

준비위원장 선업스님은 "불교용어도 통일돼 있지 않고, 사찰이해를 돕는 프로그램도 부족해 그동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사찰안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사찰안내를 위해 연합조직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탑으로…

"불교학 연구 종단 지원 필요"

전공교수 워크숍서 제기

불교학 전공 교수들이 종단차원의 불교학 연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직대 상운)이 6월 27-28일 이틀간 봉화 청량사에서 연 '불교전공 교수 초청 산사의 만남' 행사에 참석한 교수들은 불교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종단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불교학을 이끌어갈 인재양성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날 행사에는 심재룡(서울대) · 이중표(전남대) · 이진오(부산대) · 차승후(원불교대학원) 교수 등 14명이 참석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학담스님(종회의원)은 "불교학의 중심을 세우기 위한 종단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복이후 한국불교학의 현상적 위상 변화 과정'을 주제로 발제한 이중표 교수(전남대)도 "교단의 불교학 연구와 교육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동국대의 폐쇄된 연구 풍토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가 교수들은 강사진 이하급에 대한 종단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응용불교에 대한 관심과 저변확대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명우 기자

해외파견 국제포교사

13~16일 한국문화체험

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제2회 해외파견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이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부석사, 통도사, 석굴암등에서 개최된다.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홍포함으로써 민간교역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포교사들에게 한국문화와 불교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김원우기자

승려법 · 계단법 제정

선학원 임시이사회

(재)선학원(이사장 정일)은 6월 2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승려법과 계단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학원이 제정한 승려법은 승려의 정의, 승려증 발급기준, 승려 권리와 의무, 포상과 징계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또 계단법은 계단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계단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수계의 자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학원은 독자적인 승려법과 계단법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조계종단이 지난해 선학원 소속 스님들의 승려분한신고 접수만 받고 승려증 발급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범어사 갈등국면 심화

원로회합 성오스님 징계 새주지 선출

운영위등 수용않고 임시집행부 구성

범어사 운영위원회와 종무협의회는 6월 27일 종무소 회의실에서 범어사 문도 운영 회의를 열어 성오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고 임시집행부를 선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성오스님을 파문조치하고 새주지로 대성스님을 결정한 22일 원로스님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차후 원로스님측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324호 1면 뉴스속 뉴스 참조)

중원스님, 벽파스님, 홍교스님 등 현 집행부와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 스님을 비롯 3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성오스님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9월 중순께 새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산중총회가 열리게 되는 과도기간동안 임시체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중원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영환, 인걸, 정여, 계전 스님 등 14명의 위원으로 종무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종무대책위는 이날 즉석에서 회의를 열어 부주지 영환스님 재무 정여스님 총무 범산스님으로 임시집행부를 구성했다.

또한 새주지 선출은 종헌 종법에 따라 9월 20일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 후보를 지명한 뒤 종단법규에 따른 산중총회를 거쳐 승인받기로 했다. 중원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범어사를 걱정하는 원로스님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야 하나 종헌종법상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년승가연합 스님은 "범어사의 최고 권위를 가진 원로스님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원로회의에서 기능이 정지된 종무협의회와 운영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천미희기자

사찰환경 침해 대응 모색

서울 경기 강원 주지 연수

해인사사태 조사 촉구도

서울 경기 · 강원 본말사 주지 연수회가 교육원 주최로 6월27-28일 이틀간 양평 남한강 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회는 주지스님의 마인드 제고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과 함께 종단의 주요 종책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두 195명의 세 지역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 참가 주지스님들은 조계종 사찰환경위원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생태사찰 조성에 힘쓰는 한편 대외적 사찰환경 침해사례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포교원이 벌이고 있는 신도교육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작은 사찰의 경우 지역단위로 묶어 신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연수회 참가 주지스님들은 최근 벌어진 해인사 주좌 스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총무원의 관련자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총무원에 전달했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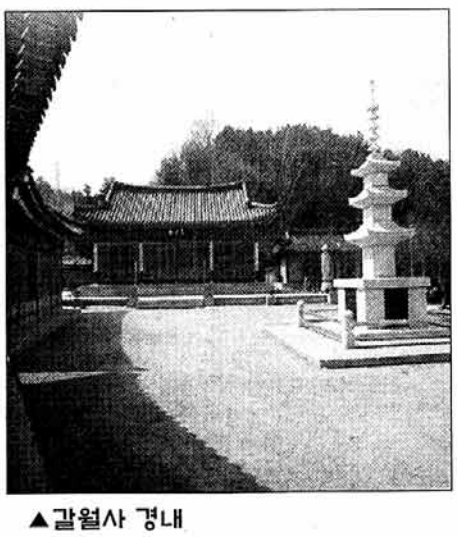
'바람직한 불사' 토론회

중신회 11일 조계사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11일 오후 2시 '현행 불사문화의 점검과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철승 조계종 성보전문위원이 '지금의 불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평래 충남대 교수가 '바람직한 불사의 방향모색을 위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서며,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백남석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재가연대 포교사단 불교산악인연합회 등 교계 16개 단체도 6월 28일 3차 회의를 갖고 18일(예정) 해인사 청동대불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갈월사 경내



갈 월 사 영 탑(靈 搭)

윤달에 조상에게 효도를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만들어 졌으며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윤달에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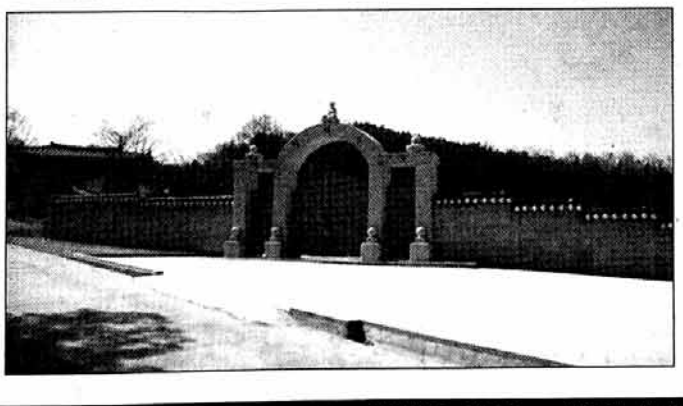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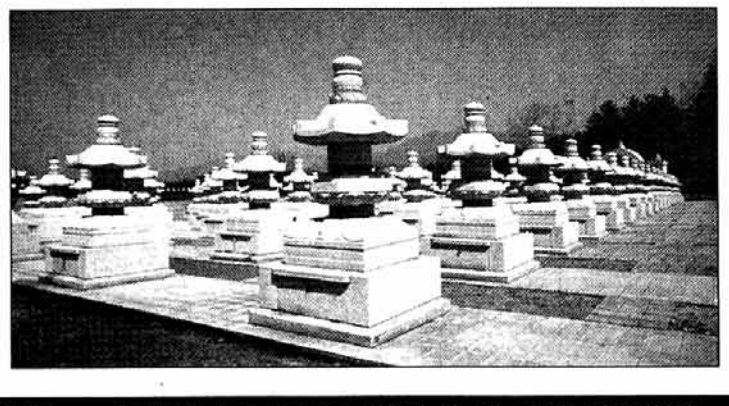
탑공원 설립의 의의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은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치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정문 ▼



조성된 영탑 ▼



▶문 의: 031)774-7374, 771-9577, 772-190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 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www.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목어

탈북자와 난민 지위



6 · 15공동선언 1주기를 맞아 남북의 민간인 650여 명이 금강산에서 통일을 향한 주춧돌을 다듬고 있을 때 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 탈북자 대열에 나선 이가 있다는 것은 슬프지만 오늘의 민족적 현실이다.

그 동안 그림을 통해 탈북자들의 실상을 자유세계에 알려온 장길수군 등 일곱명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베이징사무소에 국제법상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인 국제법과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다뤄져야만 한다. 현재 중국의 입장도 국제법과 중국의 법률 및 인권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한편 북한 당국과의 조율과정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일체중생이 열반에 들지 않는다면 나도 역시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북한의 동포 한 명이라도 불행 속에 놓아두고는 통일을 이루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신으로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유치해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중국정부에게 그에 걸맞는 외교적 처신을 요구하므로써 당당하고도 실리를 거두는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발휘해 지난 박충일씨 등의 탈북 때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중국도 올림픽 개최 등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북한 당국의 배려를 통해 탈북주민에 대한 난민지위를 얻어내는 것이다.

국제법에도 국적 · 정치적 견해, 특정사회단체 참여 등을 이유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을 모두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일의 현명한 처리가 평화적 통일성취의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 하며 비슷한 일이 수없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므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현(중단협 사무국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 1994년 10월15일 최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 대표전화 02-737-8881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해인사 대불' 설문결과 분석

외형불사 '자제' … 인재 · 복지 '나서자'

해인사 대불 조성 문제와 관련한 본지 전화 설문 조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이제 '외형 불사' 시대를 마감하고 시대와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 복지 불사'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설문에 응한 50인 가운데 '바람직한 불사 방향'으로 '인재 · 복지 불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30명이나 됐으며, 자비의 사회적 실천 또는 포교불사 등에 대한 견해까지 감안하면, 응답자의 80%인 40여 명이 외형적 불사에서 보살행 형태의 불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이 불교계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급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형에 집착하는 물량주의적 불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가 되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밖에 자연환경 및 수행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거나, 대중여론 수렴, 문화 · 출판 등도 바람직한 불사의 유형으로 꼽혔다.

이같은 결과는 비록 이번 설문조사가 조사대상자 수와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불사 형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의기위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불 조성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38명, 76%)가 불교계 안팎의 일반적 반대 여론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은 '찬반의 논리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시각(6명)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긍정적 · 부정적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또 찬반논리에 따른 대립은 불교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다.

'대불 조성이 문제될 게 없다'는 응답 역시 6명(12%)이었는데, 이들은 대불 조성을 미래의 문화재를 만드는 불사 또는 불심을 심어주는 불사로 평가했다. 또 불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과 환경문제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38명은 그 이유로

원로 스님 고견 수용
종단차원 적극 중재
토론 통해 접점찾기

'법보사찰에 어울리지 않는다'(14명) '시기적으로 부적절'(10명) '외형적인 불사에 매달려서는 안된다'(8명)가 주류를 이뤘으며, 특히 '세계 최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해인사 불사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바람직한 불사 방향과 일치하는 대답을 내놓았다. 가장 많이 꼽힌 항목으로는 한문 경전의 국역사업이나 인터넷 경판, 장경각 특화 등 '법보종찰의 특성에 걸맞는 불사를 해야 한다'(13명)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교육불사(7명), 복지불사(6명) 순이었다.

설문조사 문항

1. 해인사에서 '세계 최대 청동 좌불'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반대한다면 해인사의 불사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의견은?

3. 불교계를 위한 바람직한 불사의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4. 해인사 대불 조성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고, 해인사 선방 수좌들의 실상사에서의 집단행동으로 이에 대한 비판도 커져 불교계 내부으로까지 비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해인사 수좌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안거 중에 집단행동을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도 '수좌들의 참회'(14명) '해인사 측의 사과'(8명) 등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수좌들과 해인사의 우선 사과가 문제해결의 열쇠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실상사도 양해하는 등 서로가 이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12명)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이 문제가 외부에 불교계의 내분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이밖에 '큰 스님들이 나서야 한다'(5명) '종단에서 중재해야 한다'(4명) '토론을 통해 해결하라'(3명)는 의견도 있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전화설문 대상자 (무순)

법장(수덕사 주지)	**김재일**(동신반야회 회장)
청화(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김동훈**(경봉련 운영위원장)
법성(직지사 주지)	**김운하**(금융단 불교연합회 운영위원장)
법현(선운사 주지)	**오희창**(불자교정인연합회 회장)
광우(천국비구니회장)	**박창식**(월도청 불교협의회 의장)
범하(봉도사 성보박물관장)	**임완숙**(교사불자연합회 회장)
정각(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김주본**(한국운전불자연합회 회장)
홍선(직지사 성보박물관장)	**강신철**(경향신문 불자회 회장)
양산(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김규범**(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지현(송광사 원의장)	**이병두**(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사무국장)
경륜(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장)	**이희용**(전 군승단장)
원행(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왕선자**(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
각현(연꽃마을 이사장)	**윤재승**(민족사 대표)
지광(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김형균**(도서출판 등뚝나라 대표)
성운(은평노인복지관장)	**조동룡**(변호사)
법안(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이 만**(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성관(수원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박상국**(극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
성열(서울 강남포교원 주지)	**이현덕**(전자신문 논설실장)
대운(태고종 총무연 부원장)	**최명준**(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지정(서울 봉공사 주지)	**변상섭**(불교학자)
퇴휴(서울 법장사 주지)	**전 생**(사진작가)
성호(공주 사암련 회장)	
능행(청주 정토마을 원장)	
성인(부천 남부경찰서 경승실장)	
김정도(부산불교거사림회 회장)	
이수덕(불교TV 사장)	
문명대(동국대 교수)	
박광서(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이제는 복지 불사

㊤ 교구 본사 앞장선다
㊥ 지역복지 성공사례
㊦ '1교구 1법인' 만들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눈높이 포교'

●속초 신흥사

강원 불교복지 요람

85년 창립된 신흥사 장학회의 장학사업을 계기로 복지불사에 나선 신흥사는 94년 속초종합사회복지관과 95년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 97년 서울 본동종합사회복지관(봉정암 위탁운영) 등을 위탁받아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96년 10월에 사회복지법인 신흥사복지원을 정식으로 인가받아 지속적인 복지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흥사복지원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전주 스포피아, 반야노인요양원, 반야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 등 모두 8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강원 복지의 요람으로 자리잡았다.

●양산 통도사

본사 복지사업 원조

양산 통도사는 91년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을 설립, 조계종 교구본사에서는 가장 먼저 지역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어 선점한 것이 주효했다. 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과 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창원 경상남도학생기숙사, 부산 및 마산 연꽃어린이집, 서울 장미어린이집, 통도사 어린이집 등 7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교구본사 복지불사의 원조가 된 것도 오랜 복지불사의 노하우 덕분이다.

●서울 삼천사

노인 복지 우수 사찰

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 불교계는 물론 국내 노인복지 분야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 삼천사는 97년 인덕노인복지회관을 설립, 저소득 계층의 치매 노인을 위한 첨단시설을 갖추는 등 8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노인교육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냈다. 99년에는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해 임상심리치료센터,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은평 장례서비스센터 등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 교계 내 · 외에서 노인복지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는 삼천사 인덕노인복지회관 전경.

인덕원은 실직자 쉼터인 '희망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99년 11월 양 한방 의료진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인 '호암마을'을 개원했다. 이밖에도 인덕 · 수색 · 개나리 · 불광어린이집과 응암청소년독서실 등 아동 · 청소년 복지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부산 내원정사

아동 · 청소년에 관심

86년 당시 최대규모의 내원정사 유치원 개원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든 내원정사는 96년 함지골청소년수련원 개원 및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97년 내원어린이집 개원, 98년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결성 등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내원정사 유치원에서 무려 5,000여명의 새싹불자를 배출했으며, 함지골청소년스런원은 개원이래 전국에서 손꼽히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자리잡았다.

●광주 향림사

불우아동 돕기 '심혈'

광주 향림사는 불우아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복지불사의 터전을 닦았다. 그동안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불우아동들을 사찰에서 보호 양육하여 배출한 수가 500여명에 달한다. 광주 우산종합사회복지관, 향림유치원, 향림어린이집, 천운어린이집,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 향림사는 광주불교대학과 광주불교대학원을 함께 운영, 지역 사회복지는 물론 불교교육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천 석왕사

사회체육시설 운영

부천 석왕사는 덕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99년부터 대규모 스포츠센터인 부천 스포피아의 위탁운영을 통해 사회체육시설 관리의 노하우를 축적, 6월 19일 경기 부천시로부터 부천송내체육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자체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과 생활협동조합, 장례식장, 룸비니특수아동교실 등을 운영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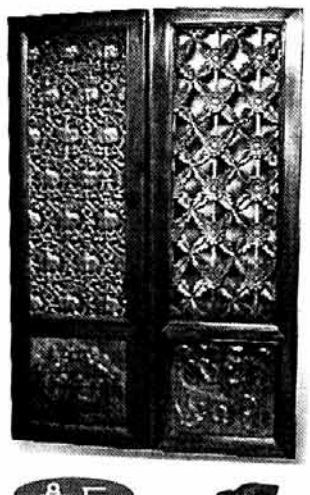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 **성불조각원**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인 성불 조각원은
모든 작품들을 옛 전통 기법으로
재연해 만듭니다.
또한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모든 불사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심으로 일구어진
불자기업 입니다.

※ 모든 불사현장에 쓰여진
모든 작품들은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 문 의
033)263-1102
H·P 017)379-0590

• • • • • •
* 영업사원모집 *

사찰문

용두


목불상

나한


사천왕




최고의작품만을 최저의가격으로 공급하는 불자기업 성불조각원

일주문



대륜스님 탄신 119돌 법회

혜초 태고종 총무원장은 5일 오전 10시 사간동 법륜사에서 태고종 창종주 대륜스님의 탄신 119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워크숍

법정 맑고향기롭게 회주는 6월 23~24일 길상사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2001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방 위령재서 법문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6월 24일 중부전선 호국 금강사에서 6 25 51주년 위령대재 천도법회에서 법문했다.



봉선사 신도회 간부 교육

일면 봉선사 주지는 6월 23일 봉선사 산하 말사 신도회 간부 50명을 대상으로 사찰 신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 현충원서 영산대법회

현광 통도사 대전포교원 불광사 주지는 6월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호국영령영산대법회를 봉행했다



문화부 장관 표창 받아

효심 울산 아축심인당 주교는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6월 16일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의 표창장을 받았다.

제16회 불이상 수상자

연구 안양규 · 실천 박광서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제16회 불이상 수상자로 안양규(사진 위) 씨와 박광서(사진 아래) 교수를 선정했다.

연구분야 수상자인 안양규 씨(동국대 강사)는 초기 불교학의 연구에 매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실천분야 수상자인 박광서교수(서강대 물리학)는 재가신행단체인 우리는 선우 이사장직 등을 수행해오며 재가신행의 모범과 나아갈 바를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5일 오후 3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다.(02)3411-6167

"미국 가서도 한국불교 포교"

13년만에 한국 떠나는 테데스코 교수



"미국에서도 한국불교를 선양할 수 있는 일에 열의를 다할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한국에서 불교학 교류, 종교간 대화, 환경, 여성, 인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프랭크 테데스코(JTS 상임이사) 박사. 그는 6월 28일 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불교에 대한 애정을 재차 확인했다.

테데스코 박사는 "미국 플로리다에 계시는 노모의 병환이 악화돼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었고, 마침 로린스 대학에서 동양철학 강좌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미국행을 결심했다"며 "미국에 적을 두겠지만 한국을 자주 왕래하며 한국불교의 해외 창구로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데스코 박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콜롬비아출판사로부터 '한국불교 현장사' 라는 논문을 의뢰받은 까닭에 한국을 자주 왕래하며 자료 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그는 "JTS 상임이사로 있으며 진행해 온 국제 교류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아, 장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한국 불교계의 일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IARF(세계종교자유연맹) 플로리다 지회장으로 추천돼, 종교자유와 화해를 위한 국제 규모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어서 다종교 국가인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

테데스코 박사는 "한국불교는 국제 교류에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한다"며 "외국인 불자를 손님이 아닌, 세계 속에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도반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초발심 자세로 대민봉사"

전남지방경찰청 경불회 천승범 초대회장



"초발심의 자세로 다른 회원들과 함께 경불회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6월 16일 창립된 전남지방경찰청 경불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천승범 총경.

"불교에 깊은 지식이 없다"는 천 회장은 "나보다 불교를 더 잘 알고 있는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경불회를 발빠른 신행단체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천 회장은 12개 관할 경찰서 경불회 임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꾸릴 계획이다. 또한 천 회장은 경불회의 재적 사찰을 정하고 지도법사를 영입하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천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대민봉사할 수 있는 불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소식지 펴내 불심 증장"

부산 울산 경남 언론인회 강호일 2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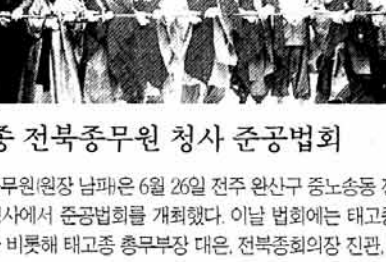


"불교 언론인의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소식지 발간과 각 회원사간의 유대강화 및 활성화를 이루어 명불상부한 불교언론인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6월 23일 열린 총회에서 부산 · 울산 · 경남 불교언론인회의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강호일 57 · 부산일보 수석논설위원) 회장.

"너무 부족한 사람에게 회장자리를 맡겨 부담이 크다"는 강 회장은 "회원의 소식과 불교언론인회의 활동사항 등을 담은 소식지로 언론인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임원 확충 및 조직정비, 연합 법회 등도 구상하고 있다.

"회원들이 신심을 다져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내 일의 전부"라는 강 회장은 "회원사와의 활발한 교류와 법회, 성지순례 등 실질적인 활동으로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대만 어린이 암 지원재단 동국대서 '내게는 … ' 출판회

대만의 어린이 암 환자 지원재단인 '주대관 문교기금회'가 한국을 방문해 6월 25일 동국대에서 주대관 군의 유작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다〉 출판 기념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기금회는 1997년 소아골수암으로 10살의 어린 나이에 숨진 주대관 군의 삶을 기리고, 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단체다. 주대관 군은 용기를 잃지 않고 병과 싸워 나가는 모습을 통해 수많은 대만인들을 감동시켰다. 기금회 창립자인 주대관 군의 아버지 주진화 씨는 "대관이의 몸은 없지만 정신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아도모례원 신라초전기념관 상량

구미 선산 아도모례원(조실 겸 원장 도문)은 신라초전기념관 상량식 법회를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0일 봉행했다. 이날 김진영 장수문화원장의 축사와 도문 스님의 법문에 이어 한두레마당 예술단 박정철 단장이 대법고(인간문화재 김종문 장인 제작)를 신라불교초전기념관에 기증했다.



대한전통불교硏 법인추진 기원법회

대한전통불교연구원 법인화 추진 기념법회가 6월 24일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제 2대 이사장에 혜거스님이 추대됐다. 법회에는 봉선사 회주 월운스님, 태연(일본 보현사 회주)스님, 서돈각 진흥원 이사장, 김영태 동국대 교수, 최병헌 서울대 교수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했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법일 스님 초대전

통도사부산포교원(주지 심산)은 20~24일 국제신문 4층 전시실에서 개원 8주년 기념 사진 초대전을 열었다. 심산스님을 비롯해 최익두 부산시청공무원불자회 회장 김창섭, 대광불교대학 회장 등이 참석한 기념행사로 시작된 초대전에는 석불을 주제로 한 법일스님의 작품사진 38점이 전시됐다.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정호)는 6월 23~24일 삼성동 봉은사에서 제 2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 스님을 비롯해 전국 어린이법회 교사 3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싱어롱 특강, 여름나라 게임 특강, 신바람 레크댄스, 분임토의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청사 준공법회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남파)은 6월 26일 전주 완산구 중노송동 전북종무원 신축청사에서 준공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승정 법천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부장 대은, 전북종회의장 진관, 2종무국장 성오, 포교국장 송월, 향산(보문사 주지) 스님과 한광수 전북불교대 부학장 등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석했다.



부루나 양로원 개원법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인천지회(지회장 선일)는 24일 오후 1시 부루나 양로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노인의 수행과 임종을 돕고 무연고 노인을 보호할 부루나 양로원 개원식에는 인천조계종사암연합회장 현성스님, 조한천 새천년민주당 의원, 박천양 인천 서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부루나 양로원은 인천 가좌동에 소재해 있으며 3백여 평 규모의 3층 건물. (032)577-5108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5과목 강의),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일운스님(무형문화재 범패전수자)
■ 초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불교학 통신 00명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 등록하고 무늬없는 승복도 동시에 생산합니다.

◈ 춘추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안합니다.
◈ 하 복 : 모시처럼 시원하며 구김이 없고 다림질이 필요치 않음
◈ 장 삼 : 가벼워서 입기가 아주 편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 가 방 : 완전 방수처리 되며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분	판매가
춘추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 · 여	150,000
	두루막	남 · 여	130,000
하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 · 여	150,000
	두루막	남 · 여	130,000
장 삼		조계종	200,000
		태고종	200,000
손가방		大	28,000
		小	23,000
바 랑			30,000

※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생산함
※ 맞춤 전문으로 생산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1+1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3동 139-1 봉용B/D 3F 302호
전화 : 053)764-4114 011-9850~4400

직장불자회 "경전삼매드니 정법 보여요"

임업硏 · 대우KAI 등 교리 배우며 모임 활성화

동료 불자들과 경전을 읽으며 불교를 알고자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불자회의 활성화도 꾀하는 직장불자회들이 화제다. 이들 불자회는 임업연구원 불교연구회, 한전 본사 반야회, 대우종합기계 KAI 불교법우회, 과천종합청사 정불회 등.

임업불교연구원 불교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창립과 동시에 이태수 부회장의 지도로 경전을 읽고 있다. 〈천수경〉과 〈금강경〉은 이미 끝냈고, 현재 〈성불요전〉을 매주 강독하고 있다.

연구원으로서 현장 답사나 연구 보고 등과 같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전 강독은 창립 이후 지금껏 매주 목요일 6시 30분 10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불교연구회가 경전 읽기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직장인 불자로서의 올바른 신행 방향을 찾겠다는 회원들 스스로의 원력이 모였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들이 자주 만나면 자연히 서로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고, 이는 불교연구회의 활성화로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것.

불교연구회의 경전 읽기를 이끌고 있는 이태수 부회장은 "수행과 실천의 힘은 불교를 바르게 알 때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경전 강독이 회원들의 신행과 모임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8개 회사로 분할돼 활동 자체가 어려웠던 한전 본사 반야회도 경전 공부를 통해 회원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제 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 스님이나 법사를 초청해 〈부모은중경〉, 〈초발심자경문〉 등을 배웠던 반야회지만 이번에는 이순형 구도부장의 지도로 6월 28일부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6시 30분에 〈금강경〉을 읽고 있다. 강독을 진행하는 이 씨는 "이번 강독은 〈금강경〉에서 재미있고 기초 교리를 담고 있는 부분을 발췌해 우선적으로 공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과천종합청사 정불회는 지난 1년간의 기초교리 공부를 끝내고 평생불자회 김정호 회장으로부터 매주 금요일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다. "배워야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야 발전할 수 있다"는 옛 선사의 말처럼 경전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일터 속의 불교'를 정립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금강경>을 강독하고 있는 반야회 회원들.

대우종합기계 KAI불교법우회도 매월 넷째주 〈아함경〉을 강독하고 있다. 강의를 듣고 있는 10여 명의 회원들은 모두 기본교리강좌를 이수한 법우들. 교리부장에게 불교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배운 지금은 경전 공부를 통해 신심을 다지는 독실한 불자로 거듭나고 있다.

대우종합기계 KAI불교법우회 정진한 회장은 "경전공부를 통해 타력에서 자력으로 신행 패턴이 변했고 나름대로 볼자라는 자부심도 높아져 불자회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세무사불자회 명찰 순례

한국세무사불자회는 6월 16일 '윤4월 맞이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불자 세무사 37명이 동참한 이번 순례법회는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대구의 은해사, 거조암, 선본사, 불굴사, 김천의 직지사 등의 답사로 진행됐다.

교사불자련 회암사 법회

한국교사불자연합회 서경지역 모임은 6월 24일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를 찾아 6월 가족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및 가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회암사지 유적답사와 인곡스님의 법문으로 진행됐다. 인곡스님은 법문에서 "불교적 인성을 가진 청소년을 길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정인불자 간부수련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는 6월 30일부터 1일까지 부산 범어사에서 간부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대회에는 전국 39개 지회 간부 300여 명이 참석해, 신행사례 발표와 특강, 관음정근, 발우공양, 참선, 사찰순례 등을 통해 불자 교정인의 원력을 다졌다.

MBC 불교硏 정기법회

MBC 불교연구회는 6월 21일 오전 12시 30분 여의도 포교원에서 20여 회원이 모인 가운데 6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여의도 포교원 주지 현진스님은 '불자의 도리'를 주제로 법문했다.

네번째 NGO 명상수련

12~14일 서산 부석사

참여불교 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NGO 여름명상수련회'를 오는 12~14일 서산 부석사에서 개최한다.

'산사의 고요, 깨어나는 영성, 행복한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주경스님(포교원 포교국장)의 '수행이야기'와 '참선지도', 초퀠스님(부산 광성사)의 '티베트의 지혜와 명상', 오원명 원장(명상아카데미)의 '내면으로의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재가연대는 6월 26일 법련사 시민선방에서 '삶에서 깨어나기'라는 주제로 동양학에 정통한 한국학연구소 박현 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NGO 명상학교'의 세번째 강좌를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진제스님 계사로 130명 수계

유불동 전국모임

"부처님을 일심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6월 24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정사 원통보전에서 수계를 청하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 130여 회원들이 하계합동수계법회(사진)를 봉행하기 위해 이 곳을 찾은 것이다.

이번 법회는 23일 저녁 10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인해 다음날 새벽 1시 입재식과 철야정진으로 시작됐다. 24일 수계식 계사로 참석한 진제 스님(해운정사 조실)은 일상에서의 5계 실천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화두를 공부하며 계정혜를 닦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하며 참불자로 거듭나길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수계식에서 하얀 상의를 입은 130여 불자들은 참회진언과 연비를 통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오기석 대표시샵은 "부처님나라의 법우님들의 선한 마음과 서로 도우는 마음이 잘 나타나 큰 어려움없이 무사히 진행된 행사였다"며 "5계를 지키기로 약속드리고 받은 계첩과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부처님 말씀은 새싹 자양분"

교사모임 청림회 창립 10돌

10년째 경전공부…보시행 활발



불심깊은 교사들의 모임인 청림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사진)가 6월 24일 부산 청룡동 경동아파트 상가내 여여선당에서 열렸다.

"교사들의 불심이 곧 새싹 불자를 키우는 자양분이니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야지요." 이날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윤금자(69) 회장의 말처럼 청림회는 부산의 지역별 교사불자회 중 경전 공부를 통한 신심 다지기에서 단연 돋보이는 모임이다.

91년 여교사 11명이 모여 창립된 청림회는 이제 80여 회원으로 늘어났고 지금까지 무비스님을 모시고 해온 월 1회 경전공부를 한번도 거른적이 없다.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능엄경〉 〈증도가〉 〈신심명〉 〈화엄경〉 〈보현행원품〉 등의 경전을 배우며 지혜의 푸른 숲을 가꾸어 온 것. 현재는 육조단경 공부에 흠뻑 빠져있다. 창립 10주년 행사장에는 그간 공부한 경전과 테이프, 그리고 회원들이 빈틈없이 필기한 경전책자 등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천미희 기자

세월가도 꿋꿋한 초발심 '활동'

국방과학硏 성불회 10돌



서원을 담은 불자들의 노래가 고즈넉한 산사에 퍼졌다.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회장 김은표)의 창립 10주년 기념 산사음악회(사진)가 6월 25일 대전 태전사(주지 도일)에서 열린 것.

대덕연구단지 불자 자녀들로 구성된 '불교어린이합창단'의 찬불가로 서막을 연 산사음악회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인 법우 스님의 춤과 불을 포교로 널리 알려진 도신 스님의 노래 공연 등이 펼쳐져 산사를 찾은 500여 불자들의 신심을 다잡았다.

지난 91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불자들에 의해 창립된 성불회는 매주 목요일 복지관 세미나실에서 법회를 여는가 하면, 주말을 이용한 철야정진과 사찰순례 자원봉사를 하며 폭넓은 신행활동을 펴 왔다. 또한 교리 공부에도 역점을 두고 〈금강경〉 〈원각경〉 〈법화경〉을 틈틈이 읽어 왔다.

이로 인해 성불회는 1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들이 창립 당시 초발심의 자세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회원수도 8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김은표 회장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게시판

알림

▲청소년 영상창작캠프=양정청소년수련관은 27~29일 경남 합천 청소년수련관에서 2001 청소년 영상창작캠프를 개최한다. 참가 방법은 www.power1318.com을 참조. (051)868-0750

강좌

▲법사과정=해동불교불학원은 불교학과 법사과정을 마련했다. 1년간 진행될 이번 과정에는 부처님 생애, 소승불교의 이상과 실천, 불교와 예술, 불교와 세계 종교 등 12개 과목이 개설됐다. 강의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5~7시. (02)741-0495

모집

▲조리 봉사=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독거노인 밑반찬을 조리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조리 봉사는 주 1회 오후 2~4시 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031)455-0551

▲참선 염불 체험 회원=동산반야회는 참선과 염불 체험 회원을 모집한다. 2일부터 시작될 이번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2~4시에 진행된다. (02)732-1206

▲창작 지도=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 내용은 미술이나 공예품 제작 및 감상법 지도로, 수시 모집. (02)2203-3677

▲장애인 취업준비 훈련생=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취업준비 훈련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교육비는 무료. (02)989-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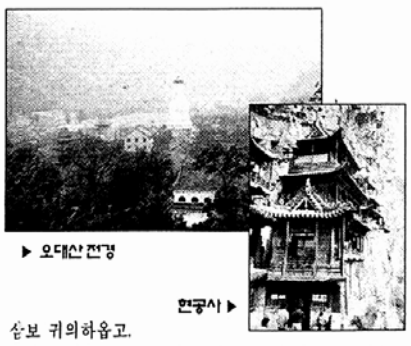
▲한식조리 수강=자양사회복지관은 한식조리 자격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월,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오후 5시 두 차례 3개월간 진행된다. (02)458-1664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주)성산항공여행사 개업10주년기념

중국 오대산. 화엄사. 운강석굴 성지순례 5일

■순례경비 : 69만원
■순례 기간 : 2001. 7월 30일 ~ 2001. 8월 3일(5일간)
■신청기간 : 2001. 7월 15일까지



▶ 오대산 전경

현공사 ▶

문수보살께서 현신 하신 청량산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화엄사,현공사까지 직항편으로 알차게 모십니다.



운강석굴 ▲

■성지 순례일정

1일 (7/30)	인천 / 태원(1박)
2일 (7/31)	태원 / 진사, 쌍탑사 - 오대산(1박) / 불광사, 남선사
3일 (8/1)	현공사, 대동(1박) / 운강석굴, 상,하 회엄사, 구룡벽
4일 (8/2)	오대산(1박), 남산사, 현통사, 탑원사, 라후사, 보살정(대문수사), 남대
5일 (8/3)	오대산 / 용천사, 금각사 태원 / 산서성박물관 - 인천(21:00) - 전 일정 호텔투숙 -

포함사항 : 항공, 호텔, 입장료, 식사, 중국비자비, 중국공항세, 보험료

※ 불 포 함 : 인천 공항세
· 구 비 서 류 : 여권/자택주소/전화번호
· 여권없는분 : 여권용사진 2매, 주민등록증, 주민등본 1매, 여권인지대 45,000

※협 찬 : 중국 산서성여유국
※후 원 : 오대산 상원사,무주안국사,해남 대둔사 영추사,본원정사,심곡사,관음정사,영산법화사

문의 : (주)성산항공여행사
대표 : 02) 720-0111
담당 : 이규술 팀장 011-274-0355
김승현 과장 011-440-2580
E-mail : tour Love@kornet.net

▶ 오대산 전경 현공사 ▶

삼보 귀의하옵고,
10여 년 전 처음 인도 땅을 밟았을 때 감동이 아직도 가슴 벅차게 남아있습니다.
첫 성지순례를 모셨던 그 정신으로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덕 높으신 스님과 신심 있는 불자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성산항공여행사 대표 이규술 합장 -

"티베트대학의 학생불자들이 모시면 가장 싸고 편하게 다녀오십니다"

티베트성지 순례

라싸, 시가체, 장체, 티베트불교 15대성지

현지 불자 가이드 특선 국립 티벳 불화 전시장 관람, 불경 석각공장 참관, 티벳 사찰 음식, 티벳 사찰 찻집 방문, 티벳 민간 소사찰 순례, 고산증세를 위한 휴대 산소통 모두 지급





참가비 : 스님 165만원, 일반신도 175만원
• 출국세, 비자비 외 일체 경비 포함(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출발일 : 7월 25일 수요일(7박 8일)

문의 : 02-722-8121

티베트 15대 불교 유적+네팔 불교 4대 유적
• 출발일 : 8월 11일 토요일(10박 11일)
• 참가비 : 195만원
고산병 예방을 위해 전원 4인승 산악용 지프 탑승

주최: 세계일류여행사, 티베트대학 한국학생불자회

경찰 박봉으로 이웃돕기 20여년

신행현장

'자비의 포돌이' 이승언 경사



◇광주 방림동 성노원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이승언 경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심정은,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잘 헤아리는 모양이다.

광주 동부경찰서 지산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언(48, 전남경찰청 경찰불교회 회원) 경사의 자비행은 이런 생각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말단 경찰 월급으로 20여 년째 남몰래 불우한 이웃을 도와 온 그의 훈훈한 마음도리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 경사가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경찰에 투신한지 1년여 만인 1981년. 당시 전남경찰청 제 7기동대에 근무하던 이 경사는 귀가 도중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나 할머니(당시 68세)를 발견하면서부터다.

나 할머니는 허름한 셋방에 홀로 살며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이 경사는 매달 쌀 20kg과 연탄 30장을 사드리며 할머니의 살림을 챙기는 '자식 노릇'을 했다. 당시 이 경사의 어머니(87년 작고)는 암투병 중이었지만, 그의 자비행을 이해했다.

"어머니는 '경찰이 됐으니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신심 깊은 불자이셨죠.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하셨어요."

이 경사의 자비행은 모친이 돌아가신 후 더욱 빛을 발했다. "유훈을 받든다는 생각에 마음도 편했고 또 신명도 났습니다"고 말하는 그는 18년간 돕던 나 할머니가 숨을 거두자 손수 장례를 치르고 자신의 선산에 묻은 것은 물론, 신문배달로 생계를 꾸리던 소년가장 김모(당시 14세) 군에게 6년여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독거노인에 자식노릇
고아원·양로원 후원
"이젠 아내도 봉사도반"

도와 어엿한 사회 일군으로 길러냈다. 1993년부터는 비인가 복지시설인 광주시 동구 학동 천혜경로원과 화순군 춘양면 소향원에 쌀과 과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광주 남구 방림동 전남 성노원에도 수시로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다.

"마음이 넉넉한 볼자"라고 이 경사를 평한 광주 해룡사 주지 해우 스님은 "이제 성노원에 살고 있는 30~40여 명의 노인들의 그의 발걸음을 기다릴 정도로 친자식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우 스님은 이 경사와 함께 성노원을 방문하는 등 그의 선행을 물심양면 돕고 있다.

이 경사는 성노원에 매월 두 차례 정도 방문하고 있는데, 5~6만원 상당의 과일과 라면을 사들고 간다. 또 가을에는 아내 김민숙 씨(43세)와 함께 방문해 김치를 담궈줄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물론 그의 20여 년 선행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소외된 이웃에게는 자주 찾고 담소를 나누는 게 물질적인 보시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은 사라졌지만, '박봉에 무슨 봉사활동이냐'는 주위의 편견을 깨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결혼하고 3~4년이 가장 어려웠다. 그러나 그의 처는 2년전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요량으로 김치를 담그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됐다. 그에게는 천군만마나 다름이 없다. 그에게 지원병은 또 있다. 바로 경찰 동료와 선후배들이다.

"가까운 사람들과 자비행을 함께 하는 게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한 이 경사는 "지난 16일 발족한 경찰불교회 회원들과 삶의 현장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10년 후 퇴직하면 불교노인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이승언 경사. 그의 자비행에 무등골의 신심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해 본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혼자인 삶은 없다

우리는 함께 산다.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자연과 더불어 산다. 때로는 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홀로란 없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 독살이를 한다고 해도 그는 사회 속에 있는 것이며 자연과 함께 있는 것이다

삶이란 곧 함께 짓고 함께 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고로 어느 누구에게나 다만 한 순간이라도, 산다고 하는 것은 곧 공생이요, 동조 · 호응 · 참여 · 분담 · 협조 · 협력 · 후원 … 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점을 잊고 산다. 때로는 아주 까맣게 잊고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투쟁하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이 될 때가 많다. 자기를 아낌이 지나친 탓이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그만큼 상대를 아껴줘야 나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대접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야 내게 돌아오는 게 있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사섭법을 실천하라고 하셨다. 어디 수행자 뿐이랴. 우리 모두는 '보시 · 애어 · 이행 · 동사'를 곧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애어(愛語).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열린 마음에는 이해와 동조가 있다.

이행(利行).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저 혐오스러운 정치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고로 상대의 처지를 살피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행과 이타행이 나올 것이다.

동사(同事). 마음과 마음이 포개져 동심원(同心圓)이 되어 행동을 같이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올력이 아니겠는가. 높직이 앉아서 상대더러 올라오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단하로 나려가 상대의 손을 잡을 때, 더 많은 이룸과 더 큰 나눔이 있게 된다.

보시(布施). 애어와 이행과 동사가 있는 곳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다. 어찌 재물을 주고 진리를 말해 주는 것만 보시라고 하랴. 함께 하고 함께 짓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텃밭 상추 놀라운 생명력 진정 위대한 자연의 힘"



정관스님
대구 조계사 주지
선재불교대학장

오늘 아침 텃밭에 나갔는데 작은 새순들이 보여준 놀라운 생명력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잘 것 없는 먹거리에 지나지 않지만 생명이란 얼마나 위대한 자연의 힘이며 신비인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동안 본의든 아니든, 직 · 간접적으로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살생놀음을 해 왔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나쁜 습성 때문에, 살아 있는 다른 생명을 죽여서 만든 먹거리가 몸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넘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놀이 삼아 즐기는 신종 게임이 나와 요즈음 어린아이들에게 유행입니다.

살생으로 무디어진 감성을 이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

재미삼아 살생놀이
생명경시 풍조 조장

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욱 오만하고 방자한 모습으로 타락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물고기를 방생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무기를 들고 살생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내 이웃에게 또는 가족과 친구에게 건네는 눈짓 · 손짓 · 발짓 하나, 아니 말 한 마디까지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다면 받는 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살생입니다.

〈잡아함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대로 행하지도 않으며 서로 죽이고 해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며 끝도 없는 죄악을 짓느니라."

살생에 관한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를 하나 낳고는 그만 그 부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이 동네 저 동네 동냥젖을 얻어 먹이며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복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기운 없이 자기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옆 풀숲에서 황금색 거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나는 죽은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어린것을 데리고 가난하게 사는 모습이 하도 딱해서 염라대왕에게 부탁해 이렇게 황금거위로 다시 환생했어요. 내일부터 매일 나의 황금색 깃털을 하나씩 뽑아서 시장에 내다 팔면 당신은 곧 부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청처럼 거위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 거위를 안고 집으로 와서는 매일 황금깃털을 하나씩 뽑아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부자가 된 이 농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거위의 황금빛 깃털을 몽땅 뽑아버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눈이 부시던 황금빛 깃털이 모두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위는 털이 몽땅 뽑혀 나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거위의 깃털을 하나하나 심을 수도 없고, 죽은 거위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얀색으로 변한 깃털을 누가 사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매일매일 도움을 주는 황금거위는 누구일까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황금거위를 죽여 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이유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입니다.

신행 캘린더

7월 4일 (수)

■새만금생명학회 창립=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4일 11시 명동성당에서 종교계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생명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018)730-7775

7월 6일 (금)

■현오스님 명상수련회=대지전행연구회는 8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피라밋 명상원에서 명상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론과 실기 교육으로 진행될 이번 수련회에는 현오스님과 차차석, 임승택박사 등이 지도한다. (02)419-1253

■대원불교대 하계수련회=대원불교대학은 8일까지 2001년도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서울 후암동 본관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에는 혜거스님의 특강과 최봉수, 장휘옥, 김사업 박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02)773-9171

7월 7일 (토)

■선운사 도솔암 성지순례=금강정진회는 8일까지 지장도량 고창 선운사 도솔암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051)632-0383

■사찰생태문화기행=맑고향기롭게는 8일까지 화순 운주사를 방문해 사찰생태문화기행을 실시한다. (02)672-5945

■금융불자련 수련대회=금융단불자연합회는 8일까지 상계동 도안사에서 회원 및 가족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련대회를 갖는다. (011)9732-8972

■천태어린이 지도연수=천태종 구인사 어린이지도법사회는 8일까지 구인사 인광당 4, 5층에서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한 천태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043)420-7267

7월 8일 (일)

■경주시청불자회 순례법회=경주시청 공무원불자회는 경기도 청계사를 방문해 육법공양과 법문을 듣는 순례법회를 실시한다. (011)9029-3983

7월 9일 (월)

■이동원교수 초청=강연불교상담개발원은 오후 2시 강남 봉은사 법왕루에서 이화여대 이동원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 교수는 '한국 가족의 현주소'를 주제로 강연한다. (02)737-8803

7월 10일 (화)

■아함경 특강=한국불교연구원은 오후 7시 서울 개포동 서울구도회 법당에서 동국대 권기종 교수의 '아함경 이야기' 특강을 실시한다. (023411-6167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1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9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정규반 (100명) · 주간반 (50명) · 통신반 (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우리춤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6월15일 ~ 2001년 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4시(우리춤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 학 일 시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불교 미술학교 · 우리 춤학과 개설

◆ 불교미술 개설 취지

불교미술에 대한 깊은이해와 함께 부처님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를 직접 그려봄으로써 불보살님에 대한 신심과 예경을 표현하고, 1600년의 한국불교미술에 대한 종합적인 심미안을 체득, 전법과 포교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교과목

이론편	인도불교미술, 중국불교미술, 한국불교미술, 동남아불교미술, 불교사찰, 탑, 불상, 회화, 돈황미술, 고려미술, 조선미술, 티벳미술, 현대불교미술, 법화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실기편	민화, 단청, 사천왕, 8부중, 팔상성도, 보살상, 부처상, 영산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만다라

◆ 모집요강

· 입학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
· 지원자격 : 불교미술을 통하여 불교신행하고자 하는자
· 모집인원 : 정규반 (30명)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 불교춤학과 개설 취지

우리의 몸 속에 면면히 흐르는 민족의 춤가락을 신명나게 배워 전통의 맥을 잇고, 불교의 사상과 몸짓이 만나 아미타부처님께 춤 공양과 깨달음의 길로 다가가는 과정.

◆ 지도교수 및 내용

교 과 목	❶ 우리춤 기본(몸놀림의 기본 토대 교육) ❷ 승무 기본 (염불가락, 타령가락, 굿거리 가락) ❸ 작법 기본(춤의 기본 사위와 바라놀림) ❹ 북과 장단기본(북놀림과 우리 장단의 기본)
지도교수	이애주 (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제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 모집요강

· 입학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 5시
· 모집인원 : 정규반 (30명)
· 강의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문의전화 : 02) 732-1206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박태원 교수의 42

불교로 보는 인생

종교, 인간에 어떤 의미

혼란과 불안 침잠시켜 존재 해방-성숙의 통로

서양 철학자 한 분이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서양의 역사를 통해 종교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수를 계산해 보니 그 유골 무더기가 지구를 몇 바퀴씩이나 돌고 또 돌 정도라던가. '종교' 하면 곧 떠올리게 되는 '사랑' '평화' '성스러움' 등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지는 역사의 증언이다. 종교는 인간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종교를 화제 삼을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종교라 할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유일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종교의 정의(定義)로 삼았던 서구 중심의 편향적 독선은 더 이상 설득력도 없고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아직도 한국 지성계나 저널리즘에서 이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적 종교관이 의외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예속성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던 간에, 일상의 통념 속에서 종교로 간주되는 현상들은 분명 존재한다. 불안한 삶, 저급한 인생에 안정된 질서와 희망, 수준 높은 삶의 체험과 성숙을 제공하는 것이 종교의 긍정적 면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리라. 그러나 인간의 종교적 행적, 그 역사적 실제와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얼굴도 보여주기도 하여 우리를 곤혹케 한다.

역사와 현실은 종교가 존재 해방과 성숙의 길이 아니라 속박과 경직, 기만의 덫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을 결코 드물지 않게 보여준다. 종교가 시설한 언어와 그에 대한 신념들은 인간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소중하게 부각된 이성(理性)과 사랑의 문화적 능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다. 종교 언어와 신념이 인간 그 속의 벽이 되면, 이성의 합리적 개방성은 독선과 독단의 반합리적 옹고집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종교 제도와 관념을 성벽으로 받아들여 그 안에 갇혀 버리면, 생명끼리 보듬으며 소통시키던 사랑의 감수성은 일순간 배타적 독기로 굳어져 버린다. 역사를 통해, 그리고 발 밑의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종교를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부처님이 일러주신 삶의 길을 가장 좋아한다. 개인적으로 받는 삶의 도움이 너무 크고 좋아 깜냥대로 그 길에 눈길 모으고 걷다보니 전공과 직업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아무리 그럴 듯한 수사(修辭)를 동원하며 변명해 보아도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부터 잘못되어 힘쓸수록 더욱 엉켜지는 것 같던 답답함. 그 깊은 혼란과 불안이 부처님 지혜를 만나자 마치 구겨진 종이가 물 속에서 녹는 듯 스르르 펴질 때의 시원함. 답답함이 힘들었던 만큼이나 그 시원함은 통쾌한 환희였다.

부처님이 일러주신 길은 분명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존재 해방과 성숙의 통로이다. 그 길은 걸어가면 간만큼 삶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수준을 높여주며 깊은 평안을 제공해 준다. 이성(理性)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열고 또 차원 높여주며(지혜), 사랑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방 팔방으로 틔워준다(자비). 불문(佛門)에는 들어갈수록 어설픈 독단과 부당한 독선에서 발을 뽑기가 쉬워지고, 나와 다른 생각이나 신념들에 관대해지며, 화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인간과 세상사에 얽힌 숱한 일리(一理)들과 나름대로의 진리들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며, 익숙한 것들에 달라붙지 않고 낯선 것들을 밀어내지 않을 수 있는 '걸림 없는 마음의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를 내린다. 누구나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말이다.

해인사 대불(大佛) 조성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수행인들의 거친 언행이 세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종교를 속박과 기만의 덫으로 왜곡시키는 중생들의 행적이 더 이상 은폐될 수 없는 세상이다. 혹 어처구니없는 수준의 막힌 독단과 독선이 그럴듯한 종교 언어에 기대어 기승을 부리지는 않는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는 이들이 요즘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lsan.ac.kr

아침-저녁 예불 참불자 첫걸음

참불자의 길 예불



◇새벽 3시 범주사 대웅전에서 아침 예불을 드리는 스님들의 모습이 장엄하다.

가정서도 독경·분향 등 온가족 예불 '바람직'

예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 또 예불은 반드시 사찰에서만 올려야 할까.

사찰에서 아침·저녁 하루에 두 번씩 석가모니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부처님과 여러보살님들께 귀의한다는 의미로 절을 올리며 공경의 표시를 하는 것을 예불이라고 한다.

물론 사시 불공도 넓은 의미에서는 예불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보통 예불하면 사찰에서는 조석예불을 지칭한다.

쉽게 말해 예불은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아침·저녁으로 웃어른께 문안 드리는 것처럼, 사찰에서 스님들이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을 부처님께 가장 먼저 알리는 의식이다. 실제로 사찰에서 스님들이 행자생활을 할 때 가장 엄격하게 배우는 것이 바로 조석예불을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찰에서 하루를 열고 닫을 때 예불을 엄격히 모시는 것은 예불이 부처님에 대한 예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위한 수행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불은 보통 삼보에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며 예를 드리는 '오분향례(五分香禮)'로부터 시작된다. 사찰에 따라서는 아침 예불에 오분향례 대신 청정한 마음을 차(茶)에 담아 예를 올리는 다게(茶偈)로 오분향례를 대신하기도 한다.

오분향례가 끝나면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소리내어 읽는 독경을 한다. 이어서 발원을 하는데 아침 예불시간에는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중생을 위한 자비의 하루가 되기를 서원한다'는 내용으로 발원을 한다. 또 저녁에는 '하루동안 쌓은 업을 참회하며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하다'고 서원한다.

그러나 예불은 꼭 사찰에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각 가정에서 조그마한 불단을 갖추고 아침·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예불을 해도 된다고 스님들은 조언한다.

맞벌이 부부와 같이 사찰에 나오기 힘든 상황의 불자들에게 가정예불을 강조하는 동봉 스님(홍천사 주지)은 "수행과 생활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꼭 불상을 모시지 않더라도 독경이나 분향 등을 통해 예불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향을 피운 후 가족들끼리 삼귀의, 오분향례, 반야심경 독경,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예불을 올리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타인들보다 보람있게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불자들에게 가정예불을 권한다. 또 동봉 스님은 "동남아 불교 국가들은 집을 지을 때 아예 불단을 마련하고 부처님을 모셔 조석 예불뿐만 아니라 수시로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지 부처님께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예불의식을 통해 하루의 생활을 반성하는 것이 참불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만일 불단을 갖출만한 공간이 없다면 예불의식이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 순서대로 따라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부분 스님들의 견해다.

10여년간 집에서 아침 예불을 올리고 있다는 장호숙 보살(68)은 "집이 좁아 불단을 마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5시부터 시작되는 불교방송의 '아침예불'을 들으며 매일 예불을 올리고 있다"며 "예불과 독경을 하고 나면 남들보다 하루를 더 알차게 시작하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 그날 하루의 생활이 즐겁다"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jikm@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20 허사리에 대한 답서(2)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출 것이니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나는 그대의 도호(道號)를 담연(湛然)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물의 맑음과 같이 흔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출 것이니 수고로이 애쓸 것이 없습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담연을 벗어나지 않아서 털 끝 만큼도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담연의 도장으로 모든 곳에 도장을 찍으면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어서 하나하나가 해탈이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진실하여, 쓸 때에도 담연하며 쓰지 않을 때에도 담연할 것입니다."

허사리에 대한 답서 가운데 이 부분은 특히 대혜 스님의 선에 대한 안목의 깊이가 잘 나타나 있다. 스스로의 확고하고 철저한 체험이 없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의 말을 흉내내는 것도 아니요, 생각으로 헤아려 하는 말도 아니다. 오로지 그 미묘한 세계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묘한 말이다.

"흔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출 것이니, 수고로이 애쓸 것이 없다"는 한 마디 말에 이미 체험의 모든 면이 잘 나타나 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의식(意識)을 따라가지 않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끊임없이 생멸하며 흐르는 의식을 좇아다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혀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님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를 흔들림이 없다는 말 이상으로 적절하게 말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상(相)을 취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일 뿐 움직임이 없다(不取於相如如不動)'하였다.

'텅 비고 밝다'는 것은 의식에 가로 막히는 장애가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생각, 느낌, 의지 등 소위 오온·십팔계의 의식세계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구름에 가로막히지 않는 태양처럼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따로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흔들림이 없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오온·십팔계의 의식세계에 가로막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저절로 비추어져' 드러나 어둠 속에 감추어지는 것이 없다. 이 '저절로'를 교학에서는 '무위(無爲)'라고 말하지만, 수고로이 애쓸 것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야 말로 여여부동(如如不動)한 '이것'(대혜 스님이 '담연'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면목이다. 수고로이 애를 쓰는 유위행(有爲行)은 곧 의식을 따라 머무는 것이요, 생각을 따라 상(相)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여부동할 수가 없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담연을 벗어나지 않아서 털 끝 만큼도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여부동한 '이것'이 차별 없이 평등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깨끗함과 더러움, 옳음과 그름, 선과 악, 완전함과 부족함, 범부와 성인, 정법과 외도, 말과 침묵, 고요함과 시끄러움 등의 어떤 차별도 '이것'에는 없다.

모든 차별은 의식에 따라가고 의식에 머물 때 생겨나는 것일 뿐이고, '이것'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불이법(不二法) 혹은 무이법(無二法)이라고 한다.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은 곧 모든 법이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것은 '이것'에 나타나며 털 끝 만큼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이것'이지만, '이것'은 어떤 것도 아니며 어디에도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해탈이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진실하여, 쓸 때에도 담연하며 쓰지 않을 때에도 담연하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것'이 분명하면, 아무 생각 없고 말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나 생각을 내고 말을 하는 움직이는 마음이나 모두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다. '깨어 있음과 잠자는 것이 같다(寤寐一如)'는 말도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또 '이것'은 그 어떤 마음에도 구속되거나 장애되지 않으므로, "하나하나가 해탈"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현오 스님과 함께 하는

전생 체험과 위빠사나 명상수련 안내

〈미안마 72일〉과 〈불교에서 본 마음과 최면 전생〉의 저자 현오스님이 다년간의 수행과 실습 끝에 개발한 수련 프로그램을 알립니다. 최면을 통해 자신의 전생을 돌이켜 보고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그 실상을 일깨워 각자가 처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동참하셔서 많은 이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 도 : 현오스님 / 차차석(철학박사, 불교학 전공) / 임승택(철학박사, 위빠사나 전공)
일 시 : 2001년 7월6일~8일 (2박3일)
장 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피라밋 명상원(033-732-4381)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회 비 : 10만원 (우체국: 200170-02-082157 유동근)
접수처 : 02)419-1253, 02)571-5413 (6월30일까지 선착순 접수함)

주최: 大智전생연구회

첫째날 세부일정
오후 2:00 - 집합, 인원 점검
2:00 - 일정소개 및 인사(현오스님)
3:00 - 요가
4:00 - 휴식 및 간담
4:30 - 불교 심리학①(차차석)
6:00 - 저녁식사
7:00 - 자유시간
8:00 - 위빠사나 강의(임승택)
9:00 - 최면 소개와 자기최면(현오스님)
10:00 - 취침

둘째날 세부일정
오전 5:00 - 요가 및 자비관
6:00 - 아침식사
8:00 - 위빠사나(임승택)
10:00 - 위빠사나 점검 및 간담
오후 12:00 - 점심
2:00 - 위빠싸나(임승택)
4:00 - 불교 심리학②(차차석)
6:00 - 저녁식사
7:00 - 전생 최면 실습(현오스님)
9:00 - 전생 최면 점검 및 간담
10:00 - 전생 최면 각자 실습

수련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 승용차 이용시
영동고속도로 문막 IC에서 간현유원지 방향→ 간현유원지로 들어가지 말고→ 좌측 다리를 건너 양평·안창 방면으로
■ 대중교통
기차편 : 청량리역에서 중앙선(무궁화) → 양동역 하차→ 택시(대당 7천원)
(통일호는 판대역 하차, 도보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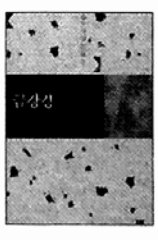


부처님처럼 니르바나님을 믿어야 바른 불교다
다석사상으로 본 새로운 금강경 풀이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온 생애에 걸쳐 진리를 추구하여 구경(究竟)의 깨달음에 이른 우리나라의 큰 사상가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 1890~1981). 다석은 불교와 기독교, 노장(老莊), 그리고 공맹(孔孟)사상 등을 두루 탐구하여 이 모든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꿰뚫는 진리를 깨달았다. 다석은 자신의 이름보다는 함석헌의 스승으로 더 알려져 있다.

벼락치듯 깨닫는 지혜의 경전
얼나(法身)를 찾아 '참다운 자아'에 이를 때 절대세계(니르바나님)와 하나되어 생사를 넘어서는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다석사상을 바탕으로 새롭고 알기 쉽게 풀이한 『금강경』.



박영호 지음/ 296면/ 13,000원 /양장

두레의 多夕 사상전집
1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 (상)
2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 (하)
3 다석 류영모가 본 예수와 기독교
4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5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근간)
6 다석사상으로 본 유교 (근간)
7 다석 류영모 강의록 (근간)

도서출판 두레 전화 : (02)702-2119 팩스 : (02)715-9420

이렇게 들었다

눈덩이 가계빚

"빚의 결박 무겁고 괴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과 손해됨을 잘 따져서 해야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잘 알아 시행하기 때문에 바다에 강물이 끊임없이 모여들 듯 재물은 나날이 늘어나리라. 재물을 모으되 법답게 하고 법답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되 법도를 잃지 않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 <별역잡아함경>

어떤 사람이 백만장자에게 물었다. "부자되는 비결 3가지만 가르쳐주세요." 그러자 백만장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 검소하라! 둘째도 셋째도 검소하라!"

지난 1 · 4분기동안 우리나라 가계대출 총액이 1년 전보다 23%나 늘어난 276조원에 이르고, 그 결과 가구마다 1,93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6월 23일 밝혔다. 이 액수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이나 판매 신용 또는 신용카드 대출 잔액의 총계를 나타내는 것일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채 부담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연도별 총액 규모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나가다면 개인 파산이나 신용 불량자가 또다시 증가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의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이 요구되는 때다.

가정 빚이 느는 원인은 물론 1차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의 재무 관리가 부실한데 있다. 요즘은 10대들도 카드 빚을 마구 낸다. 그러나 보다 큰 원인은 은행들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대출을 기피하고 개인 고객만 확보하려는데 있다. 전체 대출 중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가정경제의 파산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이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다른 이에게 재물을 빌리고 재물을 빌린 뒤에는 남의 구박받아 고뇌가 된다. 빚 주인은 찾아와 독촉을 하고 그 때문에 끌내는 결박되나니 그 결박 무겁고 괴롭다."는 <중아함경>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아무리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고 하지만 소득과 형편에 알맞게 돈을 쓰는 것은 가계가 지켜야 할 절도(節度)다. <선생경>의 "가난하고 궁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재물을 가벼이 여겨 사치를 즐기면 가정이 파괴되고 재앙을 부른다"는 가르침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금융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강력히 규제하고 신용정보 심사기능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은행도 가계대출 과당경쟁에서 벗어나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깨닫는 일일 것이다.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면서 재물에는 재앙 있음을 스스로 눈떠 욕심을 버려 족함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재물을 쓰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리니 욕심속에 살아가는 사람중에 최상이니라."<복음경> 김재경 기자

業사상 어긋나는 '대권 풍수'

불자 세상보기

발복 풍수적 이장 국민들의 조롱거리

"명당 찾기보다 정토를 만들라"



최원석
성신여대 강사
지리학 박사

얼마 전 국토가 타들어 가듯 목말라 온 국민이 고통에 시름겨워하고 있을 때, 참으로 어이없게도 김종필씨가 선친묘를 왕기가 서린 곳으로 이장했다고 하여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사실 선대를 좋은 자리에 모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자식으로서는 당연한 도리요 효심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행동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대권이라는 욕심에 경도되어, 더구나 요즘같이 국토의 묘지화가 비판적으로 거론되고 화장이 바람직한 장묘 형태로 자리잡혀 나가고 있는 이때에 공인으로서의 김씨의 행태는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빗나간 모습이다. 그의 이러한 행태는 올바른 풍수사상과 풍수적 실천에 대한 무지의 발로일 뿐만 아니라 풍수에 먹칠을 하는 모욕에 다름 아니다.

풍수에서는 왕기가 서려 있는 좋은 터에 묘를 쓰면 과연 목적을 이룬다고 말하는가? 풍수의 감응은 그림자 지듯, 메아리 치듯 따른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곧 땅을 얻는 사람이 생전에 얼마나 덕을 쌓았는가, 그리고 터를 쓰는 후손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끝으로 땅을 쓰는 시기가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김씨의 일에는 이 모든 전제가 올바른 도리에 맞지 않았다.

대권주자들의 발복풍수적 작태가 오늘날 온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정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추어 더 이상 풍수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가치조차 없다. 그래서 차라리 불자로서 풍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는 편이 유익할 듯 싶다.

불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업(業) 사상을 철저히 강조한다. 따라서 좋은 땅도 평소에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한만큼 그대로 따라 올 뿐이다. 이와 반대로 명당을 찾아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불자라면 불교의 이상향 관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풍수에서는 명당을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정토를 말한다.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은 좌청룡 우백호 등의 조건에 합치되는 매우 한정된 장소에 있으나, 불교의 정토는 내 마음이 맑으면 이르는 곳마다 극락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불교적 이치로 보자면 우선 나의 심지(心地)를 맑고 향기롭게 닦는 일이 우선인 것이다.

불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풍수를 수용한다면, 도선국사와 같은 조사들이 개인의 발복을 위한 이기적이고 소승적 풍수가 아니라 국토의 온 땅을 명당화하는 대승적인 풍수를 실천한 전통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도선의 가르침은 온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불교적 깨침을 자연에 적용시켜 온 땅이 명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깨달음이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터의 자연가치를 가꾸어 드높이면 얼마든지 명당이 될 수 있다.

지리산 댐 건설 뿐만 아니라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 등 긴급한 생태환경의 보전에 당면하여 온 몸을 던져 막고 있는 불교계의 선각자들은 불자로서 풍수를 올바로 알고 실천하는 도선국사의 화신들이자 스승인 것이다. 사욕에 눈 먼 무덤 짓거리 집어치우고, 온 국토에 두루 있는 불성을 충만하게 살리는 일이 오늘날 참된 불자로서 풍수를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요 풍수적 방편의 실천이다.

열 린 마 당

종교교도소 운영

"불교도 설립준비위 구성 절실"

혜철 〈불교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



우리나라도 현정부 출범후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춰 민영교도소 설립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체가 교도소를 위탁받아 사설 교도소를 설립,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아무리 질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희생이 우선되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교정교화·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적응훈련을 시키는데는 다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최근에는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7월1일부터 민영교도소법의 시행에 맞춰 이미 기독교 계통에서는 민영교도소 설립 운영을 의한 법인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톨릭의 경우 2001년부터 세부적인 연구비 편성계획을 세워 가톨릭교도소 설립에 대비하고 있다. 원불교는 종단내에 원불교교도소 설치 추진위원회를 두고 모임을 가졌지만, 막대한 예산문제로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시행할 전망이다. 2003년이면 어떤 모양의 민간교도소가 되던 종교교도소가 문을 열 것은 자명하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지금까지의 교도소 위문차원이나 포교차원의 교화운동 및 법회가 아닌 민영교도소 설립에 의한 운영이 절실하다.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에 입각한 등체대비사상으로 적극적인 교정교화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종단적인 범불교 교도소 설립 준비의원회가 하루속히 결성되어야 한다는 바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의 동참과 후원을 기대한다.

"사교집단화 경계…단계적 추진"

이윤호 〈경기대 교정학과 교수〉



종교단체에 의한 민영교도소의 운영은 선교나 포교 등 지나친 종교활동의 강조로 인한 광신자화나 사교집단화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고,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의 교도소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종교단체나 기관 등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하라도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종교 교도소 운영의 가장 큰 쟁점이 되는 해당종교의 강요나 강제 등을 막기 위하여 수용자를 지원자들로 선발하고 수용생활 중에도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되, 정당한 포교나 선교를 통하여 신도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교계의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단체에 비하여 민영교도소 운영주체로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사찰소유의 유휴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건축경비를 줄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대부분의 사찰이 도심지역을 벗어나서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의 폐교 등을 청소년보호시설이나 개방시설 또는 요양시설 등으로 개조하여 운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종교의 실천과 종교의 사회적 참여와 봉사, 그리고 포교를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서 교도소 민영화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경비의 조달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 참여가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 청소년범죄자, 여성범죄자 또는 마약이나 정신질환범죄자 등 특수범죄자를 위한 특수수형시설을 불교교도소로 민영화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교세 확장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개신교계는 이미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한 재단법인 '아가페'를 6월 8일 출범시키고 오는 2002년말까지 기독교 교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민영교도소법 시행에 따른 종교교도소의 운영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개신교 · 가톨릭 등 이웃종교에서는 종교교도소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어 불교계도 이에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사진은 춘천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장면.

기독교교도소 '준비' 올 위탁계약 체결 내년 말 시설 완공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주축이 된 개신교계가 1일부터 발효된 민영교도소법에 맞춰 설립을 추진하는 기독교교도소는 민영교도소 1호로 기록될 전망이다. 6월 8일 기독교교도소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아가페'를 발족시킨 개신교계는 수도권내 부지 물색(7월)과 법무부와의 위탁계약 체결(2001년말까지), 교도소 설계 및 건축(2002년 12월) 등이 마무리되는 2003년 1월 제1기 재소자 입소 및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갈 계획. 약 300억원으로 추산되는 건물과 시설 비용은 '아가페'가 담당하고 운영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1년에 수형자 1인당 700여만원을 국가에서 지급, 500명 수용시 총 35억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기독교교도소는 잔여 형기 2년 가량의 기결수 5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이감을 원하는 수형자들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의 일반 수형 생활 외에 아침(5시 새벽찬양기도회) 저녁(7시 기독교 교육프로그램)으로 기독교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아가페'는 중기계획으로 제1 남자교도소 운영, 중간처우의 집 5개소 개원, 외국인 전담교도소 위탁운영, 범죄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실시, 소년교도소 건립을 마련중이다. 또한 장기계획으로 약물사범 전담교도소, 노인 및 장애인 교도소, 여자교도소, 가해자-피해자 중재프로그램 실시 등 장기계획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02)741-2782 김재경 기자

우란분절 · 천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



우란분재와 칠석이야기

우란분재의 연원, 우란분재의 의미,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등을 우란분절법회와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쉽게 요약 수록하였습니다.
신국판 72페이지, 정가 1,500원



우리말 부모은중경·우란분경·목련경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우란분회에 대하여, 우리말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신국판 64페이지, 정가 1,500원



우란분절과 효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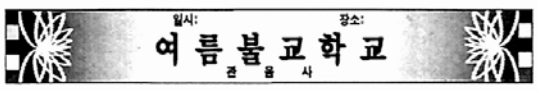
우란분절 법어 및 발원문, 백중기도와 부모님을 위한 발원, '효'에 대한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 영원한 사랑이야기… 칠석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 하였습니다.
신국판 80페이지, 정가 1,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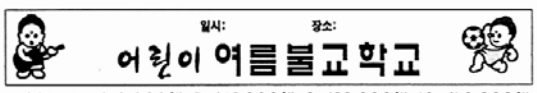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과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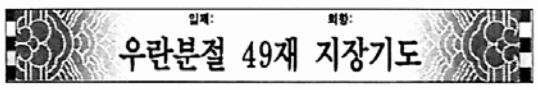
감로출판사 ☎ (02)723-4306-7, FAX(02)738-8682

2545 여름불교학교 현수막 안내









■ 90cmxbm(40,000원), 7m(45,000원), 8m(50,000원), 10m(60,000원), 12m(70,000원)

여름불교학교용 썬 캡



▲성인용 ■ 가격:3,000원 ■ 색상:군청색



▲아동용 ■ 가격:3,000원 ■ 색상:빨강,노랑,청색

차걸이 연꽃염주
■ 가격:3,000원
■ 색상:분홍, 노랑, 보라, 주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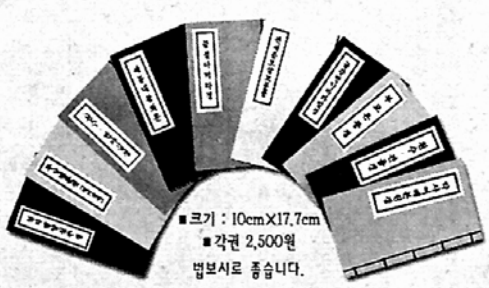
앞치마
■ 색상:빨강, 노랑, 녹색, 군청
■ 가격:4,000원



티셔츠
■ 아동용:6,000원
■ 성인용:8,000원
× 그림 다양.



핸드백에 쏙 들어가는
포켓용 한장본 불서



■ 크기 : 10cmX17.7cm
■ 각권 2,500원
법보시로 좋습니다.

- 천수 · 반야심경 (100페이지)
- 불설아미타경 (86페이지)
- 천지팔양신주경 (94페이지)
- 부모은중경 (102페이지)
- 천수 · 관음경 (110페이지)
- 예불대참회문 (86페이지)
- 관세음보살보문품 (90페이지)
- 금강반야바라밀경 (120페이지)
- 무상법문집(영가전에) (110페이지)
- 약사여래본원경 (104페이지)

방생 타이슬링
■ 색상:청색, 녹색
■ 가격:1,000원
■ 2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가능



부채
■ 가격:700원
■ 5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가능



봉축위원회 지정
불자의 집 교패



■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부식이나 탈색의 염려가 없으며 반영구적입니다.
■ 보급가:1개당 1,000원
■ 2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차량용 옴마니반메훔도 있습니다.

2546년 달력팜플렛 필요하신 사암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 (02)723-4306-7, FAX(02)738-8682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 성철스님 유지 아니다"

인터뷰 성철문도회장 천제스님



해인사는 청동대불 조성이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청동대불 봉안이 자운 · 성철 스님의 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인사 청동 대불이 자운 · 성철 스님의 유지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생전의 성철스님(1912~1993)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만상좌 천제(闡提)스님이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불사가 성철스님의 유지가 아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6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해월정사에서 기자와 만난 천제스님은 "더이상 큰 스님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다"면서 성철스님 밑에서 공부한 제자라면 마땅히 큰스님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 하기에 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성철문도회장을 맡고 있는 천제스님은 15살때인 지난 53년 천제굴에서 정진중인 성철스님을 만나면서부터 스님의 제자가 되어 이후 40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셔온 제자다. 다음은 천제스님과의 일문 일답.

Q 해인사는 현재 청동대불이 성철스님과 자운스님의 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스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지금 불사가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성철스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기에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으로서 가만 있을 수만은 없어 이렇게 입장을 밝힌다.

불상을 모시는 것에 대해 자운스님께서 성철스님께 의논한 적이 있다. 자운스님은 크고 작은 일에 대해 성철스님의 의견을 들어 진행할 정도로 두분 스님은 신의를 지키고 뜻을 존중하는 사이였다. 80년대 초쯤 남방불교를 둘러보고 온 자운스님께서 "남방에는 웅장한 불상이 있어 신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해인사도 대불을 조성하면 어떻겠는가"고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

"89년 임회참석 안하셔"

그때 성철스님께서는 "크고 웅장한 불상 조성도 좋지만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법보가 있으니 팔만대장경을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일도 중요하며 외형상의 규모나 화려함을 흉내낼 필요는 없다"고 찬성하지 않으셨다.

또한 "대불을 조성할 만한 예산이 있으면 승가교육에 쓰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상좌인 나에게 비추기도 하셨다. 성철스님의 뜻을 받아들여 자운스님께서도 불상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접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는 일관되게 가야산 훼손을 안타까워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의견이 변했을 리도 없고 또 불사에 대한 뜻이 계셨다면 방장실장과 종정사서실장을 지낸 내가 모를 리 없다.

Q그렇다면 해인사 불사와 관련 성철스님의 평소 생각은 어땠는지.

▲성철스님은 가야산을 무척 사랑하셨다. 산승은 산을 지키는 게 본분이라고 할 정도로 풀 한포기, 돌멩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셨다. 주석하시던 암자로 가는 길을 넓히는 것도 반대하셨다. 67년 낙화담(해인사로 오르는 왼편 계곡)을 부락으로 조성하려고 하자 해인사 계곡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윗신부락을 만들어 낙화담 계곡의 절경을 지켜내신 분이다. 그리고 관이 워낙 강경해서 끝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주차시설과 큰 부락은 산문밖에 있어야 수행도량 해인사의 위상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스님의 뜻이었다.

"스님 뜻 왜곡 가슴아파"

또한 가야산을 국립공원으로 정해놓고 관광상품화 하려고 마구잡이로 개발하자 스님께서는 '해인성지'라는 친필을 써 주시며 "가야산과 해인사는 공원이라는 위상보다는 성지(聖地)로 보존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다. 지금도 해인사에는 그 친필석비가 세워져 있다.

Q89년 해인사임회에서 대불을 비롯한 재가불자수련원 건립을 구체적으로 의논했다고 하는데.

▲회의의 내용과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성철스님께서는 임회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종무실에 내려간적도 없을 정도다. 이런 스님께서 대불 조성과 수련원 불사와 관련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Q앞으로 해인사 불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해인사 불사는 소임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또 불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소임자들이 뜻을 모아 해나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불사에 성철스님이나 자운스님을 끌어 들여서는 안된다는 게 분명한 내 입장이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의 의지로 불사를 진행하는 것은 탓하고 싶지 않으나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훌륭하신 스님들의 참다운 뜻을 왜곡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큰스님을 직접 모셨던 많은 스님들이 자신의 입장에 연연해 성철스님의 뜻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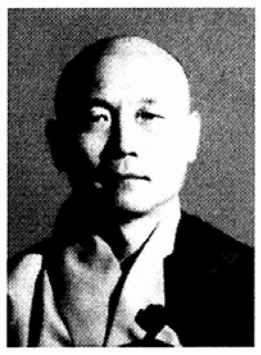
부산= 천미희 기자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자"

특별기고

정봉 스님

쌍계사 금당선원 유나



해인사 대불 조성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돼 자칫 불교계 내분으로 까지 비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쌍계사 금당선원 유나 정봉스님이, 해인사와 수경스님, 그리고 해인사 선방수좌 등 사태의 당사자 모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자는 내용의 기고를 보내왔다. 정봉스님은 67년 해인사로 출가하여 그동안 범어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에 정진해 온 선승이다. <편집자>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불사가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며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거룩한 불사가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게 되었을까?

대부분의 불사가 철저히 하드웨어적이라 콘텐츠를 채우기 위한 불사는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다.

지금 전국에는 실업자가 백만명이 넘고 노숙자,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

해인사 종합불사 계획 일부 수정후 여법하게 추진

의 숫자도 헤아릴 길이 없다. 불교학을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젊은 불교학자들이 학문에 몰두하기에 앞서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중생들의 고통을 덜고 함께 고민해야 할 불교가 중생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수십억원을 들여 대불을 세운다고 하니 국민들과 불자들의 거부감을 일으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해인사가 가야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할 때 온 국민의 성원과 환경단체의 지지, 협력을 받았다. 경남도의 가야산 관통 순환도로 사업에 대하여 불교도와 환경단체가 강력한 저지 운동을 펴고 있는 이때 환경운동에 역행하는 높이 43m의 거대 불상 건립은 그분들로 하여금 배신감과 허탈감을 갖게 하지 않겠는가.

기공식 이후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자운 · 성철 스님의 유지라고 하는 것도 큰 스님들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제반 분제점들을 안고 있는데도 대불 건립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니 이제라도 해인사가 계획을 일부 수정해 여법하게 추진하면 어떨까 한다. 해인사 종합불사의 기본 골격은 본당을 중심으로 한 스님들의 수행공간, 그리고 현재 대불을 조성하려고 하는 구 해인초등학교 자리는 신도들의 수행공간으로 한다고 한다. 이 '신행공간'에 설법전과 상설 수련원을 먼저 건립하고, 세계 최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가장 어울리는 크기의 불상을 조성하는 것이다. 굳이 '최대' '최고'를 고집하려면 세계에서 최대로 정성들여 조성하는 불상, 최고로 아름답게 조성되는 불상이 되도록 노력하자.

시주자가 불상 건립으로 시주했으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거액을 낸 시주자의 신심이라면 충분히 납득하리라고 믿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며 수련할 수 있는 설법전과 수련원을 건립하고 아울러 적당한 크기의 불상을 함께 그 공간에 모신다면 훨씬 더 커다란 공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옳은 말 일지라도 자극적 표현은 오해 · 반발 부를뿐

수경스님이 다소 과격한 내용으로 기고문을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사실 자운 · 성철 큰 스님이 세계 최대 청동대불을 조성하라는 유지를 남길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해인사 종무소측에 큰 스님을 팔지 말라고 경책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비록 가정법을 썼다 할지라도 "자운과 성철 스님이 우리시대의 스승이라는 말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우리 시대의 고승으로 모셨던 자운과 성철이라는 이름을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려야 한다", "종지를 받들지 않으면 종정은 종정이 아니요 방장은 방장이 아니다"고, 마치 청동대불 건립을 반대하지 않으면 종지를 받들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여, 종정과 방장 스님도 청동대불을 반대하지 않으니 종지를 받들지 않은 것이 되므로 종정이 아니요, 방장이 아니라는 표현은 참으로 어색하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표현이다. 그리고 청동대불 조성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설득력있게 지적하여 당사자쪽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인사 선방수좌들도 침묵만 지킬 것이 아니라 청동대불 건립 반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 수좌도 뜻을 같이 하도록 했어야 글을 쓴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하면 일반 독자는 대리만족으로 통쾌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이해 당자자는 반발하기 마련인 게 중생심이다. 그런데 자극적인 발언을 하여 글의 취지 전달에 혼선을 빚고 오히려 선방수좌들의 오해와 반발을 일으키게 한 것은 수경스님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일반 언론인이라면 몰라도 마음공부 하는 수행자라면 '나의 표현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수좌스님들이 한 생각 망상을 일으켜 좌복을 벗어나 공부를 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게 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구나! 내 허물이 크구나!' 라고 생각해 봄직하다.

그러나 그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물리적인 힘을 과시한 해인사 선방수좌들의 잘못도 적지 않다. 수경스님의 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격한 표현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은 옳다고 본다. 설사 공감이 가지 않고 반대 의견이 있다면 글로 반론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진정 수좌답게 태연부동하든지 했어야 했다. 그런데 결제중에 산문을 떠나 서울로, 실상사로 가서 집단행동을 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일이다.

〈신심명〉에는 "잠깐이라도 시비심이 일어나면 분명히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심적으로 '정말 잘못했구나, 수좌는 정말 수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참회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불교신도나 불교를 아끼는 국민들이 선방수좌들에게 거는 기대를 생각해 보라. 수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답은 명확해질 것이다. 이번 해인사 선방 수좌들의 과격한 행동은 불자들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다

결제중 산문이탈 수좌들 집단행동 합리화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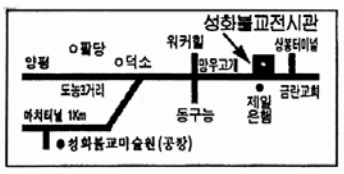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도 수좌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참회한다. 모두들 다음과 같은 고인의 게송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을 또한번 경책해 보길 바란다.

나는 누더기를 입고 싱거운 밥으로 배가 부르네.
해진 옷 기워 추위를 막고 만사를 인연에 따라 산다네.
누가 나를 욕한다 해도 나는 스스로 즐거워 하고
누가 나를 때린다 해도 나는 스스로 쓰러져 잔다네.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내버려두면 저절로 마르니
나는 힘을 소모하지 않고 그 사람도 번뇌가 쉰다네.
이러한 바라밀이야말로 바로 오묘한 보배라네.
만약 이 소식을 안다면 도 이루지 못할까 무얼 걱정하리.

※이 난의 내용은 현대불교의 편집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청동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탁자
청동불상 제작 전문

주·야 상담합니다
제 원
높이 190cm
가로 180cm
천수천안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태창빌딩 1층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 장 : (031)591-1022, 휴(011-302-1022


법인 · 시설 · 단체 실무행정
21C 복지법인경영총람

법인의 분류
사회복지법인의 행정
1.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규
2.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내용
3.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후 업무
1. 허가 후 주요업무
1) 설립등기 사항보고
2) 재산 이전 보고
시설운영에 관한 사례
1. 회계처리사항
2. 법인 · 시설운영에 관한 세입 ·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과 결산
3. 과목별 예산 부족시 일시 차입
4. 기부금 관리
5. 공사,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사항
6. 물품관리
7. 기본재산처분
8. 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
9. 직업보도사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
10. 법인 ·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및 장부
11.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소홀히 하기 쉬운 사항
12. 법인의 각종 사례
1) 법인 설립허가 사례 4종류
2) 임원 취임변경 사례 4종류
3) 재산 처분(농지)사례 2종류
4) 채무로 인한 기본재산 가압류 사례 2종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 사단법인 정관준칙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사회복지법인의 분리
장기차입 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사회복지관련 법률 · 시행령 · 규칙
1. 사회복지사업법
2. 노인복지법
3. 아동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영유아보육법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1C 복지법인경영총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한 도서입니다.


정가 : ₩28,000(5×7판495page)
발행처 복지연합신문사
구입문의 : 080-003-0888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65-21-0191-359 (예금주 - 김종래) ■ 구입방법 : 송금후 080-003-0888로 연락주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⑮

제24 도솔궁중게찬품(兜率宮中偈讚品)에 이런 게송이 있다.

"차라리 수많은 세월을 온갖 고통받을 지라도 마침내 부처님의 자재한 위신력과 불법을 멀리하지 않겠노라."

여기에 대하여 청량 국사는 "진실한 법을 알고서 널리 법계에 들어간다면 수행이 쌓여서 헤아릴 수 없게 된다. 이는 부처님을 친견함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이 게송은 고통을 감수할지라도 부처님을 친근하겠다(甘苦近佛)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하였다. 〈화엄경〉은 예로부터 '십만게송경'이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게송이 많은 경전이다. 경문 속에 들어 있는 아름답고 문학전인 표현만으로 보더라도 그 양과 질에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고도 남는다. 그 중에서도 이 게송이 자주 기억되는 것은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어서 만이 아니리라.

제26. 십지품(十地品)의 제3. 발광지(發光地)의 경문이다.

"만일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 부처님이 말씀한 한 구절 법으로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할 것이 있는데, 그대가 능히 큰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 일러주리라' 하면, 그 때에 보살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한 구절 법을 듣고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할 수 있다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불구덩이 속에라도, 오히려 대범천의 위로부터 떨어져 들어가서 몸소 받을 터인데, 하물며 이 조그만 불 속에 들어가지 못하랴. 그리고 내가 지금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체 지옥의 고통도 받거니와, 하물며 인간에 있는 조그만 고통을 받지 않으리요' 한다."

"맹렬한 불 삼천 세계 가득 찼는데 범천에서 몸을 던져 뛰어든대도 법을 듣기 위하여선 어렵잖거든 인간의 작은 고통 참지 못하랴."

청량스님은 "설사 불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다면 오랜 세월 지옥에서 고통 받게 되더라도 감수하겠다"고 설명한다. 위의 내용은 〈열반경(涅槃經)〉 제7. 성행품(聖行品)에서 설산동자(雪山童子)가 나찰에게 반 구절의 게송을 구하려 몸을 보시하는 모습이, 그 옛날 초등학교 바른 생활 교과서에 실렸던 일을 기억나게 하는 구절이다.

한량없는 낙을 받느라고 부처님 명호 못 들을까 보냐.

지난번 제14. 수미정상게찬품(須彌頂上偈讚品)에도 이런 사상의 게송을 볼 수 있었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받으면서 부처님의 명호 들을지언정 한량없는 낙을 받느라고 부처님 명호 못 들을까 보냐 / 그 까닭 말하면 지난 옛적에 수 없는 겁 동안 고통 받으며 나고 죽는데 헤매면서 부처님 명호 못 들은 까닭이네."

참으로 처절한 신앙고백이 아닐 수 없다. 화엄경 도처에 이렇게 치열한 구도의 정신이 보인다. 입법계품(入法界品) 제39에도 선재동자(善財童子)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投身火聚) 위법망구로 승열바라문(勝熱婆羅門)에게 법을 구하는 모습마저 볼 수 있다.

"그 때 선재동자는 즉시 칼산에 올라가서 몸을 불구덩이에 던졌다. 내려가는 중간에서 보살의 잘 머무는 삼매를 얻었고, 몸이 불꽃에 닿자 또 보살의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삼매를 얻었다. 그리고 선재동자가 여쭈었다. '매우 신기하옵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런 칼산과 불무더기에 몸이 닿을 적에 편안하고 쾌락하였나이다.'"

주위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불교를 멀리한다거나, 의식이 풍족하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배고픈 서민의 고통 위에 군림하면서 부처님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귀담아 들어놓아야 할 내용이어서 모아 본 것이다. 불자이든 아니든 불법 없는 편한 생활은 아무런 의미 없는 암흑세상이 아니겠는가!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불법위해 지옥불도 마다 않으리

환경 어렵다고 불교 멀리하면 어리석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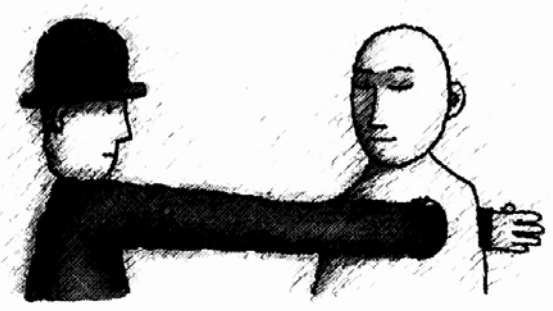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

불교와 과학 〈34〉

마음 / 과학 / 불교

'실체' 있는 대상으로 인식

마음도 비워야 평정 도달

마음이 무엇인지 묻는 순간에 이미 그 마음은 대상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본연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대상화해서는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상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다는 말이다. 선풍기가 무엇이고, 책상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원래 대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량적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으나, 내가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할 때 가장 어렵듯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가 가장 어렵기도 하다. 법구경에서 말하듯이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거늘, 근본을 묻는 일은 그것이 원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기는 쉬우나 답하기는 어렵다.

서구에서 마음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이가 바로 철학자 데카르트였다. 그에게 마음이란 생각함을 낳는 어떤 실체인데 마음의 실체를 직접 알기는 어려우나,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한시라도 생각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데카르트에게도 마음을 아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마음은 결국 대상화된 마음이며, 데카르트는 이를 '실체'라고 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생각한 실체로서의 마음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실체이듯 신체 역시 공간을 차지하는 실체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주장인데, 마음과 신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체라면 그 두 실체는 독립적이고 따라서 서로의 연관성이 전혀 없게 된다. 쉽게 말해서 마음먹는 대로 몸이 따라 행동한다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데카르트는 이 문제를 고민고민하다가 나름대로의 묘안을 내놓았다. 즉 해부학적으로 보면 뒷머리 아래 부분에 송과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지령과 몸의 행동을 연결하는 부위를 바로 그 송과선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이런 데카르트의 제안은 말도 안 되는 것이어서 곧 폐기되었다.

현대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뇌에 대한 연구가 증폭되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뇌는 인체의 마지막 블랙박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알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정보공학과 유전공학 분야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결국 뇌공학으로 미래 기술이 집중될 것이라고들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현재의 인공지능 과학으로는 엄두도 못 낼 신비의 영역이며, 엄청난 수의 신경 세포로 구성된 뇌 구조의 네트워크는 수학적인 기능 이상의 다중적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140억 개의 신경 세포와 1300억 개 정도의(숫자는 추정치임) 글리어 세포들은 서로간에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활성화되어 간다. 하나의 신경 세포는 많을 때는 수십만 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어서 정보 유출입 과정은 간단히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서구의 과학과 철학은 마음을 대상화하여 인식하려 했고, 마음의 처소를 뇌라고 보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마음은 유형적인 물질과 달라, 마음과 신체 혹은 정신과 물질을 같은 범주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난관은 데카르트를 포함한 서구의 철학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최근의 서구철학에서는 마음을 대상화하기보다는 무언가를 지향하는 '지향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서구 인식론은 여전히 마음을 대상화시킴으로써 지식의 영역 안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 잡혀 있다.

마음은 실체로서의 마음이나 대상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성과 반응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음은 대상이 아니라 작용일 뿐이라는 점이다. 작용으로서의 마음은 삼계(三界)를 만들기도 하고 연분(緣分)을 만들기도 한다. 삼계를 만드는 마음은 식(識)이나 빈나나(vinnana)가 될 수 있고, 연분을 만드는 마음은 의(意, manas)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될 수 있지만, 또한 그런 만큼 흔들리기 쉽고 혼탁해질 수 있으며 미묘하고 들떠있고 찌푸려 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질투와 원망, 노여움과 두려움 그리고 욕망을 일으키는 마음을 무시하거나 단칼에 잘라버림으로써 마음을 평정하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마음은 대상이 아니라 작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망의 마음을 달래고 그런 마음과 실랑이하며 나는 왜 이런 헛된 마음밖에 가질 수 없나 라는 자기괴리와 자신의 허약함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안되지 하며 다시 마음의 작용을 분발하고 항상 새롭게 물결치는 마음의 작용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씩 평정한 마음을 찾아가는 일이 오히려 심성청정(心性淸淨)의 불성에 겨우 한 발짝 다가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chiak sangji ac kr

피부·이념·종교벽 넘어 화합심는 열린 음악회

지구촌 불교 / 세계 성(聖)음악축제

'이해와 조화'를 모토로 2년 동안 전세계를 순회하고 있는 열린 음악회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6월 1~3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세계 성(聖)음악축제(World Festival of Sacred Music)가 바로 그것.

세계 성(聖)음악축제는 97년 "새로운 세기를 기념하는 범종교 행사를 마련하자"는 달라이 라마의 제안에 따라 처음 개최됐다. 당시 이를 보도한 타임 지(誌)는 "달라이 라마는 종교인으로서 새로운 세기를 맞는 인류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었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음악'에 주목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티베트하우스' (인도)와 '보편적 의무 재단' (미국)은 세계 성(聖)음악축제를 99년 10월 미국 L.A를 시작으로 11월 미 시카고, 캐나다 뱅쿠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2000년 2월 미국 아트레보르, 4월 인도 벵갈, 5월 캐나다 워터루, 11월 태국 치앙마이, 2001년 5월 미국 뉴욕에서 연이어 개최했다. 이 음악축제는 이번 히로시마 개최에 이어 이탈리아, 호주를 거쳐 독



◇99년 미국 LA에서 열린 '세계 성음악축제'에서 공연한 티베트 락룹 '망명 형제들' 모습.

1997년 달라이 라마 제안 … 각국 순회 개최

"완벽한 화음은 인류 화해와 용서의 소리"

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매 회 세계 성(聖)음악축제에서는 200~400여 명의 뮤지션들이 종교음악, 대중음악, 민속음악, 현대음악을 무대에 올려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 LA 성(聖)음악축제 이후 줄곧 이 행사에 참가해 온 UCLA 미토마 교수(음악학과)는 "이 세상은 서로 다른 진리가 존재하여 있는 곳"이라며 "성(聖)음악축제는 서로 다른 진리가 편견을 버리고 서로에게 배움을 청하는 자리"라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완벽한 화음은 인류의 가슴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화해와 용서의 소리이며, 성(聖)음악회에서 그 소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티베트하우스 충키(Chung Key) 사무관도 "이 음악회는 정치, 종교,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를 구분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한다"며 "서로 다른 소리를 통해 인류의 본질적인 신념과 그것의 상호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 히로시마 성(聖)음악축제 역시 토시노리 콘도, 빌 라웰, 제이 웨블 씨 등 일본, 미국, 영국의 대표적인 음악 프로듀서를 비롯해 20여 개 국, 200여 명의 뮤지션들이 참석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번 음악축제 기념 법어를 통해 "세계는 항상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 잡거나 혹은 멈춰 세울 수 없지만, 그 변화의 원동력이 우리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는 문제 또한 이해와 조화를 좇는 우리의 심성에 달렸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 co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손선식(2개월 50만원), 손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포(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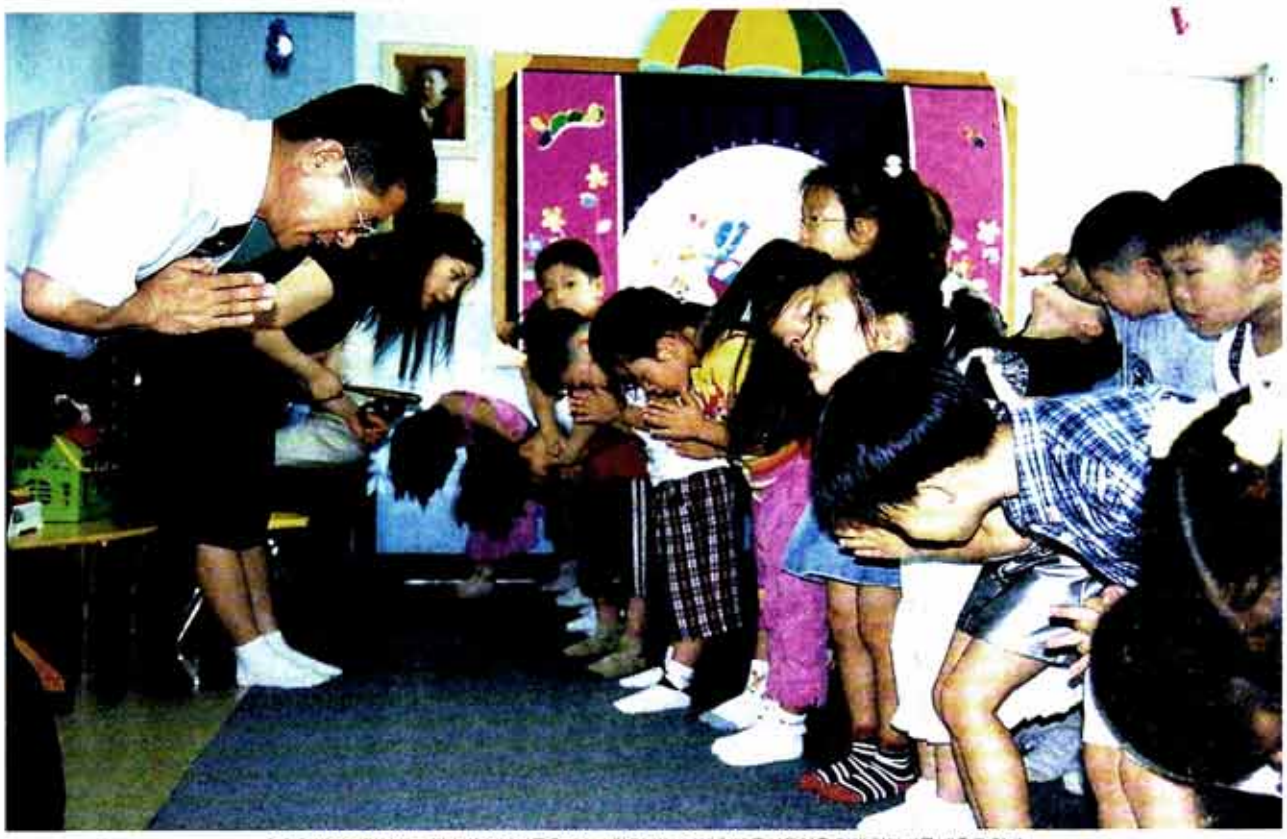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 737-0695 Fax:02) 737-0696





◇속초 반야어린이집 보리수반 어린이들은 오는 8월 열리는 만해축전 음성공양을 위해 찬불가를 배우고 있다.

천진불들 놀이터…"여기는 작은 불국토"

신흥사복지원 반야어린이집

277명의 새싹불자
뛰어놀고 공부하고
얼굴미다 해맑은 표정

민속놀이 · 예절학습 등
잠재력 키우기 교육
타 유치원과 차별화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와!'하는 감탄의 소리가 절로 나온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밝게 웃고 있는 옛날 옛적의 가족을 표현한 인형작품, 6개의 새 둥지, 개구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예쁜 수족관, 그리고 도무지 어른들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을 기상천외한 작품(?)들. 억지를 부려서라도 여기가 '작은 불국토'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버스에서 어린아이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뛰어온다. 발걸음을 멈추기도 전에 선생님들께 합장 인사한 아이들은 마치 달리기 경주라도 하듯 자신들의 교실로 다시 뛴다. 조용하던 어린이집은 갑자기 활기에 넘친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곳은 강원 속초시 영랑호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신흥사복지원 반야어린이집(원장 이명우). 이곳은 밝은 햇빛과 신선한 공기, 상큼한 풀 향기,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곳곳에 스며 있는 자비동산이다.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해야 한다는 이명우 원장은 "신흥사 속초포교당 원각사와 함께 자리한 이곳은 다른 어린이집과는 달리 300여 평의 넓은 마당과 교실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최적의 교육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속초지역 육아를 위해 신흥사가 영랑동에 반야어린이집을 설립한 것은 지난 96년. 4살부터 7살까지 취학 전 어린이 277명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곳에서 뛰어논다. 하지만 맞벌이부부들을 배려해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문을 열어 둔다. 인구 9만여명의 속초지역에는 약 80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다. 이 가운데 원생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반야어린이집. 5년 동안 1190명이 이곳을 거쳐 갔을 정도다.

그렇다면 속초지역 부모들이 반야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아이들 또한 졸업할 때까지 반야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대표적 이유 중 하나가 틀에 짜인 어린이집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는 다른 어린이집 · 유치원과는 달리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의 교육이 악기를 다루고, 그림을 잘 그리는 등 특별한 능력을 가르치거나 초등학교 가기 전에 수 · 한글을 가르치는 곳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반야어린이집의 교육철학이다.

보리수반(7세) 이재숙(업무주임) 교사는 "인간됨의 기초가 다져지는 유아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습관이나 사고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인간다움을 잘 다져주어 지혜롭게 사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입니다"고 말한다. 또 난초반(4세) 황수경 교사도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태도가 어린 시기에 모두 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 교육프로그램을 어른들의 잣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인지 반야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한다. 아이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질문을 통해 어린이들의 요구, 느낌, 입장을 항상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반야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등 20명은 어린이들이 성인이 돼서, '내가 알아야 할 삶의 모든 것을 어린이집에서 배웠다'고 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고자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인지 반야어린이집의 1년간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들의 창의력을 계발시키고 인생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씨앗심기, 봄 동산 견학, 민속놀이, 요리실습, 기차 여행, 예절 교육, 김장 담그기, 노인요양원 방문, 해양경찰서 함정 견학, 반야가족 그림그리기 대회, 비행장 견학, 시장놀이 등. 또한 반야어린이집이 사찰에서 운영하는 만큼 불제자다운 품성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프로그램과 가정 · 어린이집 생활을 연계하기 위한 부모교육강좌, 학부모 상담 등도 운영하고 있다.

보리수반 원생들은 요즘 오는 8월 6일부터 4일간 설악산 백담사에서 열리는 만해축전 음성공양을 위해 찬불가 연습에 한창이다. 이번 만해축전에서는 지난 5월 22일 개최한 '반야가족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입선한 작품 51점도 선보일 예정이다.

난초, 연꽃, 보리수 등 나이별로 12개 반으로 나눠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은 원장 선생님이 목탁을 들고 "이게 뭐예요"하고 묻자, 보리수반 한형석(7세) 어린이는 "스님들이 절에서 부처님께 인사할 때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이예요." "노래할 때 쓰는 거예요"라고 제각각 대답한다. 아이들에게 반야어린이집은 공부만하는 곳이 아니라 자유롭게 상상하고 마음껏 뛰어노는 '천진불들의 놀이터'다.

속초=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지난해 12월 19일 개최한 반야가족 한마음 축제에서 역할극을 하는 교사들.

◇점심 공양에 앞서 두 손을 모으고 공양게를 하는 반야 어린이들.





반야어린이집
이명우 원장

"지혜로운 사람 키워야죠"

"어린이 마음은 곧 부처님 마음입니다. 맑은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의 마음은 색을 칠한 대로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어린이에 맞추는 교육관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난 96년 반야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지금까지 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명우(60) 씨는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생각과 행동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원장은 지난 77년 제1회 MBC대학가요제에서 '가시리'로 은상을 수상했던 가수. 그는 수상 이후 두 번이나 음반을 내는 등 가수로서의 앞날도 밝았지만, 고등학교 때 꿈인 '교육자'의 꿈을 버리지는 못했다. 결국 2년 여 간의 가수생활을 마감하고 서울 성남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는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다.

"원만한 불서를 대부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스님들과 만나면서 불교에 심취하게 됐습니다. 12년간의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불교어린이집 원장이 된 것도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속초에 둥지를 틀면서 낮에는 어린이들과 함께하고, 오후나 저녁에는 지역 불교계의 행사에 참석해 찬불가 음성공양으로 포교와 신행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린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어린이들과 함께하며 터득한 비법이 '섬세한 관심과 노력'이라는 이 원장은, 부모들에게 시간을 많이 가질 것, 여행을 자주 할 것, 책을 많이 읽어 줄 것을 제안한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비파나무잎죽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조용한 마을에 비명이 터지면서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강변으로 모여들었다. "장씨네 집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갔대."

장 씨 부부는 검붉은 물이 넘실거리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손쓸 방도가 없었다. 발을 구르며 애타게 아이를 부를 뿐이었다. 결국 아이의 엄마는 혼절했고 아버지는 마을 장정들과 함께 떠내려가는 아이를 강 하구를 향해 뛰고 있었다.

강 백사장에서 시간가는 줄을 모르고 놀던 장 씨네 아이는 그만 급하게 불어난 콩갈에 휩쓸린 것이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다성으로 유명한 초의선사다.

마을 사람들은 설령 아이를 건진다 해도 산 목숨이긴 틀렸다고 혀를 찼다. 바로 그때, 강 건너에서 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향해 뛰어들었다. 능숙한 솜씨로 물살을 헤치며, 아이를 한쪽 팔에 안고 강을 건너왔다. 그는 바로 대흥사로 가던 스님이었다. 아이는 축 늘어져 이미 싸늘하게 식은 송장같이 보였다. 스님이 아이의 온몸을 두 손으로 비비며 기를 회생시켜주자, 아이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마을 사람과 장 씨 부부는 비로소 환호성을 지르며 아이를 얼싸 안았다. "스님, 고맙습니다." "아이가 크게 놀랐을 터이니 비파나무 잎에 술을 조금 넣어 미음을 쑤어 먹이면 정신이 안정될 것이오."

초의 선사는 15세에 출가해서도 물에 빠져 생사의 관문에 섰던 어린 시절을 거울삼아 더욱 더 수행에 매진했다. 이런 인연으로 선사는 많은 차 중에서 비파나무 잎차와 비파나무 잎으로 만든 죽을 특히 중히 여겼다고 한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위열 구토 · 딸꾹질에 효능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비파나무 잎 10g, 현미찹쌀 100g, 볶은 소금

요리법 ① 비파나무 잎을 가늘게 썰어 거름망에 싸서 냄비에 넣어 물을 붓고 30분간 끓인다.

② 끓는 물에 불린 현미찹쌀과 적당량의 물을 부어 죽을 끓인 뒤 소금으로 간한다.

효능 ① 폐열과 위의 기능 조절, 기(氣)를 소통시키고 가래를 없앤다.

② 위열로 구토, 딸꾹질하는 증세에 효능이 있다.

• 비파나무 잎은 서리 맞은 것을 쓰되, 털을 없애고 감초 물로 씻거나 생강즙으로 끓인다.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부용선사 '心行處滅'

부용 선사는 조선 성종 16년(1485) 삼천포에서 태어났다. 법명은 영관(靈觀), 법자는 은암(隱庵), 법호는 연선(蓮船), 당호는 부용당(芙蓉堂).

8살 때의 일이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이끌려 낚시를 갔는데, 선사는 망태 속의 물고기를 모두 놓아주었다. 아버지께서 크게 화를 내자 선사는 엎드려 울면서 말했다. "사람이나 물고기나 목숨의 귀중함은 같고 아픔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루는 괴이하게 생긴 한 스님이 찾아와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는 불가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요, 세속에서는 살 인물이 아니니 출가를 시키십시오"하며 사라졌다.

선사의 나이 13세 되던 해 연산 3년(1497) 가을 어느 날, 선사는 공문(空門·佛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 없어 마침내 집을 나서게 되었다.

낙엽 떨어지는 모습 보며 대오

욕망 없애버려 마음 허공처럼

선사는 발길을 재촉하여 수일 만에 덕이산(德異山·지금의 덕유산)으로 들어가, 홀로 토굴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고행 선사를 찾아 가르침을 받은 지 3년 만에 승려가 되었다. 17세 되던 해 신총법사를 찾아 교학을 탐구했으며, 다시 위봉선사 회상에서 선의 요체를 참구했다. 그 뒤 선사는 덕유산 구천동으로 들어가 손수 토굴을 지었으며, 선당의 이름도 부용당(芙蓉堂·몸은 비록 이 세상에 머물지만 생각은 늘 서방정토에 있으므로 그것을 상징하는 연꽃을 의미해서 지었다)이라 지었다.

9년 동안 두문불출한 채 용맹정진하였으며, 일체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참행(參行) 하였으며 와불선(臥不禪)을 확립하였다. 9년의 장좌불와를 마치고는 다시 미륵봉 내원암으로 들어가 출입을 끊고 9년 동안 묵언불와(默言不臥)로 생사불수행(生死不修行)을 하였다. 중종 25년(1530) 가을 어느 날, 선사께서 무심코 선실 창문을 바라보다 낙엽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확연대오하였다. 선사의 깨침은 심행처멸(心行處滅)이다.

심행처멸(心行處滅)

空費悠悠憶少林(공비유유억소림)
因循衰鬢到如今(인순쇠빈도여금)
毘耶昔一無成臭(비야석일무성취)
摩竭當年絶響音(마갈당년절향음)
似杠能防分別意(사울능방분별의)
如癡必禦是非心(여치필어시비심)
故將忘計飛山外(고장망계비산외)
終日忘機對碧岑(종일망기대벽잠)

부질없이 소림(중국에 있는 절)만을 생각하다 / 어느덧 구레나룻은 희끗희끗 / 부처님 열반후 불교가 크게 펼쳐진 곳[비야리(毘耶離)]의 옛날은 소리도 냄새도 없고 / 마가다(摩竭陀·불멸 후 처음으로 불교가 펼쳐진 곳)의 음향은 끊어졌어라 / 말뚝인 양 앉아 있으니 일체분별 사라지고 / 바보처럼 지내라노니 시비심 일지 않네 / 헛된 생각일랑 산문 밖으로 날려 보내고 / 온종일 세사(世事)를 잊고 푸른 산만 마주한다.

선사의 게송에서 말해주듯이 깨침은 심행처멸이다.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성에는 명상(名相)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버려야만 자신의 뜻을 실천에 옮기고 구기심(求其心)을 달기(達其)할 수 있으며, 삶도 죽음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심멸선(心滅禪)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선사께서는 "명(名)의 자심(自心)에 얽매여 들끓는 욕망(佛海慾·우주를 집어삼킬 정도의 욕심)을 없애 버려서 마음이 허공처럼 되어야, 깨침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으며 진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하셨다. 또한 선사께서는 다겁생으로 이어져 전개되는 영원불멸한 생명의 원천에 한점의 티끌이라도 있으면 수십억 겁을 지나도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더욱이 깨침을 얻을 수 없다고 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침이라는 행위를 통해 확연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선조 4년(1571) 4월 14일 연곡(燕谷)의 서편산록에 주석(住石)이 되어 오늘날까지 청풍납자들의 혜안이 되고 있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만봉스님

신촌 봉원사 주석

자나깨나 '불보살 그림' 만 생각

서울 한복판 신촌 안산 중턱에는 불교문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봉원사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 봉원사 주변 사하촌에는 불교전통 범패와 불화의 전통을 오늘에 잇고 있는 태고종 스님들이 모여 살고 있다.

9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붓을 놓지 않고, 불화그리기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스님도 바로 이곳에 계신다. 평생을 화려하고 장중한 불보살의 세계를 그려온 스님은 전통 불화(佛畵)의 역사와 정신을 올곧게 이어온, 이 시대의 대표적 불모(佛母)다.

갓 시작된 장마로 며칠째 이어지던 비가 잠시 주춤했던 6월 26일 오전 스님의 화실을 찾았다. 봉원사 입구에서 오른쪽 언덕으로 조금 올라간 곳에 위치한 만봉불화전시관. 그곳에서 스님은 자신의 작품 활동과 제자 양성을 함께 하신다.

마침 스님은 탱화 한점을 놓고, 마루에 앉아 어느 비구니 스님께 설명을 하는 중이었는데, 귀찮은 기색 없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조금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려 처음 뵌 스님께 건강부터 여쭈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 수년 전에 다리가 부러져 고생을 했는데, 치료는 다 받았지만 부러진 다리를 쇳덩이로 이어 놔서 다니는데 자유롭지가 못해. 누가 부축을 해줘야 다니지. 그래서 화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지."

"가끔 답답하기도 하시죠?"

"답답할 거 뭐 있어, 공기도 좋지, 뻐꾸기가 안우나, 앵무새가 안우나 여기가 바로 극락이라. 허허허"

스님의 하루일과는 아침 6시에 시작된다. 6시에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세수하고,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다 때가 되면 공양하고, 그림 그리고, 제자들 지도하고, 또 그림 그리고…

밤 9시가 되어서 제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야 하루가 마무리된다. 보통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삶이 지루할 것 같지만 스님에게는 그림 그리고 가르치고 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공부고, 즐거움이다.

8살 때 은사인 봉원사 예운스님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아무런 망념없이, 그저 그림과 부처님, 부처님과 그림을 화두로 수행을 이어왔다.

예운스님 밑에서 10년간 수련끝에 금어가 된 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조성해왔다. 금강산 표훈사, 유점사, 사연불을 비롯해 공주 마곡사, 서울 도선사, 봉원사, 봉은사, 백련사, 법륜사와 경기도 회암사, 승주 선암사, 안동 봉정사, 베트남 평화사 등 많은 사찰의 불화와 단청을 장엄했다.

평생을 하루도 걸르지 않고 붓을 잡은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려왔으니 그 수는 스님 자신조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 가운데 대표작을 묻는 질문에 스님은 웃음만 지으셨다.

"매 순간마다 부처님 마음을 따라 그 마음 그대로 조성하고자 했던 불화들이라 모두가 다 한결같아 보여. 잘된것, 못된것, 대표작이니 뭐니해서 구분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분별심과 탐심이 남아 있다는 증거야. 우리가 이 세계에 상존해 있는 부처님을 이 부처님 저 부처님 하며 순위를 정할 수 없듯이 전국 사찰에 봉안한 수많은 불화가 제각각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분별심을 내서 내 스스로 이렇다 저렇다 감히 말 할 수 있겠소."

> 불화 전통 잇는 佛母
>
> 그림 그리고 가르치고
>
> 92세 불구 활동 여전
>
> 삶 자체가 그림수행



◇만봉스님은 오직 그림과 부처님, 부처님과 그림을 화두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불보살과 단청을 그리는 과정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좌(正坐)로 부처님 앞에 마주 앉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바른 자세로 같은 그림을 몇 천장씩 그려내야 하는 것은 고행중에서도 상고행에 속한다.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불화 그리기에 전심전력하는 스님의 모습은 그자체가 살아 있는 법문이다.

"무슨일이나 다 그렇지만 단청과 불화는 신심이 밑바탕이 된 정성이 제일이야. 수십 수백년동안 사찰을 장엄하는 단청과 불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경배하는 성스러운 대상인데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불조에 죄를 짓는 것이지. 옛 불화나 단청을 보면 빛은 바랬어도 얼마전에 그린듯 생생한 기(氣)가 느껴져. 그만큼 지극한 신심으로 조성한 것으로 그런 불화는 한없이 바라봐도 그저 환희심만 날 뿐이지."

불화에 처음 입문한 사람은 수행자의 초발심 같은 끝없는 인내와 수행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구도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선 긋기 부터 시작해 불화를 배우는 기초과정을 제대로 습득하는데만도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니 웬만한 인내력 없이 불화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불화를 스님은 80여년이 훨씬 넘도록 그리고 또 그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스님, 그림 그리는 것 말고 따로 하시는 것 없으세요? 뭐, 책을 보신다든가 그런거요."스님께 다시 여쭈었다.

"없어요. 그냥 그림만 그려. 다른 건 뭐." 스님은 무심히 답을 하신다.

스님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 중간에 제자들이 오가는 것도 챙기고, 작업에 대해 이것 저것 지시하면서 그 순간조차도 그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만봉스님은 이날 경기도 이천의 한 절에 모셔질 신중탱화의 초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직접 초를 손보기 위해 약상자같이 생긴 깡통상자에서 목탄을 꺼내 나무꽃이에 끼우고, 탱화 윗부분의 구름을 천천히 천천히 그리기 시작했다.

9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혜국스님께서 살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끈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만봉스님은?

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평생 불보살세계 장엄



92세의 나이에도 국내외를 오가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는 만봉스님은 190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8살 되던 해 당시 유명한 금어(金魚)였던 봉원사 예운스님의 문하에 들어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저 불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나고 좋았다"고 회상하는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실력을 연마한 끝에 18살에 금어의 경지에 이르렀다. 금어가 되면서 봉원사에서 정식으로 출가해 불교전문강원에서 공부하고, 봉원사 범패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월하스님께 범패까지 배웠다. 그런 연유로 영산재 보존을 위해 1966년 결성됐던 옥천범음회의 회장직을 맡아 1972년 영산재보존회가 생길때까지 6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스님은 1972년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에 지정되었다. 태고종 서울교구 종무원장도 역임했으며, 지난 1998년에는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 제127호 수훈을 받기도 했다.

현재 봉원사에 모셔진 탱화는 모두 스님이 그린 것이다. 전국의 사찰에 모신 불화뿐 아니라 남한산성, 경복궁, 경희루, 남대문, 종로 보신각 등 고건축의 단청도 맡아 했다. 스님이 그동안 배출한 제자는 수백명이 넘지만 86년 전승공예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정자씨를 비롯, 이인섭씨, 미국인 브라이언베리씨 등이 맥을 잇고 있다.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그 누구보다 진지한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장엄한 불보살의 세계를 화폭에 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스님의 작품은 내년 쯤에야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스님은 지난해에 부산에서 열었던 전시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자료도 제대로 만들고 해서 내년 쯤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너무도 유연하게 구름을 그려냈다. 채색작업도 마찬가지였다. 빨강색 물감을 묻혀 바탕에 색을 입히는 손놀림이 너무도 부드럽고, 섬세했다. 스님과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돋보기 하나 없이, 바닥에 앉아 탱화를 뚫어져라 응시하며 붓을 옮기는 스님은 옆에서 지켜보는 이조차 삼매에 들게 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입버릇처럼 좀 더 젊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다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도 많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이란다.

그림에 대한 스님의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다. 제자들은 한결 같이 말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나, 깨나 오직 그림만을 생각하고, 그림에만 몰두하는 스님의 모습 그 자체가 저희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입니다. 어쩌다 몸이 안 좋으실 때는 링겔을 맞아 가며 작업에 임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스님을 보면서 조금 힘들고 아프다고 게으름을 피운 저희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몰래 화실에 가서 그림만 그리다 조용히 집에 가기도 하지요."

제자들이 혹여 바쁘다는 이유로 물감그릇을 쟁반에 받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들고 오거나, 모르고 탱화 위를 밟고 지나가기라도 하는 날엔 호통이 이만 저만이 아닐 정도로 그림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보다도 엄한 스님이다. 반면 평소 때는 친할아버지처럼 제자들을 다독거려 주시고, 가끔 유머가득한 이야기로 제자들을 즐겁게 만들기도 한다.

평소보다 늦게 화실에 도착한 제자에게 "어디 좋은데 갔다 이제 왔어" 하며 먼저 말을 건네기도 하고, 행여 젊은 남자 제자들이 문틈을 엿보고 있으면, "뭐, 거기 누구네 각시 있을까봐 그래?"하기도 하고, 혼기를 놓친 나이 많은 여 제자에게는 "어여, 시집 좀 가, 언제 갈라고 그래?"하시며 은근히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스님은 스님의 집이자 화실인 '만봉불화전시관'에서 제자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면서, 불화에 대한 모든 것을 지도 한다. 새로 입문한 제자에게는 초를 그릴 때 불보살의 눈을 특히 신경써서 그리라 일러주시고, 어느 정도 초를 그리는 데 능숙해진 제자에게는 반드시 3천장을 그려야만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끊임없는 수련을 강조하신다.

1년 3개월째 시왕초를 그리고 있는 제자 박나연씨는 "제가 시왕초를 6백장 쯤 그렸을 때 스님께 가져갔더니, 3천장은 그려야 그림이 바보같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3천장을 그리라고 당부하셨죠. 90이 넘은 할아버지 스님께서 제 눈을 바라보시며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스승님을 내 평생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엔 주말만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올해부터 하던 일 다 접고, 스님 밑에서 일심으로 그림 배우기에 전념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현재 스님의 문하에는 입문한 지 두 달도 채 안된 초보 제자에서부터 10년이 넘은 고참 제자까지 20여명의 제자들이 그림을 배우고 있다.

스님은 또한 불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항상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불화를 그리기 전에 항상 몸과 마음,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점검하여 바르게 한 후에야 작업에 임하라는 것이다.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것이지만, 불보살을 그리는 불교그림은 마음 자세가 바로 잡히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님께 옛날 스님이 공부하던 시절과 요즘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여쭈었다.

"요즘 제자들도 하라는 대로 다들 잘 해. 그런데 허다 말고 달아나는 이들이 많아. 한번 시작해서 배우면 몇해고 꾹 참고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나 이만 하면 다 배웠으니 나가서 하겠다 하고 가는 거지. 나가서 뭘 하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 능숙한 경지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돈벌 궁리부터 하는 거지. 이만 하면 내가 돈 벌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 땜에 문제야.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돈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시방 공부하는 이들은 돈이 가깝지, 공부는 뒷줄에 서는 거야. 스승님들 하시던 말씀이 공부하는 사람은 돈 생각하면 공부 못한다 하셨는데 돈은 잊어버리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도 못했는데 누가 돈을 갖다 주냐 이거야."

스님은 무엇이든지 돈이 척도가 되는 요즘 현실이 안타까운 듯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불사에 참여하면 할수록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는 스님이기에, 조금 기술을 익혔다고 나가는 제자들은 바라보는 스님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작업에 임하지만, 마치고 나서 돌아보면 항상 좀더 정성스레 제대로 불보살님의 모습을, 그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살다보니, 불화조성이 평생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임을 스님은 깨닫고 제자들이 좀더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단청과 불화를 그리는 동안뿐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항상 부처님이 함께 있다고 믿는다. 아니 스님의 삶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한 가운데 부처님이 항상 하신다고 믿는다. 불화를 조성할 때면 꿈속에서 조차 극락정토의 부처님을 만나고, 지옥문 앞의 지장보살을 만나고, 한량없이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면서, 그림 속에 부처님의 세계를 온전히 옮겨놓으려는 자신의 끝없는 서원을 확인한다.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서도, 공양하는 중에도, 오로지 그림에 대한 일념으로 하루 하루를 지탱하고 있는 만봉스님.

"오랜 작업 끝에 한껏 위엄을 갖추면서도 자비로움이 가득한 부처님이 웃음을 지으며 회폭 위에 나투실 때, 그 환희로움이란 말로 다 할 수 가 없어. 그 때부터 그 불화는 내 몫이 아닌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은 그 부처님을 향해 경배 드리는 불자 저마다의 마음 바탕에 달려 있는 거지."

글=이은자 기자 ei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한치의 떨림 없이 붓을 옮기는 스님 지켜보는 이마저 삼매에 들게한다



◇영산재 시연에 직접 참가한 만봉스님(윗줄 우로부터 여섯번째).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옥천범음회 회장직을 역임하기로 했다. 사진=선암스님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혜우스님

사람을 만나는 일이 때로는 전광석화처럼 빠를지라도 그 짧은 해후가 빗발처럼 깊이 스미는 인연이 있다. 오래도록 삶의 언저리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인연 말이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인연은 애달프고 가슴 아리다.

혜우스님을 만난 것은 강원을 졸업하고 해인사 선원에서 첫 철을 지낼 때다. 그 때 나는 학인 딱지를 막 떼고 선원 문턱에 들어선 초참(初參) 선객이었으므로 여러 가지로 수선(修禪)에 서툰 점이 많았다. 그 시절에 본 혜우스님은 법랍은 나와 비슷했지만 승행(僧行)은 군대의 선임하사처럼 빈틈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엔 선원의 가풍을 어지간히 부러워했던 것 같다. 안거가 시작되면 구름처럼 산중에 모이는 선객들의 질서도 좋았고 무엇보다 칼날처럼 번득이는 형형한 눈빛이 부러웠다. 호랑이와 한판 승부를 앞둔 포수의 눈빛 같이 살아 있었다. 어찌 보면 한 철 정진은 화두타파를 위해 목숨을 거는 전쟁터와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은 수행자의 기상이 올곧게 서 있다는 것과 통한다.

혜우스님이 바로 그런 수행자였다. 나는 첫눈에 그의 눈빛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깊고 고요한

해인사 선원서 첫 만남
눈웃음 아름다웠던 사람

눈빛을 보면 금새 그 사람에게 동화되어 버리듯나 또한 그의 사상에 쉽게 동화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특히 혜우스님은 눈웃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 웃음이 그를 더 돋보이게 만든 배경이 된 것일까. 같은 수행자가 보아도 그는 늘 훤칠하고 기품이 있었다. 결코 요란하지 않는 수행자의 조촐한 멋을 지니고 있었다. 수행자의 멋은 옷의 치장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에서 오는 것임을 그를 통해 비로소 알았다.

하루는 빨래를 말린 후 손질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 주머니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주머니가 달려 있었지만 주머니 입을 실로 기워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수행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도 안되고 주머니에 물건을 넣는 것도 아니란다. 그말을 듣는 순간 내 의식 속으로 섬광이 지나는 것 같았다. 무소유 정신 때문이 아니었다.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엄숙한 태도가 내게는 어떤 가르침이었다. 그 날 진지하게 말하던 그의 표정이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눈에 선하다. 그는 또 수염이 많았다. 그래서 별명이 '산적'이다. 보름에 한번씩 삭발을 하곤 했는데 삭발날이 가까워오면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가득 찬다. 양쪽 볼에까지 수염이 자라면 그는 도적떼를 몰고 온 산적과 흡사하였다. 그런 그가 삭발날 깨끗이 수염을 깎고 나면 잘생긴 '기생오라비'가 된다. 그를 볼 때마다 수행자는 삭발을 깔끔히 하여야 인물이 제 몫을 하는 것을 느끼겠다. 삭발한 날 밤이면 우리는 뒷산 소나무 숲으로 간다. 소나무 가지에 걸려 있는 보름달을 보고 그는 노래 한 곡을 부른다. 달빛을 타고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소나타가 되어 밤하늘에 퍼진다. 그는 이처럼 때로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 곁에 있었다.

혜우스님은 집안의 3대 독자라고 들었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 스님들이 자주 찾아와서 법문을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 노모의 불심도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귀하게 키우던 아들의 출가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아들이 출가하여 공부하는 일이 집안의 대를 잇는 일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쳤단다. 그래서 그는 출가 후 강원 공부 대신 선원에서 그렇게 마음의 실체를 찾아 피나는 정진을 하였는지도 모른다.

안거를 마치고 그가 내 사는 곳으로 찾아온 적



이 있다. 하룻밤 같이 자면서 목이 말랐는지 새벽녘에 냉장고 문을 열고 무언가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닌가. 마침 그 날은 냉장고에 날짜 지난 우유 밖에 없었는데 어쩌나 싶었다. 잠시 후 그는 배를 부여잡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새벽녘부터 동틀 때까지 해우소를 몇 번이나 드나들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 뒤 나는 그의 부음을 들었다. 그 때의 그 우유가 자꾸 목에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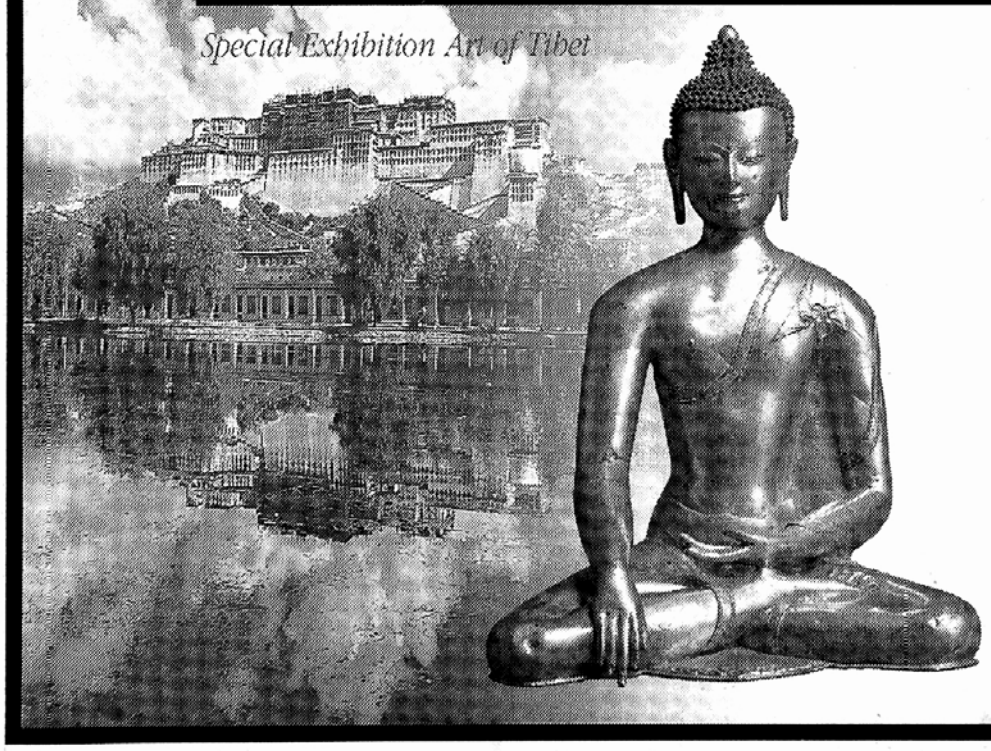
춤추는 이는 떠나버렸으나 춤만이 남아 있고 노래하는 이는 떠나버렸으나 노래만이 남아 있다는 말처럼 혜우스님은 불의의 사고로 훌쩍 우리 곁을 떠나버렸으나 미소만은 지금까지 내 가슴에 남아 있다. 한 수행자가 남긴 삶의 향기는 남은 자에게는 두고두고 나침반이 된다. 그 어떤 어록보다 간절함이 묻어 있는 가르침으로 다시 살아난다.

혜우스님을 떠올리면,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나 알고 지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알고 지내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겠다.

이번 호부터 3개월간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현진스님은 1983년 이두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해인사 강원과 송광사 율원을 졸업하고 해인사 등 선원에서 정진하였다. 수필집으로 〈삭발하는 날〉과 〈두번째 출가〉를 펴냈다. 현재 월간 '해인'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하늘에 맞닿은 불교왕국 티벳 특별전 개최

Special Exhibition Art of Tibet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티베트 불교유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순박한 삶과 종교가 만들어낸 신비로운 티베트미술의 아름다움을
푸르름이 더해가는 산사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개막일시 : 2001년 6월 25일(음 5. 5) 월요일 오전 11시
전시기간 : 2001년 6월 25일~9월 17일(3개월간)
관람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전화 : 055) 382-1001, 384-0010

특별행사로 티베트스님들의 만다라 제작시연이 7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시기간 동안 전화로 예약하는 사찰단체에 한하여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 하 합장

통도사 성보박물관 TONGDOSA MUSEUM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http://www.tongdomuseum.or.kr
■ 6월 25일(음 5. 5) 오전 9시 30분에는 박물관 삼층석탑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법회가 있습니다.



◇통도사 사명암 석가모니후불탱.

채색시주 전통 아시나요?

통도사 성보박물관 '탱화불사'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조선시대 불자들 사이에 성행했던 채색시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내일의 문화재를 조성하기 위한 '탱화불사 채색시주'를 펼치고 있어 화제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조성된 우리 전통 불화들은 석채(石彩)안료로 조성되었는데, 이 석채는 요즘 사용되는 화학물감과는 달리 천년이 지나도 색상이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돌가루에서 추출한 안료다.

통도사 대광명전의 비로자나후불탱화를 비롯해 석가모니불후불탱화, 노사나불후불탱화 등 통도사의 탱화들은 모두 이 석채를 사용해 그려진 까닭에 오랜 세월동안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

현재 통도사의 탱화들은 도난과 훼손의 위험을 피해 사진으로 교체돼 걸려 있는데, 이번 채색시주는 사진으로 교체되어 있는 이들 탱화를 석채안료를 사용하는 전통기법으로 새로 조성하여, 천년 후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보로 삼기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석채를 이용한 탱화 조성은 워낙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불자들은 탱화에 사용될 석채 구입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하는 채색시주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냈는데, 탱화불사에 필요한 바탕시주, 흙물시주, 금박시주, 채색시주, 목물시주 등 다양한 시주가 조선말기까지 행해져 왔음이 괘불화기에 생생히 기록돼 있다.

석채견본 진열
시주자 색 선택
석정 스님 조성

석채안료 사용
전통기법 재현
'천년후 성보로'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이미 단절되어 버렸고, 오늘날 탱화조성에는 대부분 서양에서 들어온 화학물감이 사용되고 있어 불과 50년도 못가서 다시 조성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결국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탱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난해 해인사 자운 대율사 스님의 영정을 석채를 이용한 전통 채색방식으로 조성한 바 있는 동국대 송영방교수는 "석채로 조성한 불화는 그 색이 바래지 않고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월을 거듭할수록 아름답게 발색되어 나중에는 고분벽화와 같은 장중함까지 느끼게 한다"고 전통 채색의 장점을 설명했다.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에는 이들 석채 견본이 진열돼 있는데, 시주자들이 직접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 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법하스님은 "후손에 남길 문화재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신 석정스님이 직접 탱화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비로자나불탱화조성에 이어, 노사나불탱화, 석가모니불탱화 등도 단계적으로 채색시주를 통해 새롭게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o.com

누구나 부를 찬불가 만들자

조계종 제3회 공모
10월 4일부터 접수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불가!'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창작 찬불가 공모대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심사기준이다. 조계종 총무원 창작찬불가공모대회운영위원회(위원장 혜자스님)가 새로운 방식의 심사제를 도입하고, 찬불가 대중화에 적극 나선다.

이번 창작 찬불가 공모대회는 악보만으로 심사하고 수상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1차 심사 통과작을 선별해 본선대회에서 직접 공연을 열어 수상작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불교음악인들과 불자들이 참여한 본선 공연에서 작품성은 물론이고, 가장 대중적인 호응을 얻은 작품에 수상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이같은 대회 방식의 도입을 통해 사부대중이 함께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창작찬불가대회를 이끌어 간다는 취지다.

창작찬불가공모대회운영위는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16일간 악보와 녹음 테이프로 응모작을 접수하고, 10월 31일 예선당선작 발표, 12월 1일 본선 경연대회 및 심사와 시상식을 진행하게 된다. (02)739-1830



김명국 달마도 첫 공개

'달마도'로 유명한 연담 김명국(생몰년 미상)의 또 다른 달마도 한 점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 관훈동 학고재 화랑에서 열리고 있는 '조선시대 명화 개인 소장품 특별전'에서 공개된 '달마도'(사진)는 선묘보다 묵법을 앞세운 수염과 눈썹, 그리고 빠른 붓놀림이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영원한 주제 '시간' (5)

구도의 비밀 만나는 통로 '현재'의 시간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생소할 수 있는 시간이란 주제를 연속적으로 다뤄본 것은, 그것이 우리들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바로 나 자신이 '시간'에 대해 생각하면서 문득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순간 내 속에 잠재해있던 알지 못했던 자아와 마주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현재'라는 찰나를 자각할 때, 일상이라는 진부한 반복이 깨지면서 낯선 시간과 공간 속에 실존하고 있는 자신과 마주친다. 나로서는 시간에 대한 생각은 곧 '이뭣고?' 화두와 동일한 것이었다. 처음엔 문학서적을 읽으면서 '시간'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그 실존적 경험은 나로 하여금 철학과 종교를 탐색하도록 만들었고 마침내 불교에서 그 경험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를 느끼는 순간, 일상의 단단한 지각을 뚫고 낯선 누군가가 깨어나 나 대신 의식의 자리를 차지한다. 주름살 속에 숨어있던 생의 이면이 갑자기 백일하에 드러난 것일까? 긴 잠에서 깨어나 '현재'라는 알다않은 시간의 상처를 뚫고 그 누군가가 튀어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신비 아닌 게 없다. 세상은 '난생 처음' 대하는 것 같은 새로움과 신기함으로 가득 찬다. 앞에 놓인 책, 종이, 글자, 들고 있는 회색 빛 찻잔의 부드러운 감촉과 향긋한 향기, 봄빛, 책상, 벽과 창문, 푸른 숲, 눈부신 하늘, 흰 구름, 지저귀는 새소리…, 매일 보는 광범하기 짝이 없는 보도블록과 아스팔트길조차 그야말로 그랜드 캐년 보다 더 장엄하게 다가온다. 나로서는 존재의 치명적인 이질성과 만나는 비밀통로는 '현재'라는 시간이었다. 현재를 움켜쥐면 시간은 물처럼, 모래알처럼 손가락사이를 빠져나가지만, 묘하게도 때로 시간은 '문득' 흐르기를 멈춘다. 그리고 모든 사물은 영혼이 불어넣어진 듯, 마치 만화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춤추기 시작한다.

이는 선사(禪師)가 노래한 '눈앞에 드리워진 실 한 올, 영원히 끊이지 않고 이어지네(面前一縷 長時無間)' 처럼, 여기 우리 눈앞에 그대로 있는 영감의 샘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다. 모든 날은 오늘이고, 한 순간도 현재가 아닌 적이 없다. 여기 이렇게 눈앞에 번연히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찾아 평생을 순례하는 것일까? 여기에 구도(求道)의 비밀이 숨어있는 것 같다.

시간의 문이 열리면, 갑자기 '지금'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여기'는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내 속엔 바다가 있고, 나는 바다 위에서 출렁인다. 존재의 멀미. 그리고 난데없이 엄습하는 심연. 앞에도 뒤에도, 밖에도 안에도 텅 빈 공간. 갑자기 투명해지는 사물들.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다. 달빛을 머금은 이슬방울 하나 속에 온 세계(帝網刹海)가 들어가 있다. 내 마음 속에 온 우주가 하나의 점이 되어 들어온다. 점심(點心)! 이렇게 시간체험을 불교에서는 '점심'이라 한다. (계속)

■문학명론가

법현 스님 선서화전

7~13일 법련사 불일미술관

30여년 간 붓을 도반삼아 수행의 길을 걸어 온 덕숭총림 임회 의장 법현스님이 7일~13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전시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는 소나무와 국화, 대나무와 매화, 난초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수묵화 50여점이 선보인다. 또한 수덕사 방장 원담스님, 전 종회의장 설정스님 등의 서화작품도 찬조 출품된다. 이번 전시회 수익금은 생명나눔실천회의 후원금으로 쓰인다. (02)733-5591



◇법현 스님 作 '목단'.

전시

북한 예술가 작품전

4~10일 삼정아트스페이스

북한 유명 예술가 작품 소장전이 4일~10일까지 서울 삼정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북한사리원 금강국수공장후원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 전시에는 인민예술가 정명만 화백의 '금강산'을 비롯, 김성호 화백의 '호숫가', 공훈예술가 최창훈의 '비룡폭포' 등 금강산과 묘향산의 풍광을 담은 작품이 선보인다. (02)735-5558



◇한상걸 作 '묘향산 하비로암'.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담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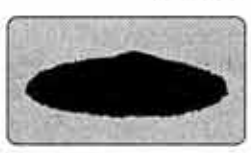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2kg





32종의 한약재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광물을 박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백일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4kg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금주 : 김남서

☎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진성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청옥, 황옥, 백옥)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청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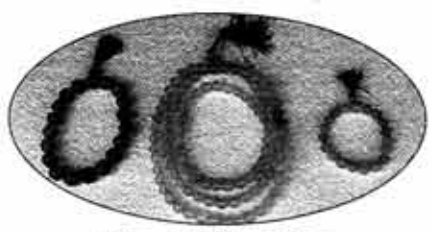
백 옥



황 옥



장수거북(청옥·화옥)



단주 · 108염주 · 합장주



두꺼비(청옥·화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

한국 화엄의 태두 생애 조명

낙산사 의상기념관 '의상의 사상과 신앙연구'



7세기 신라사회는 삼국간의 항쟁을 마치고 넓어진 영토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통일기의 중심에 서서 활동했던 수행자가 바로 의상(義相 · 625~702) 스님이다.

낙산사 의상기념관에서 펴낸 〈의상의 사상과 신앙연구〉(불교시대사)는 사상가, 구도자, 실천적 신앙인이었던 의상 스님 관련 논문 400여 편 가운데 12편만을 가려 뽑아 엮은 책이다. 의상 스님의 구도설화를 배경으로 창건된 낙산사에서 이 책을 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발상.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의상 스님의 행적을 탐구한 논문 모음이 아니다.

사실 수행자의 행적은 사상을 되비치는 거울이다. 한 사람의 사상은 그가 살던 시대상황 속에서 형성될 뿐 아니라 시대의식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상 속에서 그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생각을 그려보는 것은 역사적 사상 탐구 작업의 중요한 과제다.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를 보자. 이것은 신라 통일기 화엄교학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화엄사상이 근간이 되고 있다. 흔히 법성게로 부르는 이 게송은 지금까지도 〈화엄경〉의 대의를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불교를 이해하는데 있어 의상계 화엄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다.

'의상의 생애와 신앙', '의상의 화엄사상' 등 2부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의상 스님의 사상과 행적의 진면목을 추구한 한국불교학계 노력을 결집했다고 할 수 있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즐거운 직장생활이 성공인생

'나는 산사로 출근한다' 루이스 리치몬드 지음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의 증가에 따라 직장 문화가 점점 삭막해지고 있다. 스트레스와 갈등이 만연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신간 〈나는 산사로 출근한다〉(안의정 옮김, 도솔)를 쓴 루이스 리치몬드(美 명상가)는 직장 문화가 이렇게 변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우리 내부에서 찾는다.

예화와 사업 지혜 등이 골고루 섞인 이 책은,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성공이라고 적고 있다. 지은이는 직장에서의 위치나 업무 성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자신의 내면생활을 주관하는 책임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직장이 내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은이는 이런 주장을 간호사, 배관공, 택시운전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어떻게 직장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지은이의 불교적 세계관과 여러 경험에서 얻은 지혜 그리고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에서 내면생활을 풍족하게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방법과 직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값 7천9백원.

김중근 기자

3·1운동 불씨 스님들로 부터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혜봉 스님 지음



지난 93년 〈친일불교론〉을 내놓았던 혜봉(이천 지족암 주지) 스님이 이번에는 불교계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세세히 살핀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 운동사(민족사)>을 출간했다.

이 책은 크게 의병항쟁기에서 1940년대까지 의병활동을 한 스님과 의병전쟁 관련사찰, 항일운동을 한 스님과 재가자들 그리고 광복 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독립유공자의 현황과 항일공적 등을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채보상운동에 불교계가 적극 동참했다는 사실과 1918년 제주도 법정사의 항일무장투쟁은 3·1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1907년 일본에 대한 국채를 갚기 위해 민중들이 일으킨 국채보상운동에 가장 먼저 참여한 불교계 단체는 강원 건봉사 봉명학교 교직원과 스님 그리고 만일염불회. 이들은 1백46원76전을 나라 빚을 갚는 의연금으로 냈다. 대한매일신문과 황성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화장사, 금강산 유점사와 부

제주 법장사 무력투쟁 등 숨겨진 독립운동 밝혀내 국채보상운동 교계 주도

설학교인 유신학교, 합천 해인사, 공주 신원사, 경남 고성 와룡사 등에서 586명이 479원 11전을 기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자료로 남아 있는 통계일 뿐 사실상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사찰과 불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지은이의 견해다.

책은 또 3·1운동 5개월 전인 1918년 10월 제주도의 스님들이 봉기한 조직적인 무장항일투쟁에 주목한다. 법정사 스님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항일투쟁은 형량(주동자 법정사 주지 연일스님 10년 징역형을 비롯해 수형자 33명의 형량은 40년 6개월)과 체포된 수(68명)가 단일 항일 운동으로는 다른 항일투쟁에도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3·1운동의 전조라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이러한 사실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검사분국에서 작성한 '형사사건부'와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기재한 '수형인명부'를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서 찾아냄으로써 그동안 왜곡됐던 '제주도 법정사 항일무장봉기'가 항일의거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불교계에서는 의병항쟁기(1906~1909)에 경봉 · 운허 스님, 박순근 등이 항일 무장투쟁을 펼쳤고, 1910년 한일합방 직후에는 한용운, 박한영, 전진응 스님 등이 임제종을 설립하여 불교자주화 운동을 펼쳤다. 책은 불교계 전반의 3·1운동과 각 지역의 사찰과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만세 운동, 3·1운동 직후 임정 · 대동단 · 청년외교단 · 연통제 등의 조직에서 항일투쟁을 펼친 불교계의 활동,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 대구 동화사 등 지방 불교계의 3·1운동 진원지 역할을 했던 해인사 스님들의 만세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

그렇다고 불교계의 항일운동 사례를 조명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불교계의 항일운동가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의 활약상도 꼼꼼이 살핀다. 스님 출신의 항일운동가로 임정 내무차관을 역임한 김성숙, 3·1운동 · 만당 · 조선어학회 사건에 참여한 최범술 스님, 3·1운동 · 만주군관학교 · 만당 등에서 활약한 박영희 스님, 백봉 김기추 등이 주요 인물들이다.

이밖에도 이 책은 만해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을 했던 연일 스님을 비롯해 만해 · 용성 스님 등 건국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불교계 독립유공자 36명의 공적도 수록하고 있다.

지난 95년 순국지에 연재되었던 '항일불교론'과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발굴한 내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한 이 책은, 사료적인 가치도 높이 살만하다. 값1만5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항일 비밀결사 모임인 만당의 주역들. 뒤줄 우측 두번째부터 최범술, 김법린, 허영호. 앞줄 우측 첫번째 김상로, 네번째 장유문.

한글창제 · 상고사의 진실 추적

'금인' 김용길 지음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한글창제 배경을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 〈금인〉(김용길 지음, 명상)이 나왔다. 지은이는 중국 상고사를 연구하고 있는 김용길 씨. 그는 10여 년 전 중국의 금문학자인 낙빈기 씨의 고대 청동기에 새겨져 있던 문자를 해석한 〈금문신고(金文新考)〉를 공부하면서 '공자가 역사를 왜곡시켰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충격에 빠진다. 그리고 지은이는 "중국 문자 속에 들어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와 풍속 등을 문자로 풀어 밝혀낸다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고사와 고대 금문과 갑골문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한국어와 우리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그려 놓은 것이 중국 문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환단고기〉에 있는 가림토 38자를 간추린 것이 훈민정음 28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은 여진족의 선조는 누구인가, 한글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단군 조선의 영역 및 중국 상고사와의 관계 등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외시했던 상고시대 이후의 우리 역사 비밀을 파헤친다. 값 각권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번뇌 태우는 옥샘(지성 스님 지음, 옥천사= 경남 고성사암연합회장 지성(옥천사 주지) 스님의 법문집.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기초적인 교리와 선(禪) 등에 대한 31편의 법문들은 읽는 이에게 참 불자로 가는 길을 일러준다. 마치 자신의 일기를 쓰듯 써내려간 이 책은, 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단아한 어조로 들려준다. 수행력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글들이다. 값 7천원.



▲어둠의 타오이즘(무묘앙에오 지음, 박은혜 옮김, 모색)=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며 자신을 찾아온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밀스런 가르침을 폈던 무묘앙에오의 〈페허의 붓다〉 등 에오전집(8권)에서 요점만을 뽑아 만든 에오전집 핸드북. 철학 명상 등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어 에오의 독특한 사상을 사전식으로 살필 수 있다. 값 1만8천원.



▲자유로운 여성이 되라(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진정한 여성의 해방과 자유를 모색하는 오쇼의 여성 명상록. 64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강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남성우월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구조적으로 억압받아온 여성의 삶을 사랑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결혼, 가족제도, 여성해방운동, 명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값 9천8백원.



▲평설 열국지(전5권, 유재주 지음, 김영사=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550년간의 춘추전국시대를 다룬 대하 장편소설. 강태공, 공자, 손자, 진시황 등 난세를 헤쳐 간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이 소설은, 200여개의 고사와 100편의 일화가 녹아 있어 2500년 전 중원의 역사와 이 시대의 삶의 지혜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된 5권은 1부로 춘추시대 초 · 중반 시기에 해당된다. 이 소설은 모두 3부 13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값 각권 7천5백원.



▲신 탄트라-성에서 초의식까지(황금꽃)=탄트라의 가르침을 현대화한 책. 성에너지를 초의식을 변형시키는 법에 대한 인도의 스승 오쇼의 생생한 강의가 담겨 있는 이 책은, 제자인 버나드 권터가 수백권에 달하는 오쇼의 책에서 탄트라에 관한 내용만을 가려 뽑은 것이다. 또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탄트라 CD도 들어 있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값 1만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함미디어
2	선의 나침반	현 각	열 림 원
3	참회 참회 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4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5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6	순간순간이 항상 옳고 완벽할 뿐	정 경	하 남
7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8	묵조선 연구	김 호 귀	민 족 사
9	화두 놓고 염불하세	인 광	불 광
10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념회연구원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02)737-0695

어 른 과 아 이 가 함 께 읽 는 동 화

나의 작은 별 이야기

상상해 봐. 네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다가오게 될 때를.
그때 네 걸음 하나, 네 눈짓 하나 하나가 모두 기쁨이 되지 않겠어?
고개를 들어도 고개를 숙여도 온통 사랑뿐일 거야.
그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네 별로 보일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와 너는 어떤 관계인가?
마음의 연못에서 길어 올린, 존재와 사랑에 대한 샘물 같은 깨달음!



이 안 글/그림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십대에 불교에 입문하여 생활선(生活禪)을 수학했다. 집필과 출판일을 하며 존재의 본질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일반화·현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양장본·올컬러 /204쪽/값 8,000원

씨앗을 뿌리는 사람 SIAT Publishing Co.
TEL:(02)511-3495~6
FAX:(02)511-3498

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네 가지 약속

지치고 힘겨운 영혼을 자유의 삶으로 이끄는 특별한 약속들!

돈 미구엘 루이스의 글은 세속에 찌든 우리에게 휴식과 위로를 주는 '영혼의 해독제'이다. 당신은 이제 '네 가지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풍요로운 삶으로 초대된다.



5년 연속
아마존 비소설 부문
초베스트셀러

돈 미구엘 루이스 지음/ 정미선 옮김
양장본 · 올컬러/184쪽/값 8,000원

직지심체요절 最古 금속활자본

1900년 전후 프랑스인들 인정

1900년 전후 〈직지심체요절〉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프랑스인들은 이미 '직지'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직지는 1972년 유네스코가 개최한 국제 도서전에 출품되면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졌다.

직지 연구가인 이세열(주성대 중앙도서관 학술지원팀장) 씨는 최근 발표한 '직지의 성립 및 편성체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소장된 직지 원본의 겉표지에서 프랑스인이 직지의 간행연도를 1377년이라고 적은 기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 글에서 "겉표지 상단에 직사각형으로 찍혀 있는 스템프 안에는 1377년이라는 직지의 간행연도와 함께 1911년 직지가 경매에 붙여졌을 때 목록 번호인 711이 함께 쓰여 있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임을 확인하고 경매에 붙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70년대 이후 누군가가 써 넣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필체감정 등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 기원 9세기 후반"

'도의국사 생애와 사상' 세미나

조계종조로 추앙받고 있으면서도 전하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도의 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은 6월 29일 '조계종조, 도의국사의 생애와 사상'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육원장 직무대행 계성 스님은 "종조로서의 위상을 선양하고 조계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종조에 대한 추모와 선양의 새로운 기풍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선사의 생애와 선사상'을 발표한 성본 스님(동국대 교수)은 "도의선사의 선사상은 무위임운(無爲任雲)"이라며 "이는 사량분별의 조작된 작위성이 없고, 생사의 법을 초월하여 일체에 걸림없이 집착없이 본래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는 '나말여초 선문의 형성과 조계종'에서 "9세기경부터 나타나는 '선종' 시대 역시 6조 혜능에게 종조의 위상을 부여하는 점 등으로 봐 고려시대 등장한 '조계종'과 동일하게 인식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도의국사의 사적(史蹟) 연구'를 발표한 정영호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도의국사가 당에서 귀국한 뒤에 진전사에 주석했던 때가 9세기 초반에서 중반"이라며 "평면 정사각형의 기단부 위에 8각의 탑신부를 조성한 것으로 보아 진전사지 부도가 도의국사의 묘탑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팔만대장경 이체자 2만3천3백85자

인터넷 국제 표준문자 '가능성'

국제 한자표준회 회의 문자코드위 논의

팔만대장경 이체자가 인터넷상 국제표준문자로 인정받게 됐다. 지금까지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볼 수 있었던 팔만대장경을 전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됨으로써 팔만대장경 전산화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한자표준회의 문자코드 특별위원회는 6월 18~22일 홍콩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팔만대장경 이체자 2만3천3백85자를 포함한 2만9천1백7자를 새로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기술표준원은 "참여국가 대부분이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팔만대장경 고유 글자형이 곧 국제공인 서체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자의 글자형은 국제표준으로 인정된 것만 인터넷상에서 판독이 가능하다. 때문에 고서에 나오는 글자나 글자형이 다른 서체는 글자체가 깨져 인터넷상에서 읽을 수 없게 돼 있다. 팔만대장경의 글자형은 한자 사전에 나오는 글

프로그램 따로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

자와 뜻이 같더라도 부수나 획수 등 모양이 확연히 달라 이를 인터넷에서 상용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팔만대장경의 고유 글자형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려대장경 허인섭 연구실장은 "인터넷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니 코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팔만대장경 이체자가 국제표준으로 등록되면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인사 고려대장경 판본(보물 제972호).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의 원문 입력작업과정에서 밝혀진 이체자는 3만여 종이 넘는다. 〈고려대장경이체자전〉 편찬에 참여했던 이규갑 교수 등이 학문적 검증을 마친 2만3천3백85자를 이번에 먼저 신청했고, 나머지 이체자가 확인되면 12월에 열릴 18차 국제한자표준화회의에 제안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염희남 연구사는 "예전에는 각 나라에서 제안한 이체자 가운데 같은 글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일일이 사람이 하다보니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까지 2년 반 정도가 걸렸다"며 "국제한자표준화회의에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훨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팔만대장경 판각지 강화 아닌 남해"

문화재硏 박상국 씨 주장

팔만대장경 판각장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6월 29일 '고려대장경과 강화도' 학술회의에서 박상국(사진)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은 '강화도에서 경판을 새긴 다음 선원사에 보관했다가 조선 태조 때 해인사로 옮겼다'는 기존 통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 실장은 "대장경판의 간기와 각수 조사, 그리고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고려대장경은 강화 선원사가 아니라 남해에서 판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각수 조사를 통해 볼 때 같은 경전을 새기면서 동일한 각수가 대장도감이나 분사대장도감이라는 다른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새겼다고는 보기 힘들다"며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은 같은 장소이고 남해에서 판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채상식 교수(부산대 사학과)는 "굳이 같은 기관에 다른 이름을 붙일 이유가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시했다. 권형진 기자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보존수리 '옛모습 찾다"

방사선 투과 · x선 분석기 등 사용

조계종 중흥조 보조국사 지눌의 원불인 송광사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이 1년여의 보존수리 끝에 제모습을 찾았다. 불상 등의 목조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보존수리하는 곳이 없는 실정에서 보존수리 과정 하나하나가 일종의 '모범답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조삼존불감 보존수리에는 현대의 과학적 기법이 모두 쓰였다. 옻칠과 경첩, 고정 못의 재질분석에는 광학현미경과 X선 분석기를 동원했다. 3차원 스캐닝 작업으로 입체 실측도면을 작성했고 방사선 투과 조사로 삼존불감의 복장여부, 결합방법, 잠금장치 등의 내 · 외부 구조를 과악했다.

방사선 투과 조사와 일본에 있는 삼존불감과의 비교조사를 통해 중앙에 있는 불감의 본존불에 좌대가 조각되어 있다는 것과 투각장식이 착탈 가능한 분리형임을 알 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다.



◇보존수리를 마치고 제모습을 찾은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송광사 성보박물관(관장 고경)이 최근 펴낸 수리보고서에는 불감의 규모와 목재의 종류, 가공방법, 제작기법, 결합구조, 옻칠기법, 재질성분, 손상상태 등이 세밀하게 담겨있다. 목조삼존불감의 보수는 재일교포 보존수리 전문가 고준영 씨가 맡았고 경첩 제작은 금속공예 명장 조성준 씨가 맡아 했다.

목조삼존불감은 보조국사 지눌이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예불할 때마다 꺼내서 펴놓고 사용했다는 유물로, 당 나라에서 들어올 때 가져왔다고 전해진다. 권형진 기자

高僧 다시보기

자장 스님과 황룡사 9층탑

자장(慈藏)스님의 전기는 〈속고승전〉과 〈삼국유사〉에 실려 있으며 그밖에 〈황용사찰주기〉 등에서 스님에 대한 기록이 보이나 출생과 입적, 입당시기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구석이 많다.

흔히 자장 스님을 율사로 칭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계율뿐만 아니라 화엄사상 등 어느 불교사상에도 기울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재상의 물망에 올라 여러 번 왕의 부름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가시덤불로 둘러막고 앉아 움직이기만 하면 곧 가시에 찔리도록 하였고 끈으로 천장에 매달아 수행하는 고골관(枯骨觀)을 닦았다. 이에 왕이 노하여 스님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자 "하룻동안 계(戒)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백년을 파계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스님은 638년(선덕여왕 7) 무렵에 중국에 건너가 당태종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며 도적을 감동시켜 계를 주고 맹인을 참회시켜 눈을 뜨게 하는 등 수많은 이적으로 중국 사



◇통도사 소장 자장 스님 진영.

국통에 올라 불교교단 정비

동양최대 목탑 조성 원 세워

람들을 감화시켰다. 이러한 내용은 스님에게 보살계를 주었던 법상(法常)이라는 스님의 전기에 보이는데, 아예 〈속고승전〉의 저자인 도선(道宣, 596~667) 스님은 자장스님의 전기를 별도로 실었다. 자신보다 연하였던 스님과 현장스님의 전기를 설정했던 것은 그만큼 스님이 고승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신라 왕도 자장 스님에 대한 기대가 커서 643년(선덕여왕 12) 무렵 귀국하게 하였다. 스님은 온 나라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황룡사에서 〈보살계본〉 등의 경전을 강의하자 사부대중이 찬탄을 금하지 않았다. 스님은 나아가 승정기구의 최고직인 국통에 올라 당시의 불교교단 전체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스님의 국가와 민중들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으니, 스님이 643년 신라 3보의 하나가 되는 9층탑을 세우도록 건의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황룡사는 과거불의 칠처가람지(七處伽藍址)의 하나라고 전해지는 곳에 장육존불상(丈六尊佛像)을 봉안하여 553년(진흥왕 14)부터 17년간의 대 역사 끝에 완성된 동양최대의 사찰이었다.

황룡사가 조성되고 목탑이 새워질 때까지 4대왕 93년간 소요된 대 역사였으니, 이는 자장스님과 신라민중들이 그린 이상사회인 불국정토에 대한 염원의 표출이었다. 현재 남한이나 북한에서 탑의 조감도를 만들고 언젠가 복원할 계획에 있는 것 같으나, 자장스님의 높은 가르침이 진정 무엇이었는지 먼저 생각해 볼 일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농축액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응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빛의 생명에너지」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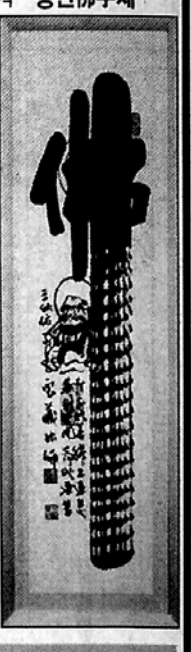
'마음 고운 禪房
불교 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 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음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붉자 용자)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m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희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돌탑아미타부처님영험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신광을 건지려 했으나 아직 연분이 없구나"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38)

(37) 무자진경(無字眞經)

신광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마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달마는 얼굴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윽고 달마가 입을 열었다.

"날더러 불법을 가벼이 보고 천대했다는 말은 당치도 않소. 오히려 그 반대라 생각하오. 대사야말로 불법을 경시하고 천박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구려.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해서야 되겠소이까. 내,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설명해 주리다. 대사께서 경전이나 설법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처님의 심인(心印)과 심법(心法)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자구나 제목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오.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사께서 참불법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이 말에 신광은 펄쩍 뛰었다. 앞에 있는 경상을 주먹을 내리치며 큰 소리로 힐문했다.

"무엇이라고? 내가 불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그렇다면 그대가 아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 보라. 나 대신 이 법단에 올라와 제대로 설법하지 못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달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부들부들 몸을 떨다

"나에게는 설법할 것이 없소이다. 다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一)'의 글자, '하나(一)'의 진법(眞法)뿐이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이 진법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기 위해 그 먼 서역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외다."

신광은 예상 밖의 대답에 잠시 머뭇거렸다.

"하나(一)의 글자라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오?"

"그 하나(一)의 글자는 수미산(須彌山)을 붓으로 하고 사해의 물을 먹으로 갈아서 천하를 종이로 삼더라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오. 그 하나(一)의 글자는 모양조차 그려낼 수 없는 것이오.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그리려 해도 그려낼 수 없는 것이외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하나(一)의 글자를 알아 그것을 그릴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생과 사를 초월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오. 본래 그 하나(一)는 형상이 없지만 춘하추동 사계절을 통해 항상 광명의 빛을 뿜어내고 있소. 이런 현중(玄中)의 묘(妙)와 묘중(妙中)의 현(玄)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일 것이외다."

신광은 도대체 달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농락당하는 느낌이 들어 몸까지 부들부들 떨었다. 폭발 직전에 이른 신광의 태도엔 아랑곳하지 않고 달마는 큰 목소리로 게송을 읊었다.

"달마는 원래 하늘 밖의 사람(達摩原來天外人) 불법을 강설함이 없이도 선을 이루었네(不講 法也成仙). 만 권의 경서가 모두 쓰임이 없고(萬卷經書諸不用) 단지 생사를 한 획의 끝에 매달았네(單提生死一毫端). 신광은 본래 강경을 좋아해(神光原來好講經) 지혜와 총명을 널리 사람에게 전했네(知慧聰明廣傳人). 오늘 달마를 만나 제도되지 않았다면(今朝不遇達摩渡) 삼계를 뛰어넘어 생사를 마치기 어려웠어라(難超三界了生死). 달마는 서쪽에서 글자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으니(達摩西來無一字) 오로지 마음으로 공부를 하여라(全憑心意用功夫). 만약 종이 위에서 불법을 찾으려 한다면(若從紙上尋 法) 붓끝으로 동정호를 찍어 말려도 소용이 없네(筆尖 乾洞庭湖)."

달마의 게송을 들은 신광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신광으로서는 일찍 이런 모멸감을 느껴본 일이 없었다. 신광은 급기야 이성을 잃고 말았다. 손에 들고 있던 철제 염주로 달마의 얼굴을 내리쳤다. 경전 한 글자도 강설하지 못하는 주제에 자기 같은 고승을 농락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신광을 받들던 승려들 역시 노기 띤 얼굴로 스승의 거동 하나하나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쇠염주로 얼굴을 강타당한 달마는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태연한 자세로 여전히 자비의 눈길을 신광에게 보냈다. 하지만 달마의 입 속은 피로 흥건했다. 앞니가 두 개나 부러졌기 때문이다. 달마는 입에서 배어 나오는 피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소맷자락으로 닦아냈다. 범인(凡人)이라면 당연히 입 속의 피를 뱉어내던가, 아니면 삼켰을 것이다. 그러나 달마는 입 속의 피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다.

입속은 피로 흥건

만약 피를 내뱉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달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우선 무엇보다 피를 본 신광과 승려들이 흥분할까 염려스러웠다. 이만한 일로 피를 내보임으로써 스스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싫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만약 달마가 피를 보이면 그것 때문에 이 곳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옛날부터 도인이나 성인이 무고하게 피를 흘리게 되면 그 고장에 3년 동안 가뭄이 닥친다는 속설이 있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일이었다. 달마는 바로 이 점이 걱정스러워 피를 입 속에 머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빠진 이와 피를 뱃속으로 삼킬 수도 없었다. 비록 자기의 피와 치아이긴 하지만 그것을 뱃속으로 넘기는 것은 오장(五臟)의 계(戒)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조사인 달마라고 해도 이런 경우엔 그야말로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입을 벌려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침묵을 지킨 채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최상책은 삼십육계의 도망치기인 듯싶었다. 달마는 쏜살같이 향산사를 빠져 나왔다.

급기야 이성 잃은 신광
들고있던 철제염주로
달마 얼굴을 내리쳤다



◇적광 스님 作 달마도(종이에 수묵, 45.5×60.5cm, 개인소장).

아무도 뒤쫓는 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달마는 비로소 한숨을 돌렸다. 입 속에 머금고 있던 이빨 두 개를 다시 제자리에 박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입정에 들었다. 순식간에 달마의 입안은 말끔히 치유되었다. 달마는 새삼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제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한 가닥 자책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떨궜다.

사실 양 나라의 무제를 제도할 기회를 잃은 것은 비단 무제의 무공덕(無功德)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었다. 이 점을 달마는 늘 안타깝게 여기고 반성했다. 게다가 신광과의 첫만남마저 어긋나고 말았다는 것도 못내 가슴아팠다. 물론 신광과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달마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만남과 헤어짐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달마의 속생각이었다.

달마의 '무공덕'에 관한 소설(所說)로 말미암아 참선 또는 좌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다. 무엇을 구하고자 좌선하는 것은 결국 무공덕이고 무소득(無所得)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다. 심지어는 무엇을 얻고자 좌선에 드는 것은 사도(邪道)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좌선이나 참선이 전혀 무공덕하다거나 무소득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좌선수행은 하면 할수록 그만한 소득이 따르고 공덕이 쌓이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제대로 앉아 있으면 하루의 부처가 되고 이틀을 앉아 있으면 이틀의 부처가 된다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좌선이나 참선에 들 때 무엇을 얻고자 집착하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는 참으로 얻고자 하는 것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 무공덕 내지 무소득의 진정한 깨우침인 것이다.

달마는 수행하는 이들이 삿된 방문(旁門)에 빠져드는 위험과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특히 신광의 그것이 너무나 두드러져 한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멀리 향산사를 돌아보며 달마는 시 한 수로 소회(所懷)의 일단을 풀었다.

"방문(旁門)이란 이렇게 한심스런 것이구나. 글자에 눈이 팔려 외우는 것은 불경뿐이요, 오로지 익히는 것은 구두선(口頭禪)뿐이다. 삶과 죽음의 참경계를 어찌 알 수 있으랴. 비록 수행하는 이들은 있으나 정법인 심인(心印)을 구하지 않고, 도를 깨우치려 하면서도 정법인 무자진경(無字眞經)을 찾지 않네. 패거리를 이루어 강설하고 남몰래 이상한 짓거리를 일삼네. 유불선(儒佛仙) 삼교인(三敎人)은 거의 모두가 초생료사(超生了死)를 구하지 않도다. 그 틋된 승도(僧道)에서 배우는 것은 두들기고 치고 염불이나 하는 것이라. 신광은 스스로 자랑하며 설법으로 재능을 삼는구나. 마치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듯 설법은 잘 하도다. 그것으론 성명(性命)을 마치기 어렵고 마침내 십전염군(十殿閻君)을 면하기 어렵네. 눈을 들어 방문(旁門) 안을 바라보니 무수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네. 심경(心經)을 보려 하고 진도(眞道)를 찾아 수행하는 이는 몇이나 되는고. 내 오늘 신광을 건지려 했으나 아직 연분이 없구나. 언제쯤 되어야 연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는지…."

신광의 속가성(俗家性)은 희(姬)고 이름은 광(光)이다. 희라는 성씨는 강(姜)씨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성씨 가운데 하나다. 대체로 성에 계집을 뜻하는 여(女)자가 붙어 있는 것은 모계사회의 유습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만치 가계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셈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적(寂)이며 이수(伊水)와 낙수(洛水) 사이에 있는 영양(榮陽) 호뢰관(虎牢關)에 살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선한 일을 해 왔고 적폐를 쌓은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후사가 없단 말인가?"

시 한수로 소회풀고

희적은 고민 끝에 부인에게 절에 가서 백일기도를 드리게 했다. 부인이 불공을 드리고 집에 돌아온 날 기이한 빛이 그의 집안을 비췄다고 한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기에 이름에 빛 광(光)자를 넣었다.

희광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영특했다. 사서삼경뿐만 아니라 도가(道家)의 경전들까지 두루 암송하여 신동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열 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는 모진 고난이 닥쳤다.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의 힘으로는 쇠락해 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울 재간이 없었다. 가난은 마침내 그에게 질병마저 안겨 주었다. 병마에 시달리던 희광은 약을 사 먹을 돈조차 없었다.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독서로 경륜을 쌓았다해도 병약한 몸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일찌감치 벼슬길을 포기한 그는 점차 불서(佛書)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그는 삶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는 불가의 현리(玄理)를 알고 나서 마음이 밝아졌다. 병마와 가난은 마음의 어둠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불문에 들어가 정진하기로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작별의 인사를 했다.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생

과정(대상)	프로그램명	개강일(인원)	교육일시	수강료	교육내용
사업주위탁훈련과정(고용보험적용사업장 재직자)	케어복지사 2급 교육과정	7. 9(월)(각 50명)	월, 수, 금 오전10:00-12:30 오후 7:00-9:30	총 4개월(월 수강료 10만원, 교재비포함) ※회원가입비 20,000원별도	사회복지개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 케어기술, 노인복지론, 케어복지개론, 작업치료, 정신건강, 기본간호, 상담심리, 임종케어, 응급처치론, 치매노인케어 식품영양학 등
일반교육(수강료 본인부담)	병원친절코디네이터	7. 10(화)(40명)	매주 화요일 오후 7:00-9:00	총 2개월(월 수강료 7만원)	인사예절, 의료인의 이미지메이킹, 대화예절, 올바른언어사용, 전화예절 등
	발건강관리사(foot health care)	7. 9(월)(각 50명)	매주 월, 목 오전10:00-12:30 오후 7:00-9:30	총 3개월(월 수강료 10만원)	발 건강교실의 개론과 역사(history), 리플렉스(reflex)와 발반사구, 음양오행의 원리(Ⅰ-Ⅱ), 순환의 원리, 예쁜 발톱관리 페디큐어 등
	카운셀러 기본	7. 11(수)(40명)	매주 수, 금 오후 7:00-9:30	3개월 45만원(2회분납 가능)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성격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사회심리, 상담기법, 집단위생, 심리검사, 상담실습, 감수성훈련이론 등
	카운셀러 전문	8월 개강예정	미 정	3개월 45만원(2회분납 가능)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재직자훈련과정을 위탁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는 수강료의 80%정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안내

1. 특전
- 케어복지사 2급과정 :
  - 사단법인 인증 케어복지사 아카데미 수료증 수여
  - 한국케어복지협회인증 케어복지사 2급 시험 응시자격 부여
  - 자격시험 합격자는 실습 40시간 완료후 자격증 발급
  - 본원 출신 케어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전문직취업 적극추천
- 병원친절코디네이터 :
  - 수강생중 강의 희망자는 평가에 의하여 강의할 수 있음
  - 수강일정은 토요일 오후로 변경 가능 함
- 발건강관리사(foot health care) :
  발건강관리사 자격증 수여 (한독민간자격협회)
  〈중국연수계획〉 ※ 중국위생부 예방의학회 고시합격과 동시 졸(결)업증 취득수강생중
- 카운슬러 (기본 · 전문) :
  - 법인 공인 카운슬러 자격증 수여

2. 교 육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20-3 한독중앙빌딩 5층 (지하철 / 종각역 1번 출구, 한일관 옆)

3. 문 의 사 항
☎ : (02) 733 - 7731, 7732
팩스 : (02) 733- 7736

사 단 법 인 한 국 인 간 교 육 원

종립학교를 가다

(4) 보문 중·고등학교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

불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삼귀의, 사홍서원은 종립 보문고등학교에서 나왔다.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은 바로 보문고등학교 2대 교장으로 30년간 학교를 위해 헌신한 故 이재복 선생이고 작곡가는 음악선생님으로 재직했던 최영철 씨다.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보문중·고등학교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충남 마곡사에서 열린 승려대회에서 당시 충남 불교청년회장이던 이재복 선생의 발의로 구체화되어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해방된 조국과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충남 지역 사찰들이 사재를 출연해 세워졌다.

보은교육 중시 … 1년 40권이상 독서

충남사찰 사재출연 세워
서울대 진학 평균 15명
사이버 도서관 운영
교직원 매주 신행담 발표

보현보살의 행원과 문수보살의 지혜를 본받자는 뜻에서 이름도 두 보살의 앞 글자를 따서 교명을 정한 대전 충청지역의 유일한 종립학교인 보문중·고등학교는 이사장 덕해스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현재 중학교 651명, 고등학교 1465명의 청보리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보문중·고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최고 명문 사학이다. 이는 고등학교의 진학률 하나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서울대의 경우 96년도 19명을 비롯해 매년 평균 15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지역 명문 대학인 충남대에도 95년도 236명 등 매년 평균 180명이 합격했다.

이같이 명문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데에는 보문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인성교육. 부모와 이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감사 보은의 날', 참 자아를 바로보는 '선 명상 수련 활동', 공동체 의식의 배양과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 신장시주는 학생주도형 전일제 클럽 활동, 학습주제 해결을 위한 소풍과 테마별 수학여행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습 부진학생들에게 정규 교과수업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게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고전 읽기 및 수준별 독서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보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학년별 필독 도서를 선정해 알려주고 독서감상문 콘테스트, 독서 논술 경시와 독서 퀴즈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2년전부터 도서관 업무를 전산화해 학생들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인터넷에 사이버 도서관(http://bogo.wo.ro/)을 운영, 논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도 학급 문고를 설치하고 매일 독서 시간을 정해 책을 읽고, 독서록을 만들어 학습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2주 1책 읽기 운동을 펼쳐 최소 1년에 한 학생당 책 40권 이상씩 읽고 있다.



◇보문중·고등학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을 통해 지역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 했다. 사진은 학교 법당에서 열린 대전지역 파라미타 신입회원 입회선서식.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신행활동도 왕성하다. 파라미타 학생회의 경우 중학교 180명, 고등학교 100여명의 학생들이 정기법회, 수련회, 지역뿌리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학부모로 구성된 한우리 어머니회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심을 키우며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직원들은 매주 1명이 신앙체험 또는 불교교리 가운데 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신앙조회를 열고 있고,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는 중·고 합동법회를 봉행하며 부처님과 같은 바른 스승이 되겠노라고 서원하고 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이웃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인재 양성의 도량인 보문중·고등학교는 교사, 학생 모두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⑥





• 스트레칭 •

선무기법은 생각을 비우는 방법으로서 동작을 통한 명상 즉 잡다한 생각을 끊고, 생각을 비워 적극적인 명상을 하는 것이다. 선무를 통해 잠재되었던 모든 기억력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그 과정 자체가 심층적 무의식 속의 우울증이나 스

번뇌끊고 생각비워
우울증·스트레스 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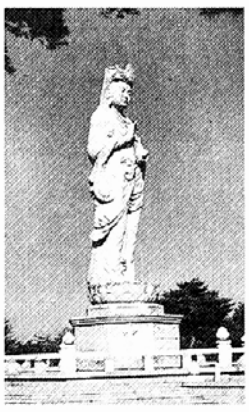
트레스, 척추 또는 전신에 오는 압박감을 풀어줄 수 있게 된다.

1. 숨을 들이마시며 단전부위를 볼록하게 밖으로 밀어내며 천천히 오른 무릎을 들어 가슴으로 가져오며 양손으로 무릎을 잡는다.
2. 숨을 내쉬며 '이'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양팔을 머리 위로 뻗으면서 오른 다리를 천장으로 향하게 한다.
3. 내면서 천천히 다리를 바닥으로 내린다.
4. 양팔을 옆으로 벌려서 양손을 단전으로 가져온다.
5. 바닥에 내려진 다리를 밖으로 돌려서 발과 무릎이 삼각형 모양이 되게 한다. 단전부위를 볼록하게 밖으로 밀어내며 다리를 시작한 자세로 가져온다. 왼쪽다리에 반복하면서 '뭐' 하고 소리를 낸다. 두 다리를 같이 시도하면서 '꼬'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무리 한다.

지역불교 문화기행

더위 식힐 동해 3寺 순례

7월: 건봉사·낙산사·등명낙가사·정동진역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의 길목에서 시원한 해안가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가는 삼사순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웅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일출이 장관인 등명낙가사에서는 인간문화재 유근형씨가 5년에 걸쳐 만든 오백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유명한 정동진역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세운 최초의 화엄도량 낙산사에서는 동양 최대의 해수관음상과 의상대사(사진)가 관음을 친견한 기도처인 홍련암을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길에는 염불만일회의 발상지이자 부처님 진신치아 사리가 봉안돼 있는 금강산 건봉사도 찾아갑니다.

◇출 발: 7월21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 비: 5만5천원(조식·중식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참되고 쓸모있는 인재 육성"

보문고 차세희 교장



"5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보문은 선·후배가 사제지간이 되어 사랑으로 이루는 교육의 장입니다."

보문고등학교 5회 출신인 차세희 교장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과 연구하고 신뢰받는 교사가 합심하여 브문의 역사와 전통을 세워나가고 있다며 이렇게 학교를 소개한다. 그는 또 지역사회 사학의 선구로 그동안 3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불교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진출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참되어라 쓸모있어라 끝까지'라는 교훈아래 건학이념을 생활화하기 위해 차 교장은 매주 월요일 그 주에 생일인 1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부모은중경〉을 가르쳐 부모, 이웃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있다. 또 '선 명상 수련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방만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효행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인성교육이 학력신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문 교육의 비결이라고 차 교장은 말한다. 그래서 차 교장은 앞으로 종립학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아리 탐방

파라미타 선우회

신행·문화·봉사 왕성한 활동 귀감



학생 자치 활동을 강조하는 보문고등학교에는 BESS, 만다라 등 보문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하며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는 동아리들이 많다. 그중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동아리는 바로 파라미타 선우회(회장 맹상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시키며 올바른 심성계발을 하기 위해 창립한 선우회는 회원만도 100여명이 넘는다.

파라미타 선우회는 매주 화·금 아침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심을 키우고 있다. 또 부처님 오신날 행사때 등과 장엄물 제작, 여름·겨울 수련대회, 봄·가을 사찰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점심시간을 활용해 회원들이 스스로 당번을 정해 법당을 청소하고 있고, 인근 법동 사회복지관에서 전 회원이 봉사대원으로 활동하는 등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대전지역 파라미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전통놀이 대회, 문화재 답사, 어울마당 등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다음 카페에 선우(cafe.daum.net/wearegoodfriend)방을 만들어 사이버 상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교법사실에서 김홍섭·신병훤 교법사

청보리 불심 지피는 보현



90년대 중반 새로 지어진 법당은 보문의 자랑이다.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해 대전지역 불자들이 십시일반 시주를 해 천불을 조성했고, 규모 역시 종립학교 법당 가운데는 최고이기 때문이다.

이곳 법당에서 미래 불교 주역들인 청보리들에게 불심을 지피는 보문중 김홍섭(사진 왼쪽) 교법사는 파라미타 학생회는 물론 한우리 어머니회, 중·고 직원합동 법회 등 불교활동을 이끌고 있다.

그는 또 대전 불교의 마당발로 통한다. 대전지역의 파라미타, 교사불자연합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했고, 보현불교대학에서 10년째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게다가 대전교도소 교화위원으로 매주 무기수와 장기수를 대상으로 불법을 통한 심성교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역 내 신행단체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에 붙은 애칭이다.

신병훤(사진 오른쪽) 교법사는 올해 초 부임한 신임 교법사다. 정부투자기관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했던 그가 이곳 보문 중학교로 오게 된 것은 대학시절 품었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아직은 학교 행정에도 익숙하지 않지만 청보리들의 불성을 키워주는 일이 즐겁기만 하다.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지옥도 불국토도 마음에 달려있다

자력과 타력이 결국 하나인지

문 어떤 사람의 글을 보았는데, 기독교를 타력종교라 하고 불교를 자력종교라고 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별해서 말한다면 하느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기독교 사상이고, 불교는 결국 하나하나 깨쳐 나가서 자아완성에 이르는 단계가 부처 경지다, 해탈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목적은 같은데 방법상에 있어서 하나는 위에서부터, 하나는 아래에서부터 하는 차이만 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답 자아완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부터 알고, 자기 자신을 믿고 거기에 일체를 일임하여 놓는 과정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마음의 컴퓨터 시스템에 과거에서부터 살아온 게 다 입력이 돼 있어서 하나하나 현실로 나오는 걸 다시금 나온 자리에 입력시키는 공부이고 과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좋은 결과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심성 생활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는 하는 소리가, 같이 오고 싶은데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형상을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다. 단 하나,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너로 인해서 세상이 벌어졌고, 너로 인해서 믿음도 생각을 하게 됐고, 너로 인해서 친구도 생기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느냐? 네가 없다면 무효가 아니냐? 네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학교에 공부를 하러 다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로부터 모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처는 바로 너한테 있는 것이다. 즉 그 주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너인 것이다. 역시 부처님도 너인 것이다. 이 도리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불응하고 또는 배척하고 이러는 거다. 지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생의 천차만별의 중생들이 지구를 벗어나서 사느냐, 지구 안에서 전체가 사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 지구 안에서 전체가 살고 있는데 한 발짝을 어디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종교 내 종교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뜬구름이 한 무더기 모였다가 그것이 헤어지면 또 다른 구름하고 모이듯이 한 생 살면서 몸을 벗으면 벗는 대로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으니 너희들 모두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기독교뿐만 아니고, 어떤 교를 막론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마음의 물리가 터진다면, 증득한다면 바로 부(父)와 자(子)가 만나고, 만남이 있다면 너의 씨가 바로 너에게 들어 있는 줄 알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둘이 아닌 나툼을 할 때, 무(無)의 세계와 유(有)의 세계를 한꺼번에 한 손에 쥐고 중용을 할 때, 비로소 참 자유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라고도 하고 자유인이라고도 하고, 참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면서 남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키워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도리를 완전히 터득해야 변함 없이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변함 없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으로 향하지 않고 밖으로만 찾는다면 그것은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20년, 30년 가도 나를 발견하지는 못한 단 말입니다. 증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내 마음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밖으로 찾지 말고 마음 안으로 믿고 찾아야 만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세상도 불국토입니까

문 스님께서 늘 만물만생이 법 아님이 없고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처이고, 불국토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의정이 납니다. 혼란한 지금도 불국토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인과 필연의 원칙에 의해서 진리 중의 진리인 불법이 미래에 불국정토를 이룬다는 말씀인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나로부터 만물이 벌어졌기에 주처는 각자 자기한테 있어

답 여러분이 알면 그대로 여여하게 불국토인 것이고, 여러분이 모르면 불국토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깨우쳐서 둘이 아닌 도리를 감지하고 이 세상이 공생(共生)으로, 공용(共用)으로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대로 불국토인 것입니다.

불국토가 아니다, 본국토다 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전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금속도 다 똑 같죠?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서 끌어다 쓰이는 데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것은 저런 것이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전력은 다 똑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본은 다 똑 같은데 모습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하고 사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불국토고, 그대로 아주 자유스런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우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 콧방귀 탁 뀌고 싱긋이 웃고 돌아가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로 하늘이 무너진다 한다면,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죽으면 어쩌나, 우리 식구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냥 발발 떨고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콧방귀를 뀌고 웃으면서 돌아서는 사람이라면 불국토일 것이고 또, 죽을까봐 벌벌 기고, 살지 못할까봐 채일까봐서 그냥 벌벌 긴다면 그거는 불국토가 아니라 지옥일테죠. 그래서 생각 하나 차이로 불국토냐 지옥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국토도 한마음에 있는 것이고, 지옥도 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일체 만물만생을 다 이끌어서 서로가 상응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이 불국토가 오직 여러분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되고 못되는 일의 차이

문 이 법을 알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는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인지요. 그러나 어떤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많이 붙이는 듯 합니다. 뭐가 잘되면 마음공부를 잘해서고 뭐가 잘못되면 마음공부를 못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르침 바랍니다.

답 그것이 아니에요. 잘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답답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안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안 되걸랑은 '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고 거기다 놓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그렇게 하면 찰나찰나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안된다고 생각될 때도 보세요, 차를 타고 갈 때에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릴 때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타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내리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둘이 아닌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언제 찾아옵니까

문 견성 또는 각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찾는 것과 같은 지요? 그리고 육조단경에는 견성을 단박 깨친, 그러니까 돈오돈수라 하셨는데 주인공은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것 인지요.

답 주인공 이 자체가, 즉 말하자면 전부 공생(共生)으로서 공용(共用)을 하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깐 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내 마음의 중심이자, 모두가 천 가지만 가지 마음으로 나와 돌아가니깐 공(空)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생멸에 대해서도 죽고 사는 게 없단 얘깁니다. 영원한 겁니다. 지금 주인공 찾는 것이 바로 수 억겁 광년 전서부터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근본적인 주인, 자기를 찾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것은 그냥 그대로죠.

그러면 돈오돈수냐? 돈오가 다르고 점수가 다르냐? 그게 아닙니다. 학과 도와 다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 교는 둘이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탑을 쌓으려면 하나 하나 돌을 갖다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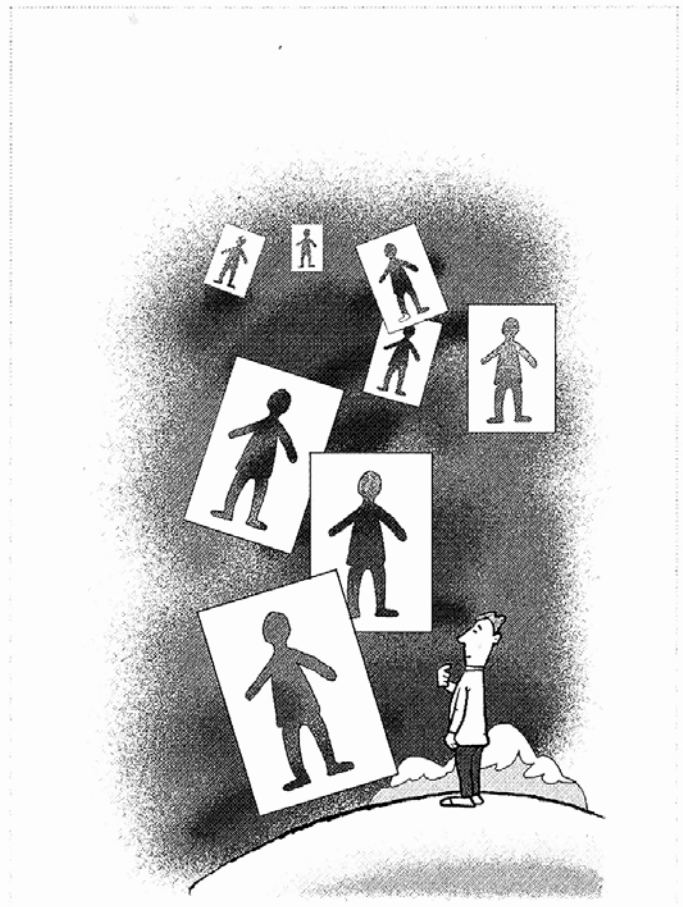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 돌을 갖다 놓는 과정을 점수라고 한다면, 탑이 완성 돼서 마지막 봉오라지가 딱 올라갈 때는 돈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탑 쌓는 데는 둘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모두가.

우리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시면, 맷돌에도 심봉이 있습니다. 심봉을 끼워야 아래 위 물질이 들어가서 갈리죠? 그래서 물질과 맷돌과 물과 모든 인연에 따라서 합세가 돼 가지고 돌아가서 물건이 갈려 나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갈려 나오지만 그 심봉은 움죽거리지 않아요. 심봉은 움죽거리지 않고 맷돌만 돌아가는 거죠. 그러는 데도 물질이 다 갈려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 심봉이라는 것은 힘을 가할 뿐이지 맷돌과 같이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주인공은 힘만 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서 돌아가는 거는 맷돌 돌아가듯 한다. 그래서 마음을 내서 이것을 해야겠다 하고선 맷돌에 꼭 물건 넣는 거와 같다. 물건을 넣어서 갈려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넣고, 또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도 그 심봉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기의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진실히 발견하라. 본래 없는 게 아니다, 찾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거니까 발견하라 하는 겁니다.

세 번 죽어야 하는 도리

문 스님의 법문집을 읽어보면 세 번 죽어야 하는 도리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 죽을 때의 변화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공부를 하여 단계적으로 죽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단계조차도 그냥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나를 발견할 양으로 모든 걸 거기다 놓고 들어가면서, 모든 걸 한 군데다 놓고 내가 고정된 게 없이 돌아가는 거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쑥 없어지죠? 용도에 따라 이게 됐다 저게 됐다, 한마음의 심봉으로 모든 게 돌아가니까 그 심봉을 따진다면 심봉은 어느 편에 설 수도 없으니까 없는 거죠. 심봉은 어느 편에 설 수도 없죠. 돌아가는 맷돌에 의해서 그냥 우뚝 섰으니까 어느 편에 선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깐 바로 거기까지 침투할 때까지 죽어야 한다. 그 어떤 길로 세울 수 없는 것이, 그 도리를 아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 째, 내가 죽어서 둘 아닌 도리를 알라고 했습니다.

세 번 째, 내가 죽어서 둘 아니게 나투는, 법신?보신?응신으로서 내 아님이 없이 나투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스님이 돼지를 건지시려고 응신이 돼 가지고 돼지 한테로 들어갔는데 너무 오래 있으니까 물이 들까봐 걱정이 됐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돼서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지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돼지가 알면 저항력을 느껴서 못 받아들이죠. 뱀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저 목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용신이 돼서 들어가야 용신이 제깍 받아들일 수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체 응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또, 두 번 죽어서 전체가 둘 아니게 돌아감을 알고, 모두가 내 아님이 없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나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 번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시 산다 하더라도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갈 때는 콩깍지가 익어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콩이 떨어지는데 콩이 익지를 않으면,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못해서 익지를 않으면 콩깍지가 익지 않은 거와 같아서 죽을 때도 그냥 병고에 휘갈리고, 콩깍지 속껍데기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깨닫는 것은 수월합니다. 아주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20년 30년 동안을 수박을 놓고서 '이게 뭐꼬' 하고 아무리 굴려보고 의정을 내도 수박은 수박인데 맛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죽고 사는 거를 버린 채 그냥 깨뜨려서 맛을 보는 것이 바로 일 단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아니면 우리 식구가 전체 죽는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이 도리를 발견하면 돌 위에 세워놔도 삽니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은 어떡하든지 먹이고 입히고, 어떡하든지 자기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부터 믿고 나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도 이끌어 나가고, 내 몸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맡겨 놓아야지 거기에서만이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만이 물리를 터지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우리들 친구니까 말입니다. 수 없는 과거의 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진화를 하고 이날까지 끌고 온 장본인이에요. 장본인부터 알아야 모든 바깥의 일들을 전부 알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들으리라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문 이 바쁜 세상에 생활인으로서 생활의 선법을 어떻게 해 나가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우리들의 몸뚱이 자체가 꽃 한 송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꽃잎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잎이 한 송이에 많이 붙어있죠? 한 몸뚱이에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이 있고 생명들이 있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귀합해서, 즉 말하자면 '주인공 자체다' 이렇게 자기 뿌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큰 일이 벌어졌든 작은 일이 벌어졌든, 우리가 종교를 믿지 않든 믿든,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바로 모든 것은 있는 것입니다.

잘되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못되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단, 이 세상에 자기를 형성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믿는 겁니다. 믿으면서 모든 거는 네가 형성시키고 네가 이끌어 가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맡겨 놓되 진짜로 믿는다면 우왕좌왕 하지 않습니다. 안달박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맡겨 놓고는 또 못 믿으니까, '아이구, 이것이 정말 되려나' 이러거든요? 그거는 건네 주었던 결재 서류를 도로 뺏는 거와 같애요. '이 서류를 다 좀 해결해라.' 해

☞ 20면으로 계속

가족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빈손·빈발 있기에 보이는 손·발 있어

☞ 19면에서 계속

놓고는 도로 가져오는 격이죠. 줬으면 해결하게 믿고 내버려둬야 될 텐데 그 서류를 도로 뺏는 격이란 말입니다. 못 믿으니까! 줬다가 빼앗다가 줬다가 빼앗다가 이러니까 일이 제대로 될 게 뭡니까?

그러니 진짜로 믿는 데서 여러분의 가정에 후환이 없고 애고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모든 업식이 무너지고 인과 응보가 무너지고 모든 영계성이 무너지고 세균성이 무너지고 생사 윤회에 끄달리지 않을 것이며, 모두 그렇게 되는 까닭에 편안함이 오는 겁니다. 삶의 보람을 얻고 삶의 자유를 얻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만날 이름만 부르고 이름을 믿고 간다면 그건 안됩니다. 주인공이라는 이름은 '얘, 아무개야! 물 한 컵만 다오.' 할 때처럼, 물 한 컵만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름이 붙은 거지, 실질적으로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 위해서 떠 가지고 오는데 이름은 하등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나 따로 있고 주인공 이름 따로 있고, 해 달라는 놈 따로 있고 해 주는 놈 따로 있다면 그건 안되죠. 과거에 살던 자기더러 현재 자기가 '하, 이놈아, 네가 살면서 다 저지르고 네 놈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뿌리, 네 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나를 형성시킨 것 아니냐. 네 놈이 형성시켜서 네 놈이 끌고 다니는데 네 놈이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하고 진짜로 맡겼을 때 그 참 자기가 나서서 일을 보는 겁니다. 따로 따로 있으면 안되죠. 과거에도 자기가 살았고 현재에도 자기가 살 겁니다. 모습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뀌질 뿐이니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님을 꼭 알고 밝은 주인공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 어떤 의미 있나요

문 스님 게송을 선법가로 만든 '빈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 때도 빈 손 갈 때도 빈 손, 올 때도 빈 발 갈 때도 빈 발"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고 가는 중에 현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무엇을 하러 나온 것입니까?

답 두 가지로 요약해서 표현을 해보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보면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은 없어지고 한 발 떼어놓을 때 한 발 또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발은 무(無)에서 한 발은 유(有)에서 항상 떼어놓고 가니까 내가 떼어놓은 사이가 없죠.

또 전력이 말입니다. 태양에서 전력을 끌어쓰는데 우리가 기계를 해 놨기 때문에 태양열을 받아서 전력으로 쓸 수 있죠? 장치를 해 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써 주장자를 완벽하게 세워 놓지 않는다면 태양열을 받아쓰려고 장치를 해 놓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태양열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는 말도 없고 들어오는 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태양열은 들어와서 흡러서 전력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빈 발 빈 손이라 한 겁니다.

무심 속에 무(無)의 세계, 정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유(有)의 세계, 물질 세계가 나온 것입니다.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눈 깜짝할 사이라 볼 수가 없죠. 가설을 해서 불을 켜고 끄는 것만 알았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못 보시죠? 못 보는 건 못 보는 건데 진짜로 빈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빈 발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 대천세계를 한 발로 디뎠고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발이 부처님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발입니다. 부처님 손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손이구요. 그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는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하셔야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 손이다 빈 발이다 하는 거, 없다 단정을 짓지 마시고 여러분이 빈 발 빈 손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보이는 손, 보이는 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알게 되겠죠.

마음 청정한데 왜 닦아야 하나

문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요?

답 닦아야 한다는 언어도 사실은 우매한 거지요. 닦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죽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고 하지만 우리 살아나가는 거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오신통이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니깐요. 자동적인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각자 앞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입력된 것이 현실로 또 나오는 거니까 닦는다 안 닦는다에 신경을 두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게 그놈이 한다는 것을, 보고 듣고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이 전부 그 한 놈이 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잘 생각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꿈을 잘못 꾸었다고 해서 큰일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쁜 꿈을 꿨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것도 너니까 잘 돌려서 현실에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너다.' 이러고 쓱 돌려 놓으란 말입니다. 본래 청정한 자리를 믿지 못하고 모르니까 그렇게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주인공은 같은가요

문 스님, 제 친구의 주인공과 저의 주인공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답 주인공은 똑 같애요, 생명이 같듯이 하나입니다.

예전에 어느 사람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더래요. 그런데 우물에 빠졌더래요. 돌로 쌓은 우물에 말입니다. 그런데 빠지다가 어디에 걸려 가지고선 어떻게 해서 붙들고는 그냥 애를 쓰고 있다가 그렇게 마음을 냈더랍니다. "얘, 아무개야." 자기더러 하는 소립니다. "진짜 네가 있다면 나를 살게 사람 좀 보내다오." 하고는 그냥 매달려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패랭이 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왔다가 물을 푸려고 두레박을 내려보내는 순간에 그 사람을 보고선 두레박을 내려보내서 그걸 붙들고 올라오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이 몸뚱이 '나' 가 진짜 나가 아니라, 이 몸뚱이는 바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먹여주고 움직여 줘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심부름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길잡이인 선장이 다스릴 수 있는 거는 속의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거든요. 의식들은 자기 자유대로 생각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깐 내가 생각을 하는 대로 따라주는 형상이죠. 악으로 나가면 악으로 따라주고 선으로 나가면 선으로 따라주는 그런 쓸모 없는 중생들이죠. 그러나 내가 잘 다스리면 쓸모 있는 보살로 화하죠.

그래서 조복을 받게 하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뇌 공장, 대장 공장, 위장 공장이 다 작용을 하고 돌아가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평등공법이 있는가 하면 또 수레공법이 있죠, 돌아가면서 작용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내 몸 안에서도 깨우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모든 마음이, 의식이 바뀌면 천백억화신으로 화한단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데 정신계에 모두 나가서 자기에 맞도록 일을 해 주고, 바로 이 몸뚱이는 보이는 데서 뛰고, 양면에서 작용을 하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마음을 조절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도리를 꼭 알아야만 됩니다.

악의 힘을 쓰는 이들이 많아

문 큰 빛을 세상에 보여주셔서 어두운 중생이 감사 드리옵니다. 아무리 본 성품은 만물이 다 갖추고 있고 다 평등한 자리라고 하나 세상에는 분명 삿된 기운으로서 악의 힘을 더 크게 쓰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을 본체의 주인공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답 내 마음이 스스로 밝아진다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게 되죠. 이 세상을 나쁘게 보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쁘게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쁘게 보지 않고 '아하! 이런 거로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좋게 돌리면 좋게 돌아가게 되죠. 그럼으로써 가정에도 화목이 오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나가서도 남들을 사랑하게 되고 남들 보는 눈이 달라지죠.

우리가 그 도리를 진정으로 안다면 돼지 소굴에 들어가서 돼지로 내가 며칠 동안을 산다 할지라도 물들지 않습니다. 또 강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강도가 돼 본다 하더라도 강도의 물이 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향기로운 내음이, 내음 없는 내음의 그 불빛이 너무 밝아서 그 캄캄한 강도의 마음도 녹일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쪽 사람은 모르지마는 공용, 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 자기 주인공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도가 내 집에 들어오더라도, 저 강도도 바로 나인 것이다, 육신은 나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니 둘이 아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치시켰을 때 한마음이 됐을 때 비로소 그 강도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코 둘은 둘인데 해칠 수가 없이 됩니다. 주인공으로 하여금 육신이 움죽거리는 건데, 그 마음으로 하여금 육신이 움죽거리는 건데, 그 마음이 스르르 녹는데 어떻게 칼로 사람을 찌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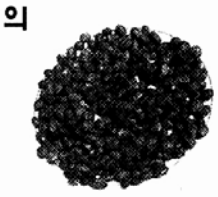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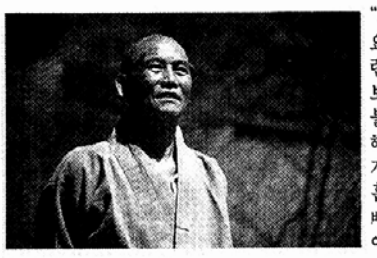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겨울과 같이 딴딴히 얼었다가도 일치를 하게 되니까 금새 봄이 오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본다면 겨울과 봄이 따로 기간을 두고 있지만 한순간에 겨울이 봄으로 된 겁니다. 그 강하게 얼었던 얼음이 그냥 순간 녹아 버리니까 물이 돼 버리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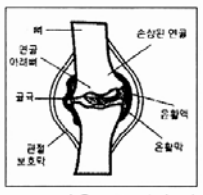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면 모두가 천국으로 보이지만 여러분이 모두 악으로써 병이 들면 모든 게 악으로만 보이고 도둑놈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도둑놈이면 어떻고 도둑놈 아니면 어떠랴? 나 걸음 걷는 것을, 다스려 가면서 올바로 진실하게만 꾸준히 걸어갈 뿐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만났던 사람, 인연 됐던 사람이 스스로 언젠가는 착해지고 언젠가는 그런 걸음을 다 떼어버리는 거죠. 더디고 이르고 그뿐인 것이죠.



그림 · 최주현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엽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번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적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쳐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닭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엣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강 대 진 압장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학인모집(통신생포함)
•과목 : 풍수, 역학, 침술 •자격 : 학력, 연령제한 없음
•각과정 : 6개월 졸업, 수료증 수여
•강사 : 스님 (불교대 및 승가대 교수)
•수업시간은 개인과 단체의 사정에 고려함
기숙하면서 공부 가능함
■법당단지내 : 휴양시설인 황토방찜질 사우나, 피부미용실, 커피숍, 노래방, 식당 있음
주소 : 전남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173
동나무 가든내 원동사, 승가대
☎ 061)334-9930
H·P : 016)639-9167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충대충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재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재즈의 클럭식곡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국내최초 태아 영가 도량인 구담시에서는 10주년을 맞이하여 태아영가 49일 천도재를 지냅니다. 미처 세상의 빛을 보기전에 생명을 잃어버린 태아는 부모 형제에게 원결이 되어 무주고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큰스님 모시고 천도재 지내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특히 대학입시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 입재일 : 양력 7월 7일 토 (음력 5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구담사 031)533-2855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목조, 석재 세척재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8금강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십왕탱 천왕탱 나한탱(오백나한) 신신탱 중화탱 독성탱
◇ 무속중화탱(각종족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TEL : 041)541-3545 H·P : 016)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200여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모 오 재 덕

원조 농산(어성초·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생즙 출시」(8월달까지)
어성초 · 삼백초 건강차와 동시상담
❖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 증가, 뇌졸증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등
서울지사 02)957-8342
508-0867
011)479-0633

효 심
본래로 가는 공세계 병고
액난은 업장이고 믿음이
지극하면 소멸합니다.
02)392-5801
02)392-5809

한글 의식
한글의식이 불교의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엄숙, 경건심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의식 등 각종
의식을 한글화 하여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인 의식을 원하시는 분은 부담없이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명상 수련 안내
苦 - 삶이 괴롭고 고달픈 것은 나로 인한 것이며
集 -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잘못된 생각의 기록물(업)로 인한 것임을 알고
滅 - 이것을 자기 스스로 소멸시키도록 인내하면서
道 -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인지, 결국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게 되어 진정 자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명상의 집 **SATSANG** 전화 031)768-7180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수원] 법 장 사
• 부설 > 동양학 연구원
- 사암 오행 침법
- 오운육기체질학
- 생활 동양 의학 (뜸, 부황, 추마, 선체조)
- 전통 명리학
• 연구생 모집 : 0名
※ 무료수강하시면서 공양주 하실분 구함
031)238-0444

금강경 10폭 병풍용
천일기도 성만 후 완성한
작품으로 불서를 위해 인
연있는 불자님께 드립니다.
지리산 약수암 무각 합장
063)625-6831
063)626-1098

산명 수료한 기도, 공부, 수양하기 좋은 곳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67번지 청강사
055)932-5706

생활재활교사 모집
소쩍새마을은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현재 지체장애, 정신장애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20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펴 주실 가슴이 따뜻한 분들을 기다립니다
◇ 자 격 : 3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 · 여성
◇ 근무급여 : 보건복지부 지침서(장애인 생활시설) 기준
◇ 접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이력서 각 1부
◇ 근무여건 : 시설 상주근무 ◇ 서류마감 : 2001년 7월 15일
◇ 접수방법 : 우편, 팩스, e-mail ◇ 면 접 일 : 개별통보
· 주 소 : 김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 2리 1320번지
· 팩 스 : 033)763-3730 · 문 의 : 033)762-9870
· e-mail : dongdong-a@hanmail.net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소쩍새마을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부전자리 찾습니다.
기도하는 스님
(비구스님)
011)576-2737

의정부 **운불련**
개인 콜 택시
전화 031)876-7070
Fax 031)876-8550

탈 종 공 고
사 찰 : 지성사 주 지 : 이계정(법명:정혜)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 1동 308-27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대한 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법하

사주 추명학 특강 30년
실제 체험 경력으로 속성지도
3개월. 스님 · 불자 환영
출가 상담
• 수강료 : 월 10만원
• 강 사 : 지원 삼장법사
051)722-7863
019)550-7863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877-7514

신(神) 환자
• 병명없이 아픈 사람
• 하는일 마다 실패보는 사람
• 神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 무속인 神처리 원하는 사람
• 귀신 神환자 전문 프로그램 의해 철저관리
극 락 정 사
대구 053)632-1877
※ 직접 방문하여 스님 친견 후 상담바람

『고급 흑단 염주를 아주 저렴하게 드립니다』
(직접 가공 함) **덕림 산방**
0 름 : 박정후
전화 : 061)337-4879
011)610-4879
주소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

사찰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대지 : 100평, 임법당, 방7개
• 특징 : 아파트단지 근처, 교통편리
• 가액 : 전세 5,000만원
월 10만원
017)206-0789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시 현곡면 남사 2리
• 대지 : 162평, 입법당, 산신각, 요사방 4개, 공양실 1개
• 가액 : 답사 후 결정
"기존 사찰스님 직접운영"
054)745-6966

사찰 안내
• 위차미국 뉴욕시 한인거주 지역
• 건평 : 60평 2층 건물
• 가액 : 미화 46만불 (5억 7천만원)
※ 정규이민 영주권 상담해 드림
0011) 212-244-1443
한국시간 PM 11:00~AM 7:00
미국핸드폰 718-986-8826
오성민 212-244-1443

사찰 안내
• 위치 : 구리시 교문동 아차산
• 대지 : 151평, 건평 : 약 50평
• 법당 : 25평, 요사채, 방 3개, 주방 1개, 욕실별도,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 8천만원 (은행융자 있음)
031)562-6905
016)464-6905

사찰 안내
• 대지 : 192평, 건평 : 90평
• 요사채 : 70평, 법당 : 20평
방 6개, 주방 3개, 거실 3개, 욕실 2개, 법당 단청, 미륵님 모심, 산세수려, 기도도량으로 최적, 노스님 병환으로 급매, 창건 6년 3억 5천 (절충가능)
031)952-7905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만덕 1동 지하철역 근접, 교통편리
• 평수 : 50평 공터 25평
• 구조 : 방 3개, 거실 · 주방 大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A급
• 가액 : 1억 5000만원
051)331-9937

포교당 안내
• 위차중랑구 신내동
• 평수 : 40평 4층 건물 4층 방 2 주방1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특징 : 법당시설 완벽함 주변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 밀집지역
02)436-3647
011)266-2378

사 찰 안 내
• 위 치 : 춘천시내 소재
• 부 지 : 5000평
• 법 당 : 30평 (목조)
• 요 사 : 40평 (2동)
※ 산세가 아주 좋으며, 서울 강남에서 1시간 30분 소요
• 양도가 : 3억 8천
• 위 치 : 부산 광역시 소재
• 부 지 : 1,3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40평 (2동)
※ 산정상에 있으며 부산시내 및 비디경치가 절경임
• 양도가 : 3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수원시내 소재
• 부 지 : 170평
• 법 당 : 40평
• 요 사 : 70평
※ 대단위 APT단지 인접한 도심포교당 사찰임 뒤는 산세좋음
• 양도가 : 3억 (융자가능)
포 교 당
• 위 치 : 서울 강북 (지하철역 200m)
• 법 당 : 50평 (3층 건물 중 2층)
• 요 사 : 방 3개
• 보증금 : 6천/월 400,00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 치 : 용인 시내 소재
• 대 지 : 460평
• 법 당 : 35평 (목조, 5포, 7포)
• 요 사 : 40평 (2동)
※ 뒤는 산이며, 전통사찰 임
• 양도가 : 4억 (분할가능)
02) 561-7791
018)273-9390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충남 소재
• 부지 : 200평
• 법당 : 40평 (목조, 단청)
• 요사 : 6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어우러진 청정도량으로 포교와 기도에 정진에 적합합니다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 부지 : 80평, 법당 : 20평, 요사 : 30평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는 절충)
특징 : 도심포교사찰로 적지이며 주변 경관이 수려함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연구소
전국에 소재한 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326-1060 053)624-2992
011)817-2836 018)689-0455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 법 당 : 24평
• 산신각 : 3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300평
• 가액 : 3억 2천
• 위 치 : 서울
• 법 당 : 20평
• 요 사 : 70평
• 부 지 : 500평
• 가액 : 5억
• 위 치 : 성남 분당
• 부 지 : 920평
· 차량 진입가
· 도심 근접하면서 조용한 입금 사찰 도량 임
• 가 액 : 5억 7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 (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 법당 31평 (목조 3포, 5포, 금단청필)
• 요사 : 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 명부전 : 10평 (단청필)
• 기타 :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 8억 (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융자 2억 가능함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 018) 689-045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 건평 : 120평
• 가액 : 총 5억 (융자 1억 포함)
교통 및 주변 여건 매우 좋음
• 불기구 (약 5천만) 무상제공
016)356-1133
031)446-113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남지
• 건평 : 법당 17평, 방 5개
• 요사채 : 9평 (큰방, 작은방, 주방)
• 특징 : 정원이 넓구 조경 수려
• 가액 : 4천 5백만원
011)550-9389

사찰 안내
• 위치 : 백호산 밑 마을 위치
• 땅 : 140평 • 건물 : 방 3개
• 특징 : 비구니 스님 조용히 있기를 원하시는 비구니스님분들께 적합
• 가액 : 2천만원
063)626-8458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근교 외진 곳
• 가액 : 6,500만원
• 전세 2300만원
• 대지 : 175평 (실사용 300평)
• 건물 : 1층 60평 방 5개 공양간 1개, 다용도실 10평 2층 25평, 법당
0502)789-6577

지리산 시조암 선원
• 위치 : 실상사 마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 : 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 : 1억 9천
• 특징 : 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암자토굴기도처최적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소나무 숲이 우거진 정남향 도로와 계곡 접하고 있는 준농림지 493평 벚꽃나무 가식제되었으며 전기시설 용이함
• 위치 : 경남 하동군과 산청군의 중간
• 평당예상가액 : 7만원
011)843-4773

사찰 안내
• 위치 : 양산 근교
• 대지 : 140평, 전 45평
• 법당 : 21평 (단청 필)
• 요사 : 3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7)845-9530

사 찰 안 내
• 위치 : 장호원 근교 • 부지 : 400평
• 법당 : 35평 (오포집)
• 요사 : 2동 45평 • 가액 : 2억 5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시
• 대지 : 총 970평중 450평 - 종교부지
• 요사채 60평, 인법당 (20평)
• 특징 : 경치수려, 바다 근접
• 가액 : 1억 5천만원
011)495-7754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청량군 정산면
• 사찰에서 거주하실 스님이나 매입 하실 분 전화 부탁 드립니다
• 가액 : 답사 후 절충
상세한 문의
041)855-2284 사무장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도로근접 동네를 끼고 있고 절 뒷면 등산로 심아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주차장 있음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평수 : 약 1,150평
• 법당 10평 요사 2동 주차장
• 가액 : 6천 5백만원
055)854-5205
017)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군 금광면 오흥리 (천지마을)
• 대지 : 75평, 밭 20평
• 건물 : 조립식 건물 20평
• 가액 : 6,500만원 (월세가능)
• 특징 : 예술인들이 살고있는 저택들 중 마지막 끝집
뒤와 옆은 산, 터앞으로 계곡물흐르고 금광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정남향의 전원주택
061)852-5357 (스님직접)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여주
• 대지 : 500평, 답 : 1,150평,
• 대웅전 : 30평
• 지장전 : 20평, 요사채 : 40평
• 가액 : 5억 8천만원
• 특징 : 1) 지장기도 영험도량
2) 자연 경관 수려 3) 경내석조불 및 조경 등 여법하게 장엄하였음
사찰전문용역 02)736-3578~9
금강기획 011)789-2255

사찰 안내
• 우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6만평 도량안에 (부지1800평)
• 동강 내리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방 8개 주방 법당이 되어있고 천탑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 건강관계로 급안내 • 가액 : 답사후절충
018) 533-7780

사찰 (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 4동 (신평리 4거리)
• 건물 3층 법당 (46평)
• 기존 시설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칠성부처님 (크기 3자), 문수 원불 52불, 관세음 보살 원불 30불, 대형 에어컨
• 요사채 : 방 3개 주방포함
• 가액 : 1500만원 보증금, 월 50만원 (가액 절충가능)
053)565-0430/016)875-0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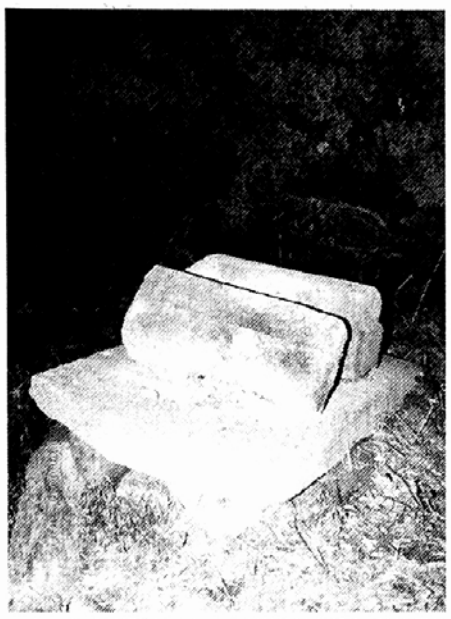
포교당 안내
• 위치 : 수원시 서문 도심포교원 (12년 전통)
• 4층 건물 3층 70평 "중"
• 법당 35평 큰방 4개 기타 현대식 시설 법당은 최고시설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가격절충)
011) 452-8374
031) 252-2796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아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찰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폭우속 도둑맞은 고려석탑

지난달 안성 3층탑 1기 사라져

비지정 문화재 많아 보호 시급



◇고려 3층 석탑의 도난으로 기단석만 남아있는 안성 죽산면 장계리 현장.

폭우가 내리는 틈을 타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탑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6월 20일 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에 세워져 있던 고려 3층석탑 1기가 사라졌다.

비지정 문화재인 이 탑은 30년 전 주민들이 장계리 남산기슭에 있던 탑을 마을 정자자리에 옮겨온 것으로, 높이 1미터가 조금 넘는 아담한 탑이었다. 탑이 있던 곳에서 1m거리에 살고 있는 장계리 주민 홍 모씨는 "새벽 2시에 차소리가 나서 잠을 깼지만 비가 내려 차가 도랑에 빠진 줄 알았다"며 "탑의 도난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안성의 죽산면 일대는 각종 석탑, 미륵당의 태평미륵과 봉업사지, 가솔리 쌍미륵과 궁예미륵 등 불교문화재가 산재해 있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라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장식용으로 개인 정원이나 목장 등에 옮겨지는 사례가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장마철에는 인적이 뜸하고 빗물이 발자국이나 차바퀴자국을 씻어주기 때문에 문화재도난이 잦아 이에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형진기자

부산 순국선열 추모열기

내원정사 · 진여원 천도재 봉행

부산 내원정사와 진여원이 각각 호국영령 천도재를 봉행했다.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6월 25일 제21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천도재 및 선망부모천도 지장기도 회향대법회를 봉행했다.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안상영 부산시장을 비롯한 1천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는 영령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발원과 헌화, 분향이 이어졌다.이날 고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것이니 호국영령들도 인연 따라 몸을 바꾸었을 뿐 본래 가고 음이 없어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일상생활중에 실천하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진여원(주지 주인)은 6월 22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호국 영령 위령제와 보훈가족 위안잔치를 봉행했다. 천미희기자

파라미타 국제캠프

25~28일 고성잼버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25일부터 3박4일간 고성 세계 잼버리 야영장에서 '부처님과 함께 즐거운 세상' 이란 주제로 '제 5회 파라미타 국제캠프' 를 연다. 국내외 청소년 2천5백여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에서는 모험 · 신행 · 참배 · 수상 활동으로 나눠 과정 활동이 진행된다. 또 '미디어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청소년의 대처방안' 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며, 폐영식날 이에 관련된 결의문을 발표한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연합 법회와 축제, 지도자 리셉션 등이 열린다. 신청마감은 10일까지이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02)723-6165

김주일 기자

부산 대불어 연꽃축제

초등생 4백여명 참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 부산지구(회장 지현)는 6월 24일 부산불교회관에서 제17회 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 4백여명의 부산지역 초등학생들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관세음보살님을 닮은 어머니' 라는 주제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날 참가어린이들은 포돌이 공연단의 축하공연과 사물놀이, 단소연주,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천미희기자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茶·도예 등 문화포교 특화

강화사암련 선암스님



경찰서 · 문예회관서 다도 강의

보문사 용궁제 · 판각지 답사도

"사찰특성에 맞는 용궁제 다도시연회 등 문화행사 시행을 통한 지역문화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강화도 13개 사암으로 이루어진 강화사암연합회 회장 선암스님(적석사 주지 사진)은 "불교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며 "불교전래의 관문이었던 강화도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를 위해 보문사 용궁제, 전등사 다도시연회, 백련사 다도, 무애원 도예, 연등국제회관 외국인체험, 강화포교당 어린이 청소년 포교, 선원사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답사 등 사찰별 특색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시행과 노인잔치, 부처님오신날 예술공연, 군부대 위문품 전달, 청소년장학금 지급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화사암련은 강화경찰서에 전통찻집을 만들어 경찰서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차를 시음토록 하고, 경찰서 여직원 대상 다도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강화문예회관에서는 강화사암련 주최로 백련사 주지 혜성스님이 일반시민 대상의 다도교육을 매주 진행중이다.

"사암련이 지역사회의 공통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스님과 신도들의 유대가 중요하다"는 스님은 "매년 9월 불교신도연합회 체육대회 행사에 사암련 소속사찰의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대거 참가하는 전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사암련은 앞으로 지역간 연대강화를 위해서 인천사암연합회와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역 군장병 포교를 위해 무애원에서 준비하는 여름수련회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암스님은 1975년 현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현재 강화시민연대 운영위원과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금산사 십선수련회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십선(十善)수련회를 개최한다.

금산사 십선수련회는 도영스님의 '금산사와 미륵신앙' 강의, 참선, 미륵삼부경 독송, 십악참회, 삼보일배, 1080배, 신선계수계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63)548-4440~2.

태고종

전북 종무원장 향산스님



전북교구 지방종회는 6월 26일 종무원사가 있는 전주 보문사에서 제40회 임시지방종회(종회의장 진관)를 열고 류향산 스님(사진)을 11대 종무원장에 선출했다. 향산 스님은 "승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라며 "위로는 원로, 중진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종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화합의 원칙아래 평등하게 종무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또 부원장에 법운스님(남원 관음사)과 승천스님(정읍 일광사)을 각각 선출했다.

진각종

11명 스승 기로진원

한평생 중생교화와 불법홍포를 위해 전력해온 소암 대정사, 심전화(도안심인당), 복지원(정경심인당), 백월화(정원 심인당), 정심화(진불심인당) 대전수 등 11명 스승의 기로진원 및 퇴임식이 6월 22일 경주 보문단지 내 아리원웨딩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각해 총인과 효암 통리원장, 혜정 교육원장, 휴명 종회의장 등 종단 스승들과 신교도 7백여명이 참석했으며 각해 총인과 효암 통리원장은 스승들에게 기념패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회당학원 가족체전

회당학원(이사장 지광)은 19~20일 1박 2일간 위덕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제2회 회당학원 가족체전을 개최한다. 이번 체육대회는 위덕대, 심인중고, 진선여중고 등 회당학원 산하 전체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 소속감과 일체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다와 함께 부처님과 함께 가자! 부다피아 캠프

태안반도 · 안면암 · 간월암 등지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 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4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무인도가 그림처럼 펼쳐진 기도도량 안면도 안면암, 백제의 미소가 아름다운 국보 서산 마애삼존불, 철새들의 낙원 간월암, 태안반도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서해안의 갯벌탐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1년 7월30일(월)~8월1일(수) 2박3일
◇장 소 : 태안반도 국립공원 안면도 안면암, 간월암, 서산마애삼존불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00명)
◇참가비 : 5만원
◇준비물 :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출 발 :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도 착 : 8월1일 오후 5시 조계사·봉은사
◇문 의 : 전화 0502-317-2555
02-722-4162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협 찬 : (재)보덕화회, 현대약품(주), 현대불교 신수회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봉은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선재이벤트



군산에 불가기공 '바람'

승월스님 일반인에 좌선·선무 가르쳐

군산지역에 불가기공 바람이 불고 있다.

성흥사 주지 송월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 포교국장)은 좌선, 선무공, 선체조 등으로 이어지는 불가기공을 통한 지역포교에 나서고 있다(사진). 군산불교회관에서 주 3회, 군산학생회관 주 2회, 군산 노인대학 월 2회, 성흥사 주 2회 개최되는 불가기공 프로그램에 일반인과 불자들이 몰리고 있다. 여기에다 비정기적으로 공군부대와 군산교도소 신행단체에서도 문화기공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 육임래정비법 -

「易術活人天役者用」 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총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낮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낮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학리를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위의 시간만 펼쳐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관단이 안되는 각종 유일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계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집이나 한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즉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인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따부러지게 알아 말해줄 수 있도록 안배해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남녀의 사정을 채출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집까를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남짝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에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九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器·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무속인·스님·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1900페이지·미색용지·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발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임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북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취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琴卜子 晩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래식물원에서 산성쓱으로 100M쯤의「기원정사」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 악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재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일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흔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부슨 병인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언제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치료기 순조로울지 나쁠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존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天物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 건강 상담 : 02)454-3733

둘러보는 '관광' → 공부하는 '순례'

답사문화 바뀌고 있다

지자체들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

관광공사 명예 통역안내원 구성

요즘 경주의 문화단체들이 무척 바빠졌다고 한다. 고도(古都) 경주를 찾는 외지인들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에는 말그대로 '관광(觀光)'이라고만 생각하고 승용차나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유적지를 대충 훑어보고 떠났지만, 요즘은 '답사(踏査)'라는 말에 걸맞게 미리 자료를 챙겨보고 세심하게 살피는 경우가 많아 현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달라진 모습은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수박 겉핥기식 여행이 아니라 탑, 불상, 절터 등 테마를 정한 뒤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주제 답사로 바뀌는 추세다. 부산역사교사모임이 '청소년 역사기행'을, 대동문화연구회가 '세대·계층간 벽없는 문화체험'을, 예술마당 솔이 '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답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청소년 답사기행도 늘어나고 있다. 경주박물관 등 지역 박물관들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학교를 만들어 이론·현장 교육을 통한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들을 양성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답사 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신라 사람들'에 따르면 지난 봄에 50여건의 답사팀을 안내하는 등 연간 가이드 건수가 100건, 경주 방문단 전체로는 연간 300팀을 넘어설 것이라 한다.

이처럼 답사전문 가이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들은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 오는 8월부터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전남도가 8월, 경남도와 대전시가 9월부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비롯 나주시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유적 현장교육을 통한 '전 공무원의 관광요원화'를 추진중이다.

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유산 보호와 정화, 외국인 안내를 위해 '관광환경파수꾼과 명예통역안내원'(www.goodwillguide.com)이란 자원봉사 사이트를 최근 오픈했다. 대구와 부산에서는 97년부터 '문화재지킴이 시민모임'이 구성되어 한사람 한 유물지키기, 사라진 문화재 찾기, 유적지 정화 및 안내판 세우기, 문화재교육과 정기답사, 훼손문화재 감시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은 "불교답사문화의 성숙을 위해서는 예불과 참선 체험·등 공부와 신행이 결부된 세심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참나 찾는' 산사수련회

여름 산사수련회가 화천 해인사를 시작으로 40여 사찰에서 잇따라 열린다. 6월 26일부터 시작된 해인사 여름 산사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이 참나를 찾는 참선을 하고 있다. 좌선, 불교교리 공부, 발우공양 등을 익히는 수련회에서 불자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다. 해인사=고영배 기자



"사형제도 폐지하라"

7대종교 거리행진

"사형제도 폐지하라."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7대종교 연합단체인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불교연합회'는 6월 29일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갖고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생명의 신성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사형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왼쪽은 조계종 사형제폐지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

김원우기자

82일간의 봉축열차

46만명 승차 "불교이미지 선양"

2545년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안고 82일간 382회에 걸쳐 5호선을 달려온 '봉축열차'가 6월 30일 운행 회향됐다.

종단협의회는 봉축열차의 회향과 그 동안 풍경소리에서 추진해 온 지하철 포교게시판 '자비의 말씀' 불사가 전국 지하철에 설치됨에 따라 '전국 지하철 자비의 말씀 게시판 설치 고불 및 봉축열차 회향법회'를 오는 7일 오후 3시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개최한다.

봉축열차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홍종민)가 주최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가 주관하였으며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운)가 기획·운영을 담당하여 지난 4월 10일부터 도시철도 5호선 방화↔상일 구간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그동안 봉축열차를 타고 관람한 연 인원은 약 46만명에 이르며, 봉축열차 관련 문의전화는 1,808건이었고 도시철도공사 소속 5~8호선 147개 역에 걸려온 문의전화도 1만 2,200여건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풍경소리의 이용성 사무처장은 "봉축열차가 일회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봉축열차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전불련 활동재개

통일문화제·세미나 등 준비

전국불교운동연합은 6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계를 대표하여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전불련은 통일원에 통일단체로 등록하고, 통일문화제 개최, 북한방문, MD반대운동, 〈통일평화평론〉 발행등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20년 불교통일운동사'를 정리하는 불교통일 세미나 개최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불련은 6월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5대 공동대표에 김춘길(CK TRADE대표) 박희택(위덕대 기획과장)씨를 추대했다.

김원우기자

"김소장 명예회복 안되면 불교단체 구명운동 전개"

동국대불교대학원 총동창회 등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법해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학생회장 성밀스님,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이사 정태동씨는 6월27일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김태복 장군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장군의 명예회복에 상반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총무원, 승가대학 등 여러 단체와 협의해 김 장군 구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세 단체 대표자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시주금이 뇌물로 간주될 경우 전 불자가 나서 오판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도와주세요



◇월세방에서 밥을 먹고있는 소영 양과 두 동생.

'애타는' 소녀가장 소영양

강원도 동해시 묵호여중 2학년에 재학중인 소녀가장 정소영 양이 홀어머니마저 전신마비로 중환자실에 입원, 수술비와 입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애태우고 있다.

4년전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한 후 어머니가 힘겹게 야채장사를 하며 8살 쌍둥이 남동생(영교·성교)들과 함께 살아온 소영 양은 어머니 마저 최근 뼈가 목신경을 건드려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불행을 당했다. 더구나 월 1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어린 세 남매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소영 양은 직접 본사로 편지를 보내왔다.

집=(033)533-2812, 우체국(예금주 신순연)=012054-02-059059 김재경 기자

섬마을 전법단 '뱃고동'

동산반야회·정토회

법사파견 불서보내기

섬 사람들에게 불심을 심어줄 '섬마을 전법단'이 4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동산반야회는 6월 28일 "정토회와 함께 포교 사각 지대인 섬 지역에 불법을 전할 '섬마을 전법단'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에 따르면 전법단은 섬 지역에 법사를 파견하고 불서를 보내는 것은 물론 섬 지역 사찰을 거점으로 수련관,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도시 사찰과 자매결연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법단은 답사·전법·후원팀을 상시 운영해 장·단기 포교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특히 영광군 낙월도, 웅진군 영흥도 등을 오는 11월까지 섬 포교의 모델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며, 내년 12월까지 섬 지역 전역에 걸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는 복안. 출범식은 4일 오후 2시 동산반야회관 3층 법당. 오종욱 기자

청량산 공원 사찰신도 입장료 징수

조계종·청량사 '철회' 촉구

전통사찰에 종교적 목적으로 출입하는 신도들에게 경북도가 청량산도립공원 입장료를 무조건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종교자유 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323호 1면) 조계종 총무원과 청량사 등이 입장료 징수 철회와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량산도립공원 부당징수대책위와 청량사총신도회는 6월 24일 경북도지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경북도가 입장료 징수를 이유로 종교활동 저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종교자유및 불교문화 수호차원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도 6월 14일 환경부와 문화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당해 사찰 신도는 물론 모든 신도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재경 기자

새만금 반대 서명운동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상임대표 수경스님)는 6월 29일 조계사 농성장에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 간척추진을 반대하는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새만금 갯벌 평화연대는 국민적 운동 확산을 위해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각 종교단체의 서명운동본부 발족과 전농 전국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YMCA 여성민우회 등의 참여를 통한 조직의 확대와 새만금 생명학회 창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김원우기자

석왕사 부천 송내체육관 수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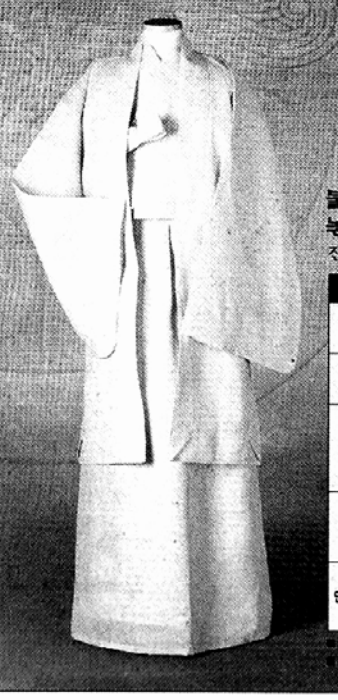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석왕사 룸비니'는 지난 6월 19일 경기 부천시로부터 부천송내체육관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 스포피아에 이어 석왕사 룸비니가 운영하는 두 번째 사회체육시설인 송내사회체육관은 부천시 송내동 457번지 8,735㎡의 부지에 지상 2층 건축면적 2,482㎡의 대규모 시설. 경기장, 운동기구실, 무대, 영화감상실, 샤워실 및 탈의실 등 각종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석왕사는 이로써 덕유종합사회복지관,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의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게 됐다. (032)668-0076 김재경 기자

無病長壽

무병장수를 기원하는「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진정한 윤년수의는 윤달에 만들어진 수의입니다.

품 명	백화점가격	불자님가격	특 별 혜 택
삼베 二品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一品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特品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수직 特品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안동포 七세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 수의 구입시 요금이 10% 추가 됩니다.
※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장애, 악수, 버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댓님, 오낭, 면모, 행전, 턱받이, 면포 (총 2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요, 장애, 베개, 원삼띠, 면모, 악수, 버선, 오낭, 턱받이, 면포 (총 18종)

삼베 壽衣 ▲ 오동나무 박스 ▲ 향나무 박스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함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완주 화암사 가는 길.

'내'가 '너'로 건너면 해탈세상

감성으로 보는 절

<1>차안과 피안의 가교-다리

나는 산사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산이 좋아서 '등산'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산을 싫어한다는 논리는 아니고, 산 그 자체 보다도 산에는 스스로 살고 있는 풀과 나무, 그리고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이 나는 좋은 것이다. 그 속에 내 마음을, '건너게' 해주는 절이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것이다. 절이 있는 산 속을 걸어 가다보면,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나무들이 수수수 내는 소리가 너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데, 나는 세상의 시름을 한 보따리 풀어 놓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다. '너희들은 이 숲속에 살면서 시름이 없니?' 왜 없을라고. 시름없는 중생이 어디 있을라고. 그러나 나는 놀란다. 나는 왜 저들과 말을 나눌 수 없을까? 저들은 지금 저희들끼리 뭐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나는 저들의 말에 한 몫 낄 수 없는 걸까? 그것은 아마 인간이 자연의 언어를 잃어버린 탓이 아닐까? 성경엔, 하늘까지 쌓아 올라가던 인간의 '바벨탑'을 하나님이 허물어뜨리고, 인간의 언어를 갈라 놓았다고 한다. 어디 인간의 언어 만일까? 자연의 언어를 몽땅 잃어버린 것 아닌가? 자연의 언어는 배울 수도 없는 언어인 것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을 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문명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자연을 모두 파괴해 버림으로써,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경원되고 소외되어 우주의 고아가 되 버리고 만게 아닌가? 산새들과 숲의 저 아름다운 대화는 인간을 소외시키고 비웃는 웃음소리가 아닐까? 자연과 하나였음, 자연의 하나인 인간이 자연을 멸시하고 소홀히 한 자만 때문에 인간은 자연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외톨이가 된 것을 나는 산 속의 숲에서 깨닫게 된다. 자연과 인간의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 것이다.

나는 고집이 센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리고 너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남을 꼬집는다고 남들이 나를 '빙초산'이라고 부른다. '빙초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침 내가 호도 없어서 뭐를 할까 심사숙고중이었는데 이왕에 사람들이 빙초산이라고 하니까 '빙'자는 빼고 '초산'이라고 하자. '풀 초'자 '뫼 산'자. 그러고 보니 그럴 듯 해서 호를 아예 '초산'이라고 정해버렸다. 내가 고집이 센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상이 강하다고 한다. 아상. 그래, 내가 아상이 강한 건지는 몰라도 탐진치 삼독에 빠져 암처럼 뼈가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을 그럭저럭 맥없이 살아가는 '물초산'이 되는 건 더 싫다. 내가 15년 동안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는 결국 빙초산이 파김치가 된 것 밖엔 소득이 없는 사회였다.

그러나 생각해 본다. 나는 지금까지 무거운 '나'를 업고 다녔다. 나는 세상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발버둥치고, 원망하고, 토라져 있었다. 나는 이쪽에 앉아서 저쪽에 있는 '너'를 나에게 '건너오라'고만 했지, 내가 저쪽으로 건너 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을 이해하는 것,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남이 나를 이해하겠는가? 요즘엔 못가지만 예전엔 시장엘 가끔 갔다. 시장은 삶의 원형이 담긴 그릇이었다. 그야말로 아상에 집착하여 아귀처럼 다투는 저 중생의 삶의 모습, 그게 '나'아닌가? 도(道)가 따로 없구나.

사람과 사람, 아니 사람뿐 아니라 모든 자연과의 관계에서 가장 슬픈 사실은 '나'가 '너'로 건너지 못하는 실존의 한계다. '나'가 '너'로 건너기만 한다면 그게 해탈이고 극락이 아닐까? 절에는 여기 저기 다리를 건넌다. 해탈교라 하기도 하고, 극락교라 하기도 하고, 피안교라 불이기도 한다. 다리 이름이 무엇이라 하든, '나'에서 '너'로 건너는 마음이 아니라면, 다리는 건너나 마나다. 세상에서 가장 건너기 어렵고 힘든 다리가, 내가 '너'에게로 건너는 다리임을 나는 절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서 깨닫는다.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그것이 불이(不二)의 세계인데, 차안에서 머뭇거리고 건너지 못하는 이 중생의 미망을 어찌할고?

다리는 건너기만 해선 안된다. 뛰어넘어서는 것이다. 아무리 튼튼한 불법의 다리라 하더라도 부처님 등만 밟고 의지하여서 쉽게 건널 수는 없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건너뛰는 승가와 용기가 없이는 차안에 이를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안전하게 잘 만든 다리를 절에 만들어 놓고 수많은 신도들이 건너다닌다고 해서 다 불법을 건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미망으로 소외되고 갈라진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바로 저기 不二의 세계 차안서 머뭇거릴손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감미롭게 읽는 부처님 육성

한글대장경의 세계

지혜와 자비의 말씀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삭이는 수행자는 이 세상(此岸)도 저 세상(彼岸)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연못에 핀 연꽃을 몸 속에 들어가 꺾듯이 애욕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한글대장경의 간행일련번호 153번에 해당되는 경전은 〈지혜와 자비의 말씀〉과 〈미린다왕문경〉이다. 이들 경전은 고려대장경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팔리어 경전에서 번역해 한글대장경에 포함한 것이다. 여기서 살펴 볼 경전은 〈지혜와 자비의 말씀〉인데 이 경은 바로 숫타니파타(sutta-nipata)이다. 앞에 인용한 구절들은 바로 이 경전의 제1장 사품(巳品)의 처음 세 구절이다.

최초경전 '숫타니파타' 옮겨 당시 인도사회 뒤흔든 사상

숫타니파타는 그 자체가 경전의 이름이 아니고 경의 집성을 의미한다. 불교의 많은 경전 중에 최초로 이루어진 경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숫타니파타는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부처님과 당시의 인물들 그리고 초기 불교의 정신을 아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부처님 입멸 이후 그 가르침이 간결한 운문으로 구성되어 전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쇼카왕(BC268~232) 이전에 성립된 경전 가운데서도 오래된 것이 숫타니파타인데 그 가운데서도 4장과 5장은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숫타니파타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뱀의 장 즉, 사품(蛇品)인데 12개의 경으로 묶여져 있다. 사품의 제 1경이 뱀의 장이다. 앞의 인용 구절들에서 보이듯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내는 것처럼'이란 비유가 반복되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두 번째는 작은 장(小品)인데 비교적 짧은 내용의 경 14개로 이뤄졌다. 그 가운데 11번째 경이 부처님이 아들 라훌라를 위해 설한 내용. 즉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함께 있는 현자들을 가볍게 보거나 교만한 마음을 내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다.



세 번째 장은 큰 장 대품(大品). 약간 긴 12개의 경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제1경 '출가경' 과 제2 '정근경' 제 11 '나아라카경'은 부처님 전기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다. 제 9 '바아세타경'은 4성(姓)의 평등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 주목된다. 부처니 당시의 4성 체도는 엄격한 것이었고 부처님의 4성 평등이라는 가르침은 당시 사회의 질서를 크게 뒤흔드는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네 번째 장은 여덟편의 시(義品)다. 여덟 편의 게송으로 이뤄졌다. 수타니파타 가운데 한역된 유일한 경집이 바로 네 번째 장이다. 서북인도의 재가 신자인 지겸(支謙)이 오나라 초기(서기 223 ~ 253년 사이)에 번역한 것이다. 경의 한역 이름은 〈불설의족경(佛說義足經)〉이다.

다섯 번째 장 피안에 이르는 길(彼岸道品)은 앞의 경들과는 달리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16명의 바라문이 각기 부처님에게 질문하고 답한 문답록 1절과 서론과 결론을 합해 18절로 이뤄진 것이다.

어떤 경전보다 일찍 이루어지고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부처님과 당시 제자들의 육성을 가장 진하게 들을 수 있는 이 경전은 운문체와 반복적 비유 등의 특징으로 인해 새로운 맛을 준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 추천서



■ 고불총림 방장 서옹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